21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 청년생활



7
1955

# 청년생활

제 7 호 (70)
1955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 제七호 내용


청춘의 힘을 조국의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하여 바치자!……(二)

처녀지와 황무지 개간에 나선 모쓰크바 청년 집회에서 한 느·쓰·흐루쑈브의 연설 (요지)……(五)

☆ 민 청 생 활 ☆

민청 일꾼들은 청년들의 마음을 잘 알아 주는 친근한 벗이 되자…유 창 락(一一)

통신과 편지에서……(一五)

낡은 사상 잔재란 무엇이며 그것은 우리 혁명에 어떤 해독을 주는가? (지상 토론)……(二〇)

민청 생활에 대한 질의 응답……중앙민청조직부(二四)

잊을 수 없는 전투의 날……신 중 순(二三)

우리들의 사상 생활……(二五)

복구 건설장에서

강철의 전사 용감한 건설자……리 만 규(二六)

로력은 영웅을 창조한다……리 용 철(三〇)

세계 청년 운동

와르샤와에서의 상봉의 날을 앞두고 (화보)……(三八)

국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 시기에 있어서 레닌 공청원들은 어떻게 투쟁하였는가?……김 덕 필(四〇)

학습 교양 자료

민청원들 속에서 선진적 혁명 의식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자……김 봉(四五)

당과 혁명의 리익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최 만 복(五二)

언제 어데서나 경각성!……(五〇)

술어 해설……(五六)

·표지 ── 청년들은 농촌으로 나간다……남 현주 그림

과학 기술

물의 이야기……고 사 기 (58)

가축 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60)

문예

생의 노래……조 기 천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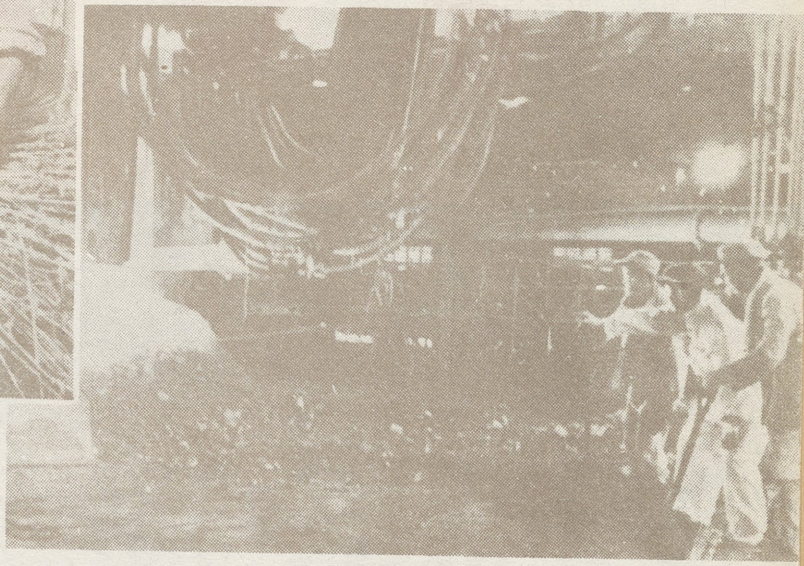
이 책들을 읽자!……(72)

2만 5천리 장정 이야기……양 링 허 (74)


근로 청년들은 8.15 해방 10주년 증산 경쟁의 불'길을더욱 높이고 있다



가작 농업 협동 조합 김취성 청년작업반 원들의 보리가을 ↑



봉궁 화학공장 제一호 전기로에서의 젊은 로동자들 ↑



← 로력영웅 최성순 동무의 벽돌 축조작업

사설

# 청춘의 힘을 조국의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하여 바치자!

오늘 우리 국가와 인민의 큰 관심이 농촌에로 돌려지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농업은 인민들의 식량을 보장하여 주며 공업 원료를 공급하여 준다. 그러므로 농촌 경리를 복구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공업의 발전도 인민 생활의 향상도 생각할 수 없다. 때문에 당과 정부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에 있어서 공업 발전과 함께 농촌 경리 발전에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

로동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 농촌 경리를 더욱 빠르고 힘 있게 복구 발전시킬 데 대한 중요한 과업을 국가와 인민 앞에 제시하였다. 당과 정부는 이 결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농기구 및 비료 공장을 복구 확장하며 대규모의 관개 공사를 진행하며 농업 협동 조합에 대한 방조를 강화하며 재해 및 빈농민들에게 량곡과 종곡을 대여하여 주며 농기계 임경소를 확장하는 등 많은 자금과 자재와 로력을 농촌에 돌리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농민들과 함께 농촌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금년도의 농산 계획을 넘쳐 실행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이 초보적 성과에 만족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의 공업 발전과 인민 생활은 계속 더 많은 농산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과 정부는 우리 나라 북반부를 강력한 공업 중심지로써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식량이 풍부하고 여유 있는 지대로 발전시킬 과업을 내세우고 그 실천에로 인민들을 인도하고 있다.

최근 공화국 정부에서는 내각 결정 제 五七호를 비롯하여 농업 현물세 부과률의 일부 개정, 농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자유 판매의 실시 등 농촌 경리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중요한 대책들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당과 정부가 우리 나라 농촌 경리를 발전시켜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큰 관심과 배려를 돌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똑똑히 뵈여 주는 또 하나의 인민적 시책이다.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하여 당과 정부는 다른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북반부 청년들의 애국적 열성에 큰 기대를 돌리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나라 북반부 농촌은 새로운 발전 시기에 들어 섰으며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농촌에는 협동화의 새 생활이 시작되였으며 기계화되는 국영 농목장과 농기계 임경소가 발전되고 있으며 자연을 개조하는 대관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새 발전기에 들어선 우리 농촌은 생기 발발하고



용감하며 새것에 민감한 청년들을 부르고 있다. 농촌은 힘과 생기가 약동하는 젊은 협동 조합원들과 작업 반장들을, 젊은 협동 조합 관리 일꾼들과 부기원들을, 청년 농업 기술자들과 농기계 운전수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구히 농촌에서 일할 그런 청년 일꾼들을 절실히 부르고 있다.

이 부름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 복무하는 것을 자기의 최고 리상으로 명심하고 있는 우리 나라 청년들의 가슴을 흥분케 하였으며 격동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금년도 초 고중 졸업생들과 제대군인의 절대 다수가 당과 인민의 부름에 호응하여 자기들의 일생을 조국의 농촌 경리 발전에 바칠 각오 밑에 속속 농촌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직하며 또한 개인의 리상을 조국의 현실과 결부시킬 줄 아는 그런 애국자이며 집단주의자들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뵈여 주는 산 증거로 된다.

때문에 조국과 인민들은 농촌에로 진출하는 젊은 애국자들을 높이 찬양하고 있다. 동시에 조국과 인민은 그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농촌에로 진출하는 청년들은 반드시 인민의 이 기대에 어김없이 보답하기 위하여 분투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에 진출한 청년들은 우선 농촌에 안착하여 로력에서 농민들에게 모범을 뵈여야 할 것이다. 제대군인들은 전쟁 시기에 발휘한 그 용감 성과 완강성을 발휘하며 초 고중 졸업생들은 민주 학원에서 배양한 정력과 지식을 가지고 성심 성의로 로력하며 항상 어렵고 힘든 작업을 농민의 선두에서 솔선 담당 수행하며 자기의 근면성과 완강성으로써 농민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허심하고 겸손한 태도로 인민들에게서 부단히 배우며 정치 사상 교양에 노력하여 자기의 혁명 의식을 높이며 농업 과학과 기술을 꾸준히 배우며 농촌에 남아 있는 봉건 잔재와 일체 보수적이며 리기주의적 낡은 사상 잔재들을 청산함에 솔선 모범이 되며 농촌에 선진적 농학 지식과 문화를 도입하는 안내자가 되며 민청 사업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농촌에서의 생활 과정에는 각종 곤난과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들은 이 난관이·장성과 발전 중의 난관이며 행복을 위한 난관임을 명심하고 완강한 의지와 혁명적 락관주의 정신으로 이를 용감하게 이겨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길로 전진하는 우리 나라 농촌의 믿음직한 새 건설자로써 자기들의 영예로운 임무를 완수하여 조국과 인민의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당과 정부가 내세운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과업은 농촌에서 큰 력량으로 되고 있는 민청 단체들 앞에 영예롭고도 책임적인 과업을 위임하고 있다.

현 시기 농촌 민청 단체들의 기본 과업은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당의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적극성을 발휘하며 농민 청년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의식을 꾸준히 배양함으로써 청년들로 하여금 농업 협동 조합 운동의 적극적 참가자로 나서게 하며 온갖 낡고 보수적인 것을 반대하여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며 선진 농학과 선진 영농 기술 그리고 기계화를 도입함에 있어서 선구자로 나서게 하는 데 있다.

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 행정에서 민청 단체들 속에는 적지 않은 좋은 경험들이 나타나고 있다.

황해남도에서는 연 四五만여명의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동원되여 청년 공구, 청년 작업대를 조직하여 연장 八七키로메터에 달하는 六四개의 관개 공사를 완수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 강원도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농기구 개량, 고랑 좁히기 운동을 일으켰으며 김책군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랭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파며 거기에 탄재를 펴는 창발적 사업을 조직 전개하였다.

가축을 더 많이 기르며 무축 농가를 퇴치하기 위한 사업에서 용덕군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부수입을 높이게 함으로써 六三%의 무축 농가를 퇴치케 하였으며 나머지 무축 농가들은 호상 유무 상통의 방법으로 금년 三월까지 완전히 퇴치하였다。 평북도 민청 단체는 가축 사료의 확보를 위하여 산 기슭、각담 등을 리용하여 민청원 매인당 五〇포기 이상의 호박을 심는 사업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업들은 민청 단체들이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옳게 배합하여 농촌 청년들을 잘 지도한다면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좋은 교훈으로 된다。

다음으로 현시기에 있어서 농촌 민청 단체의 첫째가는 주목은 농업 협동 조합내 민청 단체 지도 사업에 돌려져야 한다。금번 내각 결정 五七호에는 농업 협동 조합들을 조직 경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금후 당분간 새로운 조합 조직은 제한하고 이미 조직된 조합들을 질적으로 강화하며 그의 경제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할 것이 지적 되여 있다。

조합내에서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과업은 로동을 사랑하며 집단을 사랑하며 선진 농학 지식과 기술을 열심히 배워 그를 실제 영농 사업에 적용함에 있어서 모범을 발휘하는 데 있다。조합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조합 관리 운영에서의 민주주의적 제 원칙을 위반하는 현상들을 견결히 반대할 것이며 조합내에서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들인 건달、조합 재산에 대한 소홀한 태도、절취、랑비、개인 리기주의、보수 사상들과 용서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협동 조합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 농민 민청원들과 청년들에게 친절히 대하며 모든 사업에서 모범을 보이며 선진 영농 경험과 영농 기술들을 전파하여 줄 것이며 그들과의 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농촌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당면한 과업으로 자급 비료 증산 경쟁 운동을 일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자급 비료 증산 경쟁 운동은 농산물의 증산을 위한 전 당적、전 인민적 과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애국적 운동이며 이에 적극 참가함은 전체 농촌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영예로운 임무이다。자급 비료 증산 경쟁 운동은 이미 적지 않은 성과들을 거두면서 광범한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농촌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당면한 풀베기 사업에서 더 훌륭한 성과를 내여 금년도 자급 비료 생산 목표를 넘쳐 실행하도록 경쟁의 불길을 더욱 높일 것이다。

농촌 민청원들과 청년들 앞에 나서고 있는 영예롭고 책임적인 과업의 성과적 수행 여하는 농촌 민청 단체들의 지도 사업 여하에 달려 있다。농촌의 각급 민청 단체들과 민청 일군들은 우선 민청 사업에서의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을 근본적으로 퇴치하며 농촌 청년들 속에서의 계급적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하는데 첫 주목을 돌려야 한다。

민청 단체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을 민청 원들과 청년들의 실생활 및 당면 과업과 옳게 결부시켜 실속 있게 해석 선전할 것이며 특히 민주 선전실을 중심으로 한 군중 문화 사업 및 체육 사업에 심중한 주목을 돌릴 것이다。

민청 단체들은 토지 복구 및 보호 사업、가축 증식、식량 절약을 위한 투쟁에서 민청원들의 모범적 역할을 높이도록 잘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 북반부 농촌은 희망과 행복의 락원으로 전변되여 가고 있다。사랑하는 향토에서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참으로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이다。농촌의 전체 남녀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 결정을 더욱 성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청춘의 모든 힘과 정열을 남김 없이 바쳐 싸우자!



# 처녀지와 황무지 개간에 나선 모쓰크바 청년 집회에서 한 느·쓰·흐루쑈브의 연설 (요지)

최근 우리 나라의 제대군인들과 초 고중 졸업생들은 자기들의 일생을 농촌 경리 발전에 바칠 것을 결심하고 속속 농촌으로 진출하고 있다。

편집부는 농촌으로 진출하는 청년 동지들에게 처녀지와 황무지 개간에 나선 모쓰크바 청년 집회에서 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一비서 느·쓰·흐루쑈브의 연설이 큰 교육적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하면서 본호에 게재한다。

동무들! 나는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를 대표하여 당신들을 환영하며 우리의 위대한 쏘베트 조국을 위한 당신들의 로력에서 최대의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동무들! 당신들이 처녀지 개간에 떠나기로 결심한 것과 그리고 이미 처녀지에서 작업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들이 이곳 회의에서 연설한 자원자들을 자기의 로력으로 지원하기로 결심한 것은 좋은 일이다。작년에 우리가 이 처녀지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었을 때에는 그곳이 오늘에 있어서 보다는 모쓰크바에서 더 먼 것 같이 생각되였다。그 때에는 까자흐쓰딴과 알따이의 먼 구역들에 가 본 모쓰크바 사람이 적었으며 따라서 그곳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수 천명이 처녀지로 떠났으며 그곳에 가 보았으며 해야 할 대로 일하였으며 편지들을 보내여 온 지금은 문제가 다르다。사실 여러가지 내용을 가진 편지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는 좀 언급되여야 할 우는 소리를 한 편지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편지들은 힘 있는 편지들이였으며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임된 사업의 성공에 대한 굳은 신심을 표명하고 있었다。이 편지들은 오늘날의 훌륭한 문건들이며 처녀지 개간에 떠난 우리의 영광스러운 청년들의 용감한 정신을 립증하는 것들이다。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청도 청년들과 더불어 말하기 더 쉽게 되였으며 작년에 씨비리와 까자흐쓰딴의 새로운 초원 광야를 개간하려 떠나간 사람들의 모범을 따르라고 청년들에게 호소하기 더 쉽게 되였다。이것은 좋은 일이다。

나는 우리가 금년에 처녀지 구역들에서의 새로운 쏩호즈 및 엠·떼·에쓰들에 대한 간부 보충을 기본적으로 끝마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동무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명년까지 끄는 것이 좋겠는가? 그렇다。아마도 끝마쳐야 할 것 같다。이것은 국가에 대단히 중대한 일이다。당신들은 당과 정부가 一九五六년까지에 二천 八백만 내지 三천만 헥터의 새 토지를 개간할 것을 계획한 것을 알고 있다。

나는 三천만이라는 숫자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것은 二천 八백만 보다는 더 좋다。 그것은 따라서 우리가 곡물도 더 많이 수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들이 개간되리라는 데 대하여 의심할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금년에 우리는 대략 一천만 헥터를 기경하고 파종할 것이다。

그러나 一천만 헥터는 남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개간하는 것은 우리가 二천만 헥터에 곡물을 파종하게 되는 이후에 있어서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에 명년에 우리는 국내에 三천만 헥터의 보충 파종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동무들 三천만、 이것은 큰 일이며 이미 있는 것에 대한 큰 보충인 것이다。

새 토지의 개간과 아울러 낡은 지역들에서도 이것 저것 여러가지 일을 찾아내게 될 것인바 목초의 생산성이 적은 목초지들을 기경하여 그곳에 수확률이 좋은 알곡 및 기타 작물들을 파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알곡、 마령서、 야채 및 공예작물의 현재의 수확고에 대단히 많은 숫자가 첨가될 것이다。 동무들 나는 당신들에게 나 자신의 인상도 피력하려 한다。 당신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작년에 까자흐쓰딴、 알따이、 노보씨비르쓰크 및 옴쓰크 주들의 처녀지에 가 볼 기회를 가졌었다。 나는 다년간 우크라이나에서 살았으며 소년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였으며 우크라이나의 부원을 알고 있다。 쏘련에서는 우크라이나 땅보다 더 풍요한 땅을 찾아 보기 어렵다! 고 나에게는 생각되였었다。 그러나 동무들 까자흐쓰딴과 알따이의 토지들은 훨씬 더 풍요하다! 물론 까자흐쓰딴과 알따이의 모든 토지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아니며 거기에도 대단치 않은 토지들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보다는 옥토가 현저히 더 많다。

이와 같은 유익한 땅에 최근까지 토끼들이 둥지 틀고 있었으며 야생 양들이 살고 있었다。 오래 전에 처녀지 개간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였다。 그곳에 강 우량이 적다고 말들 한다。 그러나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남부에는 강 우량이 결코 더 많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론거는 비관을 견디여 낼 수 없다。 단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주민이 적은 지역 또는 전혀 무인 지경들이 있다는 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적극적인 지지、 전체 우리 청년들의 지지 하에 이 난관은 극복될 것이다。

처녀지에 오래 전부터 관심을 돌려 왔다는 것을 말하여야 하겠다。 일찌기 짜리 시대에 벌써 이 과업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로부터는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즉 로씨야의 자본주의 제도의 조건 하에서는 처녀지 개간에 사람들을 동원할 수 없었다。 우리의 쏘베트 조건 하에서는 문제가 다르다。 쏘련 인민은 농업에 풍부한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강력한 공업을 창설하였다。 쏘베트 사람들은 처녀지 개간이 우리 국가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청년들의 거대한 열성은 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국가가 새로운 토지들의 지역에 보내여 주는 풍부한 기자재들을 리용하여 높은 능률을 내면서 로력할 수 있다。 국가는 처녀지에 수 만대의 뜨락또르、 꼼바인 및 기타 기계들을 주었다。 공청과 우리의 영광스러운 청년들은 당의 호소에 열렬히 호응하였다。

바로 청년들이 처녀지로 갔다는 것은 특기할 일이다。 도착한 사람들은 모두 직접 생산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당신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주택들이 건설되지 않은 또는 필요한 생활 시설들이 없는 벌거숭이의 땅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 가정보다는 한 사람의 젊은 총각이나 혹은 처녀에게 있어서는 이 일시적 곤난들을 극복하기 더 쉽다。

이미 처녀지에서 작업한 공청원들인 롬쎄바와 까싸뜨낀이 여기에서 토론하였다。 거기에서 추위는 그들의 용기를 어느



정도 돋우어 주었다。 보건대 그들은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서 난관들을 두려워 하지 않고 작업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좀 더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쟁 시기에 병사들이 어데서 휴식하였던가를 당신들은 기억하고 있는가? 그들은 싸우던 그 곳에서 휴식하였다。 나라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우리 인민은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자기의 로력으로써 지층들을 일쿠고 토지를 개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연단에서 연설한 것을 보며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유쾌한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토지로부터 一년 또는 二년 후에 떠나지 말아야 하겠다。

우리들은 여기에 튼튼히 그리고 영원히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당신들이 거기에서 결혼하는 것이 요망된다。 결혼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그것은 가정을 건설하기를 원하며 새로운 장소에 튼튼히 자리 잡기를 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정을 꾸미는 그 사람은 훌륭한 공민이다。 우리에게 사람이 더욱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나라는 더욱 튼튼해 질 것이다。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인구 과잉론을 포함한 수 많은 식인종적 리론을 고안해 내였다。 그들은 어떻게 출생률을 축소시키며 인구의 증가를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 동무들 우리 나라에서는 사태가 다르다。 二억에다 또 一억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적을 것이다!

나는 이 기회를 리용하여 이 자리에서 하나의 문제에 언급하려 한다。 일부 동무들은 어느 한때 채택되였던 독신자 및 자녀 없는 자에 대한 과세법이 좋지 못한 것이였다는듯이 우리들을 비난하고 있다。 동무들 만일 이 법에 대하여 누구를 꾸지람 하려면 누구보다도 많이 나를 꾸지람 하여 달라。

이 법은 내가 제의한 것이였다。 여기에는 말렌꼬브 동지도 참석하고 계신데 그는 이것을 확증할 수 있다。 나는 쓰딸린 동지에게 이러한 법령을 작성하여 채택할 것을 제의하였는바 이 법령이 작성되고 승인되였다。 나는 이것이 옳은 법령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을 범속한 면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적인 면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이 법령에는 무엇이 규정되여 있는가? 자녀들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하나 내지 둘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세금을 물어라。

그것은 어째서? 그것은 만일 매개 세대가 하나 내지 둘의 자녀만을 가지게 된다면 나라의 인구는 증가되지 못하고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의 발전에 관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가정에는 적어도 세 사람의 자녀는 있어야 하며 그들을 잘 육성하여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어째서 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 자녀가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는가고。 그 리유는 이렇다。 우리에게는 도대체 장가를 가지 않거나 장가를 간 후에도 자녀들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 원인들에 대하여서는 분석하지 말기로 하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복리를 누리고 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은 늙어간다。

묻노니 그가 로력할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는 때 그에 대하여는 누가 돌보아 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훌륭한 다아모성들에게서 성장하는 그 청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쓰딸린 동지는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 방조를 줄 것을 제의하였다。

그것은 무엇으로써 주겠는가? 그것은 현재 살고 있으면서도 장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것으로써 줄 것이다。 우리는 래일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하며 자기의 사회주의 사회에 관하여 또한 그 사회를 발전시킬 데 대하여 생각하여

야 한다。 그때에 우리는 공고해지고 우리 사회주의 사회에 뿌리를 박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떠한 힘도 이 뿌리를 빼지 못할 것이다。 동무들! 이로부터 독신자 및 자녀 없는 자에 대한 과세법이 옳고 좋은 법령이며 그것이 우리 국가에 리익을 준다는 결론이 나온다。

처녀지 개간 문제로 돌아가자。 쏘련의 동쪽에 있는 땅들은 풍요하다。 알따이를 지나 더 동쪽으로 가야 한다。 크라쓰노야르쓰크 변강에는 얼마나 좋은 토지들이 있는가! 과연 우리는 아직도 씨비리를 묘사한 좋은 또는 좋지 못한 온갖 서적의 인상을 가지고 흔히 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짜리 제도 당시에 사람들이 정배 살이를 하고 있던 곳으로써 가장 흔히 묘사되고 있다。 이런 묘사의 인상을 받아 사람들에게는 매로 이 지방들에 대한 전혀 옳지 못한 개념이 형성되고 있다。 크라쓰노야르쓰크를 들어 보자。 이것은 바로 한발을 모르는 변강이며 여기에는 참 훌륭한 토지들이 있다!

동무들! 나는 얼마 전에 원동의 하바롭쓰크 변강에 갔었다。 여기는 풍요한 변강이다。 그런데 아직 인구는 적으나 그곳을 개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들은 옴쓰크로부터 짜할린으로 마령서를 가져 가고 있는바 한편 린접하고 있는 하바롭쓰크 변강에서는 높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비옥한 토지들이 내 버려지고 있다。 이 토지들에서는 마령서도、 쌀도、 콩도、 옥수수도、 그리고 수박과 참외도 자랄 수 있다。 이 토지에 파종된 모든 식물들은 자랄 뿐만 아니라 잘 자란다。

그런데 이 토지는 아직도 대단히 잘 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울라지보쓰또크는 어떠한가? 얼마 전에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불가닌 및 미꼬얀 동지들과 함께 울라지보쓰또크에 들렸었다。 여기는 옛말 같은 곳이다! 구릉 지대에 위치한 매우 아름다운 이 도시에는 경치 좋은 만들과 섬들이 있으며 모든 것이 록음에 덮이였고 그리고 자연은 기막힌 것이였다! 또 기후도 훌륭하였다! 우리들이 울라지보쓰또크에 체류하였을 때 당신들은 첫 겨울 추위에 여기에서 몸을 쭈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름 코트를 입고 다니면서 맑고 좋은 일기를 즐겼다。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울라지보쓰또크는 과연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시이다! 연해주에는 농업 발전을 위한 특히 축산업 발전을 위한 무진장한 가능성들이 있다。 이 지방의 토지에는 풀이 밀림에서 처럼 무성하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육류와 빠터、 그리고 기타 우락 제품들을 이곳에 운반하고 있다。 이 사업을 개선하여야 하겠다。 그러면 짜할린은 어떠한가? 이 지방도 역시 경치 좋고 비옥한 지대이다。 기후는 좋고 습기 있는 곳이였는데 아마 필요 이상으로 더 습기가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쏘베트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전진하며 그리고 훌륭하고 유익한 사업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은 동쪽에서 황무지들을 급속히 개간하여야 하며 이 토지들에 튼튼히 발을 붙여야 한다。

우리들은 꼼쏘몰쓰크에 갔었는데 이 청년 도시에서나 원동의 기타 새 도시들에서 로동자、 사무원들과 담화를 하였을 때 새 도시 주민들의 애국주의가 특히 눈에 띄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도시들을 어떻게 건설하였는가에 대하여 참으로 용기를 가지고 말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도시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들을 원조하여 줄 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그들 중에는 한 때에 이 도시들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모쓰크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것은 자기 도시에 대한 애착심이며 그의 좋은 표현인 것이다! 당신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처럼 우리를 선동할 필요는 없다。 우리들 자신도 이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강력한 애국주의의 물결이 일어날 때에는 모든 전진한 것과 더불어 어떤 가벼운 것도 표면에 떠 오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가 곤난이 닥쳐 오면 기세가 저락되여 어떤 사람은 모쓰크바로 되



돌아설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들을 보낼 때에는 영예를 드리지만 도로 받아 들일 때에는 기쁘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받아 들일 때에는 영예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이 새로운 토지를 개간하려 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곳에서는 많은 것을 건설하여야 한다。 사실 일부 처녀지 개간 지대들에는 목재가 없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또는 우리의 도네쯔 지방들을 보라。 당신들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한 때에는 나 자신도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이·초가집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항상 서늘하다。 여기에 그의 특색이 있다。

당신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려행할 까자흐쓰딴에는 호수가 많다。 까자흐 공화국은 가장 풍부한 갈대 밭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택 건설에 있어서나 또는 모든 가정 살림을 꾸미는 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된다。 다만 그것을 솜씨 있게 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까자흐쓰딴의 새 토지에 익숙해져야 하며 그곳에 집을 잘 건축하여야 한다。 당신들은 이것을 할 수 있다。 사실 처음에는 마루 바닥이 흙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무로된 마루 바닥도 만들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모쓰크바도 단숨에는 건설되지 않았다。 생산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물론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생활 문제에 있어서도 모범들을 보이기 위하여 잘 행동하여야 한다。 도시의 문화를 도입하여 남이 볼 때에도 과연 모쓰크바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과 멋 있고 아담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교、 아동 기관、 탁아소 및 유치원들을 건설하라。 이주지에서 온 한 동무가 여기서 토론한 바에 의하면 그들에게 一〇학년제 학교가 생길 것이라고 하며 명년에 그는 공부하겠다고 말하였다。 만일 당신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것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이를 위한 모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문 지식을 습득하며 기술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필요한 바 그렇게 되면 로동 생산 능률도 달라질 것이며 또 그렇게 되면 사회주의적 부의 축적도 달라질 것이며 생활은 현저히 더 훌륭하게 될 것이다。

동무들! 인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농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식료품을 더 많이 받아야 하며 공업용 원료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모든 성과를 거둔 것은 그것이 레닌에 의하여 계획되였고 쓰딸린의 령도 하에 당에 의하여 부단히 실천되였고 우리의 전 당에 의하여 실시되여 왔으며 앞으로도 실시될 당의 총 로선이 승리한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다。 느·쓰·흐루쑈브는 계속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자본주의 포위 속에 있다。 우리의 성과는 우리의 벗들을 기쁘게 하며 원쑤들을 전률케 한다。 우리는 우리 조국의 위력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하며 전 세계의 공고하고 항구한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평화적 로력에 종사하고 있는 쏘련 인민은 자기의 전 력량을 공산주의 건설 위업에 바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의 학설을 지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의 성과는 거대하다。 그러나 우리는 안심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더 잘 일하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또 무엇이 필요한가—그것은 자기 비판이 더 필요하다。

느·쓰·흐루쑈브는 그 누구를 따라 잡았다거나 또는 앞섰다는 것으로 자만하지 말고 자신에 대한 요구성이 더 있어야 하며 자만은 더 적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늘에 있어서는 훌륭한 것도 래일에 가서는 불충분한 것으로 된다는 것을 알고 이미 해 놓은 일에 만족하지 말라고 느·쓰·흐루쑈브는 강조하였다。 처녀지에서 사업한 첫 해에

자기 끌렉찌브와 함께 쏘련 농업 전람회에 참가할 권리를 획득하였다고 한 토론자의 말을 느·쓰·흐루쑈브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계속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나는 당신들 중의 매개인이 쏘련 농업 전람회에의 참가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녀지에 가서 당신들은 수도에 수치를 주지 말아야 하며 함께 일하던 끌렉찌브에 수치를 주지 말아야 한다。 내 생각 같애서는 전람회 참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창피하기 까지 할 것이다。 당신들이 지지하지 않는 것을 보니 겁이 나는 모양이지? 그렇지?

우리에게는 기자재가 있으며 토지는 좋으며 지식이 있는바 이것들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완강성이다。 첫 해에 되지 않으면 굴하지 말고 둘째 해에 투쟁하라。 세째 해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이다。 만일 사람이 그가 무엇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가를 인식하고 지식으로 무장되고 완강히 사업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장애는 없다。

쏘련 농업 전람회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나라에 필요한 모든 생산품을 단 기간 내에 충분한 량을 획득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전 인민적 증명으로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떠한가? 해마다 식료품이 더 많아지는데도 상품은 계속 모자란다。 그것은 왜? 그것은 해마다 로동 계급이 장성하며 임금이 장성하며 물가가 인하되며 구매자들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것이 나쁜가? 아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생산이 주민의 수요의 장성에 뒤떨어지지 말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훌륭한 사업、옳게 조직된 로동、물자를 리용하는 수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과업들을 아주 단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우리는 一九五五년에 농산물을 현저히 증산하여야 하겠다。

알곡 경리와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야채、마령서、아마、대마 및 기타 작물을 더 많이 내도록 하여야 하겠다。

동무들 당신들에게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처녀지 개간에 있어서、 조국의 복리와 그 위력의 강화를 위한 로동에 있어서 당신들의 성과에 관하여 알려주는 진실한 편지들을 당신들로부터 기다린다。





# 민청 일꾼들은 청년들의 마음을 잘 알아 주는 친근한 벗이 되자

민청 평양시 위원회
위원장 유 창 락

벗이란 서로 신임하며 원조하며 자기의 모든 감정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근한 사람이다。 민청 일꾼들은 바로 이와 같은 청년들의 친근한 벗이 되여야 한다。

민청 일꾼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잘 알아 주는 친근한 벗이 되자면 청년들의 일체 생활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관심하여야 한다。 즉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한 그들이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요구하며 희망하는가? 동지 호상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애로와 결함이 있는가?를 잘 알아야만 한다。 만일 민청 일꾼들이 이런 것을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에 대하여 옳은 태도를 가질 수 없으며 그들의 마음에 잘 맞는 사업을 조직할 수 없으며 그들에게서 신망을 얻을 수 없다。

청년들에 대한 이와 같은 관심과 주의는 그들의 용기와 정력과 희망을 고무하여 준다。 때문에 민청 일꾼들은 청년들을 친절히 대하며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생활의 기쁨과 고통을 같이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청 일꾼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동구역 전구 공장 민청 위원회 위원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은 본 받을만한 모범이다。 그들은 매개 민청원이 어떻게 사업하며、 그들이 휴식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져 하며、 어떤 책을 읽고져 하며、 어떤 체육 경기를 하고져 하는가를 잘 알고 그의 요구에 맞게 사업을 계획하고 조직함으로써 청년들의 활기와 기세를 높여 주고 있다。 실례로 얼마전까지 이 공장 민청은 청년들이 체육을 즐긴다 하여 배구장을 설치하여 놓았다。 그러나 몇몇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배구 경기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공장내 체육 사업은 대중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왜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였겠는가? 그것은 꼭 같은 두사람이 없는 것처럼 매개 청년들에게는 각기 다른 성격과 흥미가 있기 때문이였다。 사실에 있어서 그들 가운데는 배구 경기 보다 롱구 경기를 더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었으며 축구를 즐겨 하는 청년들이 있였으며 그외 장기、끈뛰기、바둑、탁구 등 여러가지 종목의 운동과 오락을 요구하고 있였던 것이다。 공장 민청 일꾼들은 청년들의 요구에 의하여 그들이 문화적으로 휴식하도록 모든 체육 및 오락 시설을 더욱 확장하였다。 공장 민청 위원회 위원들은 이렇게 청년들의 요구에 민감할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주 청년들의 합숙과 가정을 방문한다。 그리하여 로동 청년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공장 당 단체와 행정에 제의하여 해결하여 주고 있다。 경험은 민청 일꾼들이 청년들의 각이한 성격과 흥미를 잘 리해하고 그들의 요구에 의하여 사업을 설계하며 그들의 마음에 잘 맞게 사업을 분공한다면 모든 사업에서 청년들의 용기와 활기를 높이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북구역 민청 위원회 일꾼들은 청년들의 제의와 신소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 또 구역 민청에 찾아오는 청년들에 대하여 겸손하고 심중성 있는 태도로 대하고 있다。 얼마전 이 구역 산하 어떤 학교, 민청 초급 단체 총회에서는 풍기를 물란히 하였다는 리유로 김 옥희의 출맹을 결정하였다。 그는 자기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받기 위하여 구역 민청 위원회에 신소하였다。 구역 민청 일꾼들은 이 사실을 정당하게 심의하였다。 그는 사실에 있어서 풍기 물란한 녀성 청년은 아니였으며 진정한 사랑을 자지고 어떤 남자와 교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구역 민청 일꾼들은 두 남녀 간의 사랑이 참되고 진실하도록 배려하면서 그에 대한 출맹 처벌을 해소하였으며 그가 다시 직장에서 잘 일하도록 도와 주었다。 민청 일꾼들은 청년들의 신소와 제의의 뒤에는 이와 같은 절박한 사정들과 요청들,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가진 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자기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 받은 김 옥희는 구역 민청을 더욱 신뢰하였으며 구역 민청 일꾼들을 자기의 친근한 벗으로서 모든 것을 서슴치 않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해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이와 같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며 그들의 요구와 애로를 해결해 줌에 발벗고 나서는 그러한 민청 일꾼들은 언제나 청년들의 지지를 받으며, 또한 청년들은 그러한 일꾼을 종신토록 잊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아름다운 말로써 그러한 일꾼들을 몇번이고 회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평양시내 민청 일꾼들의 모두가 이렇게 청년 군중 앞에서 소박하고 겸손하고 그들과 한 덩어리가 되여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아 주며 청년들의 충복답게 복무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아직도 평양시내 민청 일꾼들 중에는 청년들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 복무하지 않으며 그들의 마음 속에서 울어 나오는 요구와 제의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으며 그에 관프하고 경솔한 태도까지 취하는 사실이 적지 않다。

일부 민청 일꾼들은 아직도 그들의 실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 청년들의 실 생활 속에 들어가지 않고야 어떻게 그들의 요구와 감정에 흡족하게 청년 사업을 조직 진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시내 일부 민청 일꾼들 가운데는 『나는 높은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며 모든 것을 잘 안다』라는 관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청년 군중 속에서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다。 시 민청 위원회를 비롯한 중구역 민청 위원회와 동구역 민청 위원회 일꾼들이 바로 이렇게 사업하였던 것이다。 금년도에 들어와 중구역 민청 일꾼들은 四개월 동안에 四○여차에 걸치는 번잡한 회의를 하노라고 초급 단체 지도에는 三五일간 밖에 나가지 않았으며 그들은 지도에 나갔다 하더라도 청년 군중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몇몇 열성자들을 대상하거나 회의 주석단에 앉았다가 일장 연설을 하고 돌아오는 폐단들이 적지 않았다。 얼마전 중구역 민청 책임 일꾼들이 서평양 자동차 사업소 민청 초급 단체를 바로 이렇게 지도하였기 때문에 일부 청년들이 로동 규률을 위반하며 국가 재산을 절취하였으나 그들의 나쁜 버릇을 시정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구역 민청 일꾼들 뿐만 아니라 시 민청 위원회의 일부 부장들과 지도원들에게도 적지 않게 있었든 것이다。 또한 평양 방직 끔비나트 민청 위원장 박 정순은 자기를 특출한 존재로 자처하고 청년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으며 사무실에만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일부 민청 초급 단체들에서는 맹적 정리 사업이 혼란에 빠져 초급 단체 열성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으며 또한 적지 않은 미 조직 청년들이 민청에 가맹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나 그는 이렇게 애타하는 청년들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오늘 조직 장성 사업은 심히 락후한 형편에 처해 있다。

다음으로 일부 민청 일꾼들은 작풍상 겸손성이 희박하며



청년들을 대함에 있어서 거만하고 까다로운 언사를 쓰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민청 일꾼들을 대함에 두려움을 주게 하며 그들과 거리를 멀게 하는 유해로운 작풍이다。 청년들은 접촉하기 좋고 활기 있고 명랑성 있는 그러한 청년 지도자를 요구한다。 그러나 일부 민청 일꾼들은 자기들의 출세와 공명을 위하여 청년 군중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모든 사업을 강압적 방법으로 청년들에게 내려 먹이여 성과를 거두려는 반 인민적 사업 작풍을 서슴치 않고 감행하고 있다。 중구역 민청 위원회 일꾼들이 평양시 복구 건설에 청년들을 동원하는 사업에서 바로 이러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이다。 얼마전에 동구역 민청 위원회는 七○여명의 열성자들을 소집해 놓고 『칠부리 민청 단체에서의 교양망 선전원들과의 사업 정형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는바 근 二○%에 해당한 교양망 선전원을 비준 배치하지 않고 있는 구역 민청 일꾼들의 잘못은 비판하지 않고 선전원들이 세미나르에 잘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과 교양망 진행 회수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역 민청 책임 일꾼들은 회의에 참가한 열성자들에게 욕설을 퍼 부었다。 그들은 또한 하부 초급 단체 지도에서 사업 수준이 어린 열성자들을 친절히 가르쳐 줄 대신에 심리동에 가서는 초급 단체 구성이 잘 못되였다 하여 열성자들을 욕설하였으며 그후 선교동 민청 단체 지도에 나가서도 그러하였다。 누가 이렇게 욕질 잘 하고 우울하고 뚝뚝하고 친절성이 없는 일꾼을 사랑할 것이며 아는체 하고 우쭐 대는 사람을 좋아 하겠는가? 또한 누가 이러한 청년 지도자 앞에 와서 자기의 흉금을 털어 놓고 이야기하고 방조와 충고를 받으려 하겠는가?

또한 일부 민청 일꾼들은 청년들의 문화적 휴식과 그들의 생활 조건의 향상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특히 청년들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돌보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얼마전 까지 대성 요업 공장 민청 일꾼들은 청년들을 증산 경쟁 운동에 내모는데만 급급하고 그들의 합숙에 비가 새며 온돌에 불이 들지 않아 청년들이 랭방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었다。

곡산 공장 민청 위원장으로 사업하던 장 서인이 병으로서 공장을 떠나간 후에 이 공장 민청 위원회 위원들과 구역 민청 일꾼들은 그를 전혀 관심하지 않았다。 이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며 젊은 사람들에 대한 랭담하고도 무정한 태도인가?

우리 평양시 민청 단체들은 청년 지도자 답지 못한 이러한 결함들을 더는 계속하지 않기 위하여 초보적이나마 다음과 같은 문제를 착안하고 사업한 결과 긍정적인 경험을 얻고 있다。

즉 지난날 까지 시 민청 위원회는 주로 구역 민청 단체들과 그 일꾼들을 대상하여 사업함으로써 시 민청 일꾼들이 청년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였다。 때문에 시 민청 위원회는 하부 실정을 정확히 료해하고 지도 사업을 청년 군중 속에 접근시키기 위하여 초급 단체를 직접 지도할 대책을 세웠다。 이러한 조직적 대책은 시 민청 일꾼들을 광범한 청년 군중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들의 요구와 애로를 해결해 줌에 있어서 좋은 방법으로 되였다。 금번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한 사업에서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였는바 지금 시 민청 책임 일꾼들을 비롯한 一七명의 일꾼들이 三○여개의 초급 민청 단체를 직접 담당하여 지도하고 있는데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음으로 시 민청은 시적으로 되는 각 계층 청년들과 때때로 담화 사업을 조직하고 있다。 얼마전 시 민청은 학생 청년들을 비롯하여 제대군인, 젊은 로력 혁신자 등 각 계층 청년들과 담화를 조직하였다。 이러한 담화를 통하여 시 민청은 각 계층 청년들의 각이한 생활 정형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였으며 그들의 요구에 적응한 산 지도를 줄 수 있었다。 시 민

청 위원회를 비롯한 각 구역 민청 위원회들에서는 청년들의 요구에 의하여 야유회、각종 체육 스포츠 사업을 광범히 조직하는 등 그들의 문화적 휴식에 일상적 배려를 돌리고 있다.

청년들의 신소와 제의를 정확 신속히 해결해 주는 것은 청년들과의 련계를 맺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현재 시 민청 산하 각 구역 민청 단체들이 접수한 청년들의 신소와 제의는 그의 대부분이 맹적 처리에 많이 관련되여 있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 시 민청은 각 구역 민청 단체들에서의 맹적 처리 사업을 신속 정확히 하도록 지도를 주고 있다. 또한 시 민청을 비롯한 구역 민청 단체들에서는『신소 제의 처리부』를 비치하고 청년들에게서 오는 사소한 신소와 제의라도 처리부에 접수하고 그의 처리 전말을 명확히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민청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당 중앙 정치 위원회 四월 七일 결정에는 청년들의 특성에 적응하게 그의 다양한 요구와 감정에 흡족하게 청년 사업을 능란하게 조직하며 동시에 이를 위하여 민청 지도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결정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평양시 민청 위원회는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결정과 당 정치 위원회 결정을 충실히 실천하며 민청 일군들이 진정한 인민적 사업 작풍을 소유하도록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 「규률상」



일부 소년단 대들에서는 소년들에게『규률상』이 강요되고 있다.

이런『규률상』이 강요되는 원족과 야유회가 소년단원들의 마음에 들겠는가?

이런 곳에 과연 환희와 기세와 랑만이 있겠는가?








### 우리들은 로력과 원자재를 이렇게 절약하고 있다

열마전 까지 우리 공장 로동 청년들 중에는 로력과 원자재를 애호 절약하지 않으며 그를 랑비하는 현상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이것은 공장 민청 위원회가 절약 투쟁을 빈 구호로만 웨치고 실제적인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였다. 공장 민청 위원회는 절약 투쟁에서 이러한 형식적인 사업 방법을 더는 계속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공장 민청 위원회는 우선 국가 재산을 애호 절약하도록 청년들을 교양하면서 그들에게 제품의 원가는 어떻게 구성되며 그를 저하시키려면 어떻게 절약하여야 되는가? 로력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등 기본적인 문제들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매개 로동 청년들은 증산 경쟁 운동에서 로력과 원자재를 절약할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한 경쟁 의무 조항으로 내세우게 하였다. 이러한 구체적 대책은 로동 청년들을 로력과 원자재 절약을 위한 투쟁에서 창발적 열성을 발휘하도록 고무시켰다.

분리기 복구 공사를 담당한 강 형점 민청 청년 브리가다원들은 종전까지 손으로 하던 수공업식 분리기 복구 작업을, 기중기 식으로 간단히 기계화하고 해체와 조립을 순서 있게 함으로써 三四공수의 로력을 절약하였다. 수공업식 작업 방법을 기계화하여 로력을 절약한 이러한 경험은 다른 브리가다원들을 본받게 하였다. 공장 민청 위원회는 이 모범적 사실을 공장 신문과 벽보『번개』에 게재하였으며 선동원들을 통하여 널리 소개하였다. 이를 본받은 전지 직장 조립 민청 청년 브리가다원들은 축전지 조립 작업을 기계화할 것을 발기하여 나섰다. 그들은 오랫 동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호상 협의하면서 축전지 조립 작업에서 극판 완성 및 케스 수선 작업을 기계화함으로써 一二명의 로력을 절약하고도 로동 생산 능률을 一六○%로 높이였다.

다음으로 공장 민청 위원회는 로력 절약을 위해서 젊은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더욱 높이며 특히 작업에서 쏘련의 선진 기술을 도입 적용하도록 지도 방조했다. 까스 땅크 직장 서태술 민청 청년 브리가다는 공장 민청 위원회의 지도 방조하에 쏘련의 선진 조립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종전에는 三、○○○평방메터의 까스 땅크 복구 공사를 三―四개월을 걸려 하든 것을 二개월간에 완수하여 적지 않은 로력을 절약하였다.

공장 민청 위원회는 이와 같이 로력 절약과 함께 원자재를 절약하며 유휴 자재를 회수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청년들이 앞장에 서도록 지도하였다. 그리하여 질소 공사 직장 민청원들은 외관기 용접 작업에서 한 기대당 四五키로그람의 연을 절약하고 있으며 땅에 떨어지는 시련다 유를 재생하여 하루에 四리터씩 절약하여 한달에 一만여원의 리득을 국가에 주고 있다.

전기 공사 직장 민청원들은 중요한 전기 기재인 엠빠야 크레스를 종전에는 소비 기준없이 분배하여 사용하든 방법을 시정하고 소비 기준을 설정하여 사용케 함으로써 三六명의 민청원들이 매달 七三메터의 크레스를 절약하고 있다.

전극 직장 민청원 김 언균은 석탄 절약에서 五대 一로 톱밥을 석탄과 혼합

하여 사용함으로써 보이라 一대당 년 二四〇톤의 석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창안하였다。 당 단체의 지도하에 공장 민청 위원회는 이 방법을 보이라 공들에게 보급시켰다。 이리하여 우리 공장에서는 년간 七〇七톤의 석탄을 절약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유휴 자재 회수 사업에서도 민청원들은 종업원들의 선두에 서서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전기 공사 직장 민청원들은 지난 날에만 하여도 각종 빠이프 二六五개、 전선 四三二메터、 애자 一八二개를 비롯하여 一六종에 달하는 각종 기자재를 회수하여 재생하였다。 또한 청년 전기 수리 직장 한 영은 민청 청년 브리가다원들은 지난 一개월 동안에 비스 二、六一六개를 비롯하여 보루도 二、一四九개、 쟈가네 二、九九五개、 곤다구도 五三一개를 포함하여 八、〇〇〇여개의 기자재를 회수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공장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로력을 절약하며 원자재를 절약하는 사업에서 창발적 열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공장의 적지 않은 부문에서는 크나 적으나 랑비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도 묵과하는 경향들이 있다。 때문에 공장 민청 위원회는 로력과 원자재 절약을 위한 투쟁을 일시적 깜빠니야 사업으로가 아니라 장구한 사업으로 즉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와 같은 경향들을 결정적으로 시정하기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

흥남 비료 공장 민청
위원장 김 홍 하

## 값 눅고 질 좋은 옷감을 더 많이 짜기 위하여

우리 공장은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난 기간 귀중한 원료인 『솜』이 엄중하게도 랑비되였으며、 제품의 원가는 높아졌으며、 그의 질은 보잘 것 없이 낮은 형편에 있었다。

공장 민청 위원회는 당 단체의 지도 밑에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원가를 낮추며 옷감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였다。

얼마전 공장 민청 위원회는 『값 눅고 질 좋은 옷감을 생산하자』라는 제목으로 민청원 五〇〇여명의 참가하에 열성자 회의를 가지였다。 열성자 회의가 있은 얼마 후 공장 민청 위원회는 청년 직장에서 일하는 전 금복 민청 청년 브리가다 사업과 직포에서 불합격품을 생산한 김 천균 민청 청년 브리가다 사업을 각각 검열하고 공장내 전체 민청 청년 브리가다원들의 참가하에 경험 교환회를 가지였다。 전 금복 민청 청년 브리가다에서는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부산물 대장을 브리가다에 비치하고 매일 작업 후 부산물들을 계량하고 평가하여 주는 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파사는 〇・三五%、 봉면은 二・六%로 저하시켰다。 또한 브리가다내 림・옥숙、 원 인하들은 트라베라를 공급 받지 않고 작업 전후 시간을 리용하여 링그에서 튀여나 땅 바닥에 떨어진 것을 줏어 쓰면서 아무 지장 없이 생산 계획을 보장하는 우수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김 천균 민청 청년 브리가다의 일부 기대공들은 위사 공다라(북에 끼운 위사 목관의 실을 완전히 짜지 않고 남기는 것)를 내면서 적지 않게 파사를 내고 있는 그릇된 점들이 있었다。 공장 민청 위원회는 이와 같이 경험 교환회에서 얻은 좋은 경험들을 일반화하며 나타난 결함들을 시정하여 주기 위하여 공장 신문 『옷감』에 게재하는 한편 선동원들을 통하여 청년들 속에 널리 선전하였다。

정방 리 봉녀 브리가다에서는 전 금복 민청 청년 브리가다의 모범을 본 받아 그를 실천에 옮기여 적지 않은 파사를 절약하였다。 특히 한 계은 민청 청년 브리가다에서의 파사를 적게 내기 위한 투쟁은 더욱 경험적이였다。 한 계은은 파사를 내는 중요한 원인이 기대



공들의 계사 방법에서 필요 이상 두세번 손 가락에 실을 감으면서 낡은 방법으로 일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을 퇴치하기 위하여 그는 직공장과 협의하여 김 옥녀를 비롯한 三명의 선진 로동자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하여 낡은 동작을 시정시키고 그 다음 기대공들에게 이들의 선진적인 작업 동작을 실지 뵈여 줌으로써 파사를 매일 五〇〇―八〇〇그람씩 덜 냈다。

다음으로 공장 민청 위원회는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하여 검사부내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역할을 높이였다。 종래에 검사원들의 사업은 주로 제품의 등급을 구분하는데만 관심하고 질이 낮은 제품이 생산되는 원인들을 해명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거의 없었다。 검사부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이러한 그릇된 사업 태도에 대하여 여러번 토의하고 시정하였다。 검사부내 민청원들은 때때로 로동자들이 드나드는 현장 복도에 제품 전람회를 조직하였다。 그후부터 불합격품이 한번 나 붙는 청년들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 보통、사실로 되였다。

제품의 질 제고와 원가 저하를 위한 투쟁에서 얻은 또 하나의 경험은 청년들 속에서 기술 기능의 향상과 선진적 작업 방법을 도입시키기 위한 사업이였다。 이 사업에서 공장 민청 위원회는 청년 직장 기사 김 봉호가 로력 혁신자 신 복순의 작업 방법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할 것을 경험적으로 조직하여 일정한 성과를 보았다。 八〇〇추공 신 복순의 작업 방법이 정방의 전체 기대공들에게 익숙하게 된다면 一년에 八六〇여만원의 리익을 국가에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그리하여 이 작업 방법의 보급은 지배인 명령으로 하달되여 해당 부문의 정방공들의 정상적인 기술 전습 교재로 되였다。 이 작업 방법의 보급에서 많은 민청원들이 성공하였는바 민청 청년 브리가다장 전 금복을 비롯하여 김 상숙、김 옥실 등은 四〇〇추공으로부터 六〇〇추공으로 발전하여 三개년 계획에서 맡겨진 자기 책임량을 지난 四월 중에 一〇〇% 이상 넘쳐 완수하였으며 신 복순은 三개년 계획을 一월 一五일 현재로 一〇〇%로 수행하였다。

우리 공장은 지난 해에 기계의 보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기계 자체의 결점으로 말미암아 품질을 제고하며 원가를 저하함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다。 더우기 일부 기대공들은 기계의 낡은 것을 핑계하여 제품의 질을 제고하는데 좀처럼 노력하지 않았다。 소면 부문 김 찬무 민청 청년 브리가다가 바로 이러하였다。 공장 민청 위원회는 김 찬무 민청 청년 브리가다를 집중적으로 지도 방조하였다。 그리하여 제품의 질을 제고하는데 결정적 지장을 주었든 오스찡그레바의 수리 제작상 결점을 교대별로 수리반을 편성하고 그의 질적 수리를 보장함으로써 빈번한 파손을 방지하였다。 또한 『평소제』의 질적 보장을 위하여 전문적인『평소제』반을 조직하였으며 마침 작업을 종전에는 보선에서 실시하든 것을 생산에 넘김으로써 불량을 개선하였다。

이와 같이 기계를 정상적으로 보수함으로써 소면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들의 량을 더욱 적게 하고 웨쁘의 질을 훨씬 개선하여 오늘에 와서는 생산의 량적 보장은 물론 품질이 좋은 옷감을 생산하게 되였다。

공장 민청 위원회가 조직하고 진행한 이상과 같은 몇까지 사업은 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질을 제고하며 원가를 저하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제품의 질적면을 보면 면직물에서 一등품은 一월에 비하여 四월에는 一九%나 제고되였으며 二등품은 一六% 장성되였고 三등품은 三五%、 불합격품은 一% 각각 저하되였다。 一등과 二등품 생산이 전체 직물 생산의 九六・二%를 차지하게 되였는데 이는 년초에 전국 방직 부문에 호소한 경쟁 의무에서 질 제고를 위한 목표를 一・二% 초과한 것으로 된다。

원가면에서 보면 一·四분기 간에 二·〇八% 저하하였으며 四월에는 二·一八% 저하하였다。 특히 실수률은 九八·五%로 보장되고 있다。

## 금년도 자급 비료 생산 계획을 八·一五 전으로 완수하련다

구성 방직 공장 민청
위원장 허 흥 수

우리 리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八·一五 해방 一〇주년 기념을 로동당 중앙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 결정 집행을 위한 투쟁으로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금년도 우리 리의 자급 비료 생산 계획 一三、七六〇톤을 八·一五 전으로 완수할 것을 결의하였다。

자급 비료 증산 경쟁 운동에 대한 봉산군내 민청원들의 호소에 호응한 우리들은 금년도 자급 비료 증산 목표를 국가 지표에 비하여 一五〇%로 초과 완수할 것을 황해북도 내 민청원들에게 호소하였다。

우리가 금년도 자급 비료 증산 경쟁의무 조항을 결정한 것은 지난 三월 八일이였다。

리내 민청원 수의 九六%가 농업 협동조합에 들어 있는데 비추어 우리는 자급 비료 증산 민청 청년 작업대를 八개 조직하였다。 우리 리내 자급 비료 증산 목표 七、八一二톤 중 五、七四六톤이 춘기 파종 전에 생산하여야 할 과업이 나섰다。 그중 매개 협동 조합원들의 가정에서와 역우、돼지、인분 수집에서 생산될 자급 비료를 제외한 四、六九三톤을 소토로써 민청원들이 五월 초까지 완수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물론 이 목표는 실지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더우기 협동 조합의 고정 작업반에서 떨어져 소토 생산만을 주력할 것을 제기하였을 때 다른 협동 조합원들로부터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급 비료 생산 민청 청년 작업대가 활동하면 조합과 농사 일에 리득을 가져 올 좋은 점들과 계획을 능히 완수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을 조합원들에게 해설 설복하였다。

그리하여 三월 二〇일부터 본격적인 소토 생산에 들어섰다。

우리가 초기 진행한 소토 생산 방법은 논、밭 머리에서 모닥불을 피워서 소토 생산을 시작하였다。 로력 조직은 三인조로써 한명은 흙을 운반해 오고 한명은 나무를 해 오고 나머지 한명은 불을 피우게 하였다。 우리는 첫 五일간의 총화를 지여 봤다。 민청원 연 三〇〇여명이 동원되여 생산한 소토는 겨우 五〇톤에 불과하였다。 이 총화에서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목표한 자급 비료 생산량을 기일내로 완수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리 민청 위원회는 광범한 민청원들과 또 이때까지 소토 생산을 계속해 온 로인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종전에 하던 三인조의 로력 조직을 폐지하고 작업반 단위로서 소토 생산 공정을 집단 로력의 방법으로 하였다。 례를 들어 흙을 날라올 때는 전체 작업반원이 동원되여 이 작업을 끝낸 다음 다른 작업으로 넘어간다。 특히 이러한 집단 로력의 조직에 있어서 조합의 로력 기준량에 의하여 작업 기준량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준량이 없이는 집단 로력에서 누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적게 하였는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소토 생산 방법에서 모닥불을 피워 흙을 굽는것 보다 더 많은 흙을 잘 구을 수 있는 『포』구이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포』구이 방법은 우선 논、밭 머리의 언덕진 곳에 깊이 二메터、직경 五—六메터의 큰 구뎅이를 판다。 이 구뎅이의 맨 밑바닥에 떼짱을 二〇센치 정도로 깔고 그 우에 장작을 편다。 이런 식으로 二—三중의 떼짱과 장작을 쌓아 올린 다음 맨 꼭대기를 연기가 새지 않도록 흙을 덮고 연통을 두개 내지 三개를 만들었다。 이 방법은 마을에서 질 그릇을 굽는 방법에서 생각해 낸 것이다。 우리가 이 소토



생산 방법을 『포』구이라 한 것은 구뎅이를 크게 파고 또 흙과 장작을 다 채운 완성된 것을 볼때 마치 고사포 진지에 포를 장치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

새로운 작업 조직과 소토 생산 방법이 성공될 때까지 우리들은 적지 않은 불안에 가슴을 죄였었다。 새 방법을 적용하고 불을 질인 때로부터 一〇여 시간이 넘어 우리는 흙데미를 헤쳤다。 흙은 검고 붉게 잘 구어졌다。 이런 방법으로 一회 소토 생산은 무려 一五—一八톤까지 생산할 수 있었다。 새 방법의 성공은 우리들에게 목표를 훌륭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게 하였다。

민청원들의 소토 생산 열의는 매우 높아졌다。 민청원 김 선녀는 매일 자기 책임량을 一三〇% 이상 초과 완수하고 한달 기간에 로력 점수 三九점을 얻었다。

四월 二〇일 리 민청 위원회는 자급 비료 생산에 대한 한달간의 총화를 가지였다。 결과 민청 청년 작업대가 생산한 소토는 六、四九七톤이였는바 이는 목표의 一二五%이다。

우리는 지금 지난 봄에 민청 청년 작업대를 조직하여 거둔 성과를 계속 살려 六월 말부터 풀베기 작업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풀베기 작업으로써 금년도 우리 리에 맡겨진 자급 비료 생산 계획을 초과하여 一三、七六〇톤(이것을 완수하면 국가 지표의 一七五%가 된다)을 八·一五 전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황해북도 린산군 지택리 민청
위원장 변 승 조

## 『너의 청춘의 동행자』를 읽고

나는 잡지 『청년 생활』 三호에서 웨·차 친의 『너의 청춘의 동행자』(공청 사업의 랑만성에 관한 수기)를 읽었다。

이 수기는 오늘 각급 민청 단체들과 지도 일꾼들이 민청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결정을 실천하는 투쟁에서 좋은 방조 자료로 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 수기를 읽는 과정에서 제일 뼈저리게 느낀 것은 지도자가 사업을 평가하는 세가지 질문 즉 『무엇을?』『어떻게?』『무엇때문에?』이다。 나는 이 질문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비추어 보았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외형상으로 쉽게 대답할 수 있다。 총회、위원회、청년의 밤、작품 감상회、기술 경기회、담화、경험 교환회 등 수다한 것들을 한다。 그런데 이모든 것들이 어떻게 성과 있게 진행되였는가에 대한 두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수 경우에 랑심을 찌르게 한다。 세번째 질문 즉、『무엇 때문에?』에 대한 대답은 제일 힘들다。

사실에 있어서 첫번째 질문에 대답한 것과 같은 그러한 여러가지 일을 하나 이것은 목적 없이 다만 사업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진행하는데 불과하였다。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나의 사업에서 항상 『무엇 때문에?』라는 질문에 충분한 대답을 주기 위하여 사업을 목적이 있고 내용 있고 흥미 있게 조직 진행하여 민청 사업에서 활기와 랑만이 넘쳐 흐르도록 노력하려 한다。

조선 인민군 우편함 八五〇三호(장백산)
민청 초급 단체 위원장 **박 재신**

지상토론

# 낡은 사상 잔재란 무엇이며 그것은 우리 혁명에 어떤 해독을 주는가?

편집부는 지난 六호에서 『낡은 사상 잔재란 무엇이며 그것은 우리 혁명에 어떤 해독을 주는가?』라는 토론 문제를 내 놓으면서 독자들이 이에 광범히 참가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다。

편집부는 이번 호부터 지상 토론을 시작하면서 독자들이 이에 더 많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참가해 주기를 바란다。

지상에 발표된 토론 내용에 대하여서도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희망한다。

편집부는 토론을 앞으로 몇 개월 계속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 랑비를 반대하는 투쟁은 사상 투쟁이다

우리들은 로동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을 학습하면서 우리 초급 단체 내 민청원들의 사업을 깊이 반성하며 검토하고 있다。

우리들의 생활에는 여러 방면으로 낡은 사상 잔재가 표현되고 있다。

우리들의 생활에서 가장 눈에 띄우게 표현되고 있는 낡은 사상 잔재는 국가 재산에 대한 소홀한 태도이다。

우리 건설 직장에는 귀중한 국가 자재를 많이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벽돌은 매일 몇만매씩 사용하고 있다。 지난 기간 우리 민청원들 중에는 이 귀중한 국가 자재를 되는대로 취급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민청원 강 성덕、김 광력、라 종순은 벽돌 하차 작업을 할 때 『운반 회수를 빨리 채우자』고 하면서 벽돌을 남의 것 마냥 허투로 다루었다。 결과로 어떤 날에는 자동차 하차에서만도 三〇%의 벽돌을 파손하였다。

그 결과 지난 一월부터 四월 간에만 해도 우리 작업장에서는 근 一五만매의 벽돌을 파손하였다。

만약 이 벽돌로 집을 짓는다면 四〇〇평방 메터의 주택을 한채 지을 수 있으며 이 벽돌을 운반하자면 七五대의 화물 자동차가 요구된다。 이것은 벽돌에 대한 몇 사람의 소홀한 태도가 국가에 얼마나 큰 손해를 주는가를 말하여 준다。

그런데 우리 초급 단체에서는 이때까지 이러한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단순히 작업에서 「더 주의를」돌릴 것을 충고하는데 그쳤다。 때문에 강 성덕 동무를 비롯한 일부 동무들은 말로서는 주의를 돌린다고 하면서 벽돌 파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면 「불래 깨여지기 생겨 먹은 것을 우린들 어떻게 하겠는가?」고 동지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우리의 잘 못은 어데 있었는가? 그것은 국가 재산에 대한 이러한 소홀한 태도를 발생시킨 사상적 근원을 밝히고 랑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한 사상 투쟁으로 진행하지 않은 데 있었다。 국가 재산에 대한 소홀한 태도와 랑비하는 것은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이며 그것은 우리 직장의 실례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건설 사업에 큰 손해를 준다。

만약에 국가 재산을 랑비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행동하였겠는가? 그들은 이렇게 되는대로 벽돌을 다루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들은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을 학습하면서 랑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한 사상 투쟁으로 전개하여야만 랑비 현상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 초급 단체에서는 우선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을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 철저히 침투시켜 국가 재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는 정신으로 그들을 교양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건설성 제一三트레스트
민청 제七분 초급 단체
위원장 김 규 석

## 태만과 자만

우리 공장의 제二 직포 직장 부 직공장 김 기철 동무가 담당한 직포 기대는 하루에 평균 一〇대가 멎는일이 종종 있다。 이런데로부터 매일 책임량의 五九%에 불과한 천 밖에 짜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직포공들은 때없이 멎는 기계를 안타가히 만지작 거리다간 참다 못해 김 기철 동무에게 기계를 멎지 않게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그는 이 옳은 요구를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가 일부러 기계를 멎게 했단 말이요?』라고 욕설을 퍼붓는다。 이러고 보니 우리 초급 단체 뿐만 아니라 전 공장 동무들의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그

는 늘 하는말 버릇으로 『흥! 너의들이 안만 애써봐도 내가 기계를 고쳐야 된단 말야…』하고 자기의 기능을 코에 걸고 일을 태공한다.

기대를 담당한 부 직공장의 임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분 초를 다투어 가며 한메터의 천이라도 더 짜려 애쓰는 직포공들의 기대들을 언제나 세심하게 돌보아 주는데 있다. 그러나 자그마치 二〇대의 기대를 맡아 보는 김 기철 동무는 때로는 일할 기분이 나지 않는다. 하여 일을 되는대로 해 치우다가는 오작품을 내게 하고 기계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며 결근과 지각을 한다. 지난 六월에만도 三일간의 무단 결근을 하였다.

그러면 김 기철 동무가 이와 같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도 그를 수치와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 태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김 기철 동무가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로동은 착취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사회를 위한 것이며 또한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도 기술자도 그의 로동은 다 영예로운 것이라는 것과 기술자들이 가져야 할 품성을 알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김 기철 동무와 같은 민청원이 다른 공장에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공장의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청년 생활』지상 토론에 참가하면서 독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좋은 의견들을 발표해 줄 것을 바란다.

평방 꼼비나트 직포 공장 민청
제二 직포 三분 초급 단체
부 위원장 박 승 찬

## 청년들의 비 문화적 행동—이것은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이다

편집부 앞

『청년 생활』지상에서 공개 토론을 전개한다는 기사를 읽고 인민 교원의 한 사람으로써 토론에 참가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민주 학원은 자본주의 사회의 학교와는 그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판이하며 따라서 학생들이 일상 생활과 행동도 판이합니다.

우리 민주 학원의 학생들은 자기들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인민 민주주의 사회의 제반 질서를 준수하며 문화적 행동을 취하는 고상한 도덕적 품성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학생들과 구별됩니다.

학생 규칙 제一五조는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비방적이거나 란포하고 야비한 행동을 하지말 것이며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언어 행동에 있어서 례절 있고 겸손하며 사회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킬 것을 학생들의 도덕적 규범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고상한 품성을 갖추지 못한 일부 학생들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지난 六월 三일 나는 함북 농포역에서 경원으로 가는 렬차를 탄 일이 있습니다. 렬차가 정차하자 려객들은 질서 정연하게 승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학생 五、六명이 늙은이들과 부인들을 밀치고 차칸으로 뛰여올라 탔습니다.

차내에서도 마치 자기들 외에는 사람이 없다는 듯이 높은 소리로 떠들던 학생들은 렬차가 정거장에 이르르자 또다시 앞선 손님들을 밀치고 렬차가 정거하기도 전에 마구 렬차에서 뛰여나렸습니다.

그들은 역원들의 눈을 피하여 역구내 울타리를 뛰여 넘어 다라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승차권도 사지 않았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감행한 행동을 『자랑』하며 『만족』하는 것이였습니다.

경원 고급 중학교내 일부 학생들의 군중 도덕과 학생 규률을 위반하는 사실은 경원 영화관에서도 자주 찾아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중 학생 시절에는 이런 행동이 흔히 있을 수 있으며 또는 학생들의 일종의 「모험성」「용감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는데 있어서 그런 「용감성」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견해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비 규률적이며 비 문화적인 행동은 낡은 자본주의 사상의 표현이며 인민 민주주의 제도 하의 청년들에게는 인연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이 란폭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을 그의 성격상 특징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데까지나 개인 리기주의적 자본주의 사상 잔재의 표현으로 또한 교양이 잘 되지 않은 결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엄격하게 제정된 사회 질서를 위반하며 집단 생활의 고상한 규률 속에서 벗어나 비 문화적 행동을 공공연히 감행하는 그릇된 행동과는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나는 서슴 없이 결론합니다. 집단 생활에서 규률을 위반하며 비 문화적인 행동을 감행한다는 것은 개인 리기주의적 부르죠아 도덕 관념에서 오는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과 특히 학생 집단인 민청 단체가 이를 반대하며 새로운 인민적 도덕 품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책임적으로 사업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학교와 가정과 민청이 이 투쟁에서 긴밀한 련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경원군 용문 인민 학교
교원 채 수 열

『인간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얼굴도、의복도、마음도、사상도—다 아름다워야 한다』

(아·뻬·체호브)

민청생활에 대한 질의 응답

## 민청 청년 돌격대를 어떻게 조직하는가?

민청 청년 돌격대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대중의 선두에서 수행하는 민청원들과 청년들에게 주는 영예로운 칭호이다。

민청 청년 돌격대는 탄광과 광산의 지하 작업 및 림업 부문、건설 직장의 전반적 발전에서 기본 열쇠로 되며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에 조직한다。민청 청년 돌격대는 그 형태에 있어서 민청 청년 브리가다와 원칙적으로 다른 점이 없으며 다만 그 활동에서 가장 곤난하고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돌격대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차이가 있다。때문에 『방직』『기계 부문』등 정상적인 생산 행정이나 기업소에는 민청 청년 돌격대 조직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그리고 간접 부문에서 일하는 청년들로 『돌격대』를 조직하여 어렵고 힘든 직접 부문의 일터에 파견할 수도 있다。

민청 청년 돌격대의 조직 방법은 첫째로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자원적 요구에 의하여 조직한다。민청 단체들은 돌격대를 조직하기 전에 청년들 속에 민청 청년 돌격대 운동의 의의와 내용을 잘 해석 선전하며 항상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문의 앞장에서 그 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둘째로 민청 청년 돌격대를 조직할 때에는 사전에 당 단체의 지도 하에 행정 및 직업 동맹 단체와의 구체적 토의를 걸쳐 돌격대 조직을 자원하는 청년들의 사상적 준비 정도、로력적 열성 정도와 기술 기능 정도 등을 신중히 타산하여 브리가다 총회 또는 민청 초급 단체 총회에서 구체적 목표를 결의한후 민청 청년 돌격대 운동으로 넘어 갈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민청 청년 돌격대의 임무는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에서 기본 고리로 되며 난관과 애로가 중첩된 부문에서 대중의 선두에서 국가 과제를 질적으로 량적으로 초과 달성함으로써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서 모범적이며 돌격대적 역할을 놀게 하는 데 있다。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로 민청 청년 돌격대는 힘들고 어려운 부문에서 로동자들의 선두에 서며、증산 경쟁 운동에서 로동 조직을 합리화하며、모든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극복 타개하고 각종 창의 고안 운동을 전개하면서 로동 생산성을 계통적으로 향상시켜 경쟁의 승리자로 되며 새 기준량의 창조를 위한 투쟁의 초소에 나서며 새로운 개척자로 등장하여야 한다。

둘째로 민청 청년 돌격대는 선진 기술과 선진적 작업 방법을 부단히 습득하여 생산 및 건설에 광범히 도입함에 선구자로 되여야 한다。

세째로 민청 청년 돌격대는 축적과 원가 저하를 위한 투쟁의 초소에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내부 원천을 적극 조직 동원하며 자재 원료들을 애호 절약하며 탐오、랑비、절취 현상들과 강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며 원가를 저하시켜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기 위하여 로력하여야 한다。

네째로 민청 청년 돌격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문에서 개척자 및 돌격대가 되기 위하여 돌격 대원들을 사회주의적 의식으로 무장시키며 체육 문화 사업을 강화하며 비판과 자기 비판을 사업 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면서 작업 비판회와 작업 총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며 자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보다 높이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초급 단체(분 초급 단체) 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초급 단체 위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개 위원들에게 사업을 옳게 분공하고 그들의 위임 실행에서 애로를 해



결해 주고 방조를 주며 제때에 검열 지도하고 총화하여야 한다。그러나 위원들에게 사업을 분공한다 하여 기계적으로 『교양 위원』『조직 위원』『체육 위원』등 고정적인 이름을 부쳐 놓고 그들에게 해당한 과업만 분공 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이는 위원들의 역할을 고정 불변하게 만들며 초급 단체 위원회의 집체성을 약화시킨다。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초급 단체 위원들에게 사업을 분공주는 것이 좋은가? 그것은 총회와 위원회들에서 위원들의 정치 실무적 준비 정도와 능력을 잘 고려하고 초급 단체의 구체적 실정에 근거하여 매 시기 마다 제기되는 과업들을 수시로 적당하게 분공하는 것이 좋다。초급 민청 위원회 위원장들은 위원들에게 이렇게 사업을 분공한 후 그의 위임 실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애로를 해결해 주며、사업 방법을 친절히 가르쳐 주며、그를 제때에 지도 검열하고 총화함으로써 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위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급 단체의 집체적 협의제를 강화하여야 한다。응당 위원회를 소집하여 집체적으로 토의해야 할 문제들 까지 위원장이 단독적으로 사업을 처리해서는 안되며 위원회에서의 위원들의 창발적 의견을 백방으로 지지 발전시키며 민주주의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시、군 민청 위원회와 초급 민청 위원회들에서는 민청 열성자들인 초급 단체 위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인 주의를 돌려야 한다。초급 단체 위원들을 위한 실무 강습、경험 교환、견학 등 다양한 사업을 지방 실정에 맞게 때때로 조직하여 그들의 정치 실무적 수준을 높여 줌으로써、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초급 단체 위원들에게 여러가지 과중한 책임을 겸임시켜 그들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우리들의 사상생활

### 아름다운 사랑

많은 청년들이 사랑、결혼、가정에 대한 옳은 태도란 어떤 것인가를 질문한다。이에 대하여 훌륭한 대답을 주는 아름다운 사실이 있다。

강원도 문천군 신성리에는 남녀 청년들 특히 처녀들을 감동케 하는 화목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있다。

그들이 서로 알게 된 것은 김 명환이 부상을 당하여 김금녀의 마을에서 치료를 받던 시기부터였다。김 금녀는 영예 군인들의 생활에서 큰 자극을 받았다。비록 몸은 부자유스러웠지만 영예 군인들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들의 처지를 높은 긍지감으로 여겼으며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재생활의 개척을 위하여 유쾌하며 락천적인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이런 가슴 벅찬 모습을 볼 때 김 금녀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결심하였다。

『저 사람들은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쳐 싸운 용감한 투사들이다。영예 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도와 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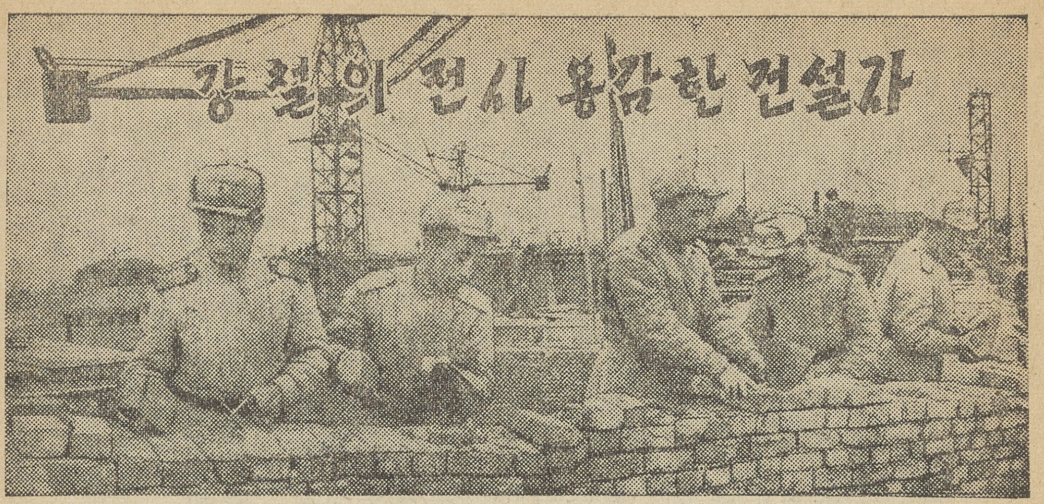
김 금녀는 몸이 부자유 스러운 영예 군인들을 도와 때로는 빨래도 해주고 바느질도 해 주는 등 성심 성의를 다했다。이런 나날을 지내 오면서 그는 김 명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였다。영예 군인 김 명환에게 대한 금녀의 사랑은 순결한 것이였다。그들의 사랑 속에는 위선도 허영도 일시적인 흥분도 없었다。조국의 건설과 번영을 위한 새 생활에로의 공통한 지향과 서로의 동지적인 신뢰와 존경이 그들의 사랑을 맺아 주었다。

그들은 정전 직후에 결혼하였다。

김 금녀는 결혼후 남편을 도와 행복하고 단락한 가정을 꾸며 왔다。그들은 마을 협동 조합에 가입하였다。김 금녀는 경작반에서 남편 김 명환은 부업반에서 일 잘 하는 부부로 이름났다。

그들의 살림은 실로 아름답고 재미 있게 꾸며져 가고 있다。마을에 영화 상연이나 써클 공연이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몸이 부자유스러운 남편을 부축하고 의좋게 구경에 나오는 젊은 부부의 모습을 언제나 보게 된다。

이 마을 사람들과 청년 남녀들은 이 젊은 부부의 생활에서 사랑、결혼、가정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




리 만 규

력사적인 八·一五 해방 一〇주년이 가까워 온다. 보다 큰 로력적 성과로서 민족적 명절을 맞으려는 평양시 건설자들의 줄기찬 로력에 의하여 민주 수도 평양시의 면모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달라간다.

최근 쓰딸린 대통로를 처음 지나는 사람은 그 누나가 거연히 솟은 국제 호텔, 로동자 아빠트, 내각 청사… 그중에서도 바야흐로 준공되여 가는 내각 제二호 청사를 보고 경탄할 것이다.

중앙 은행 청사 곁에 총 건평 四만 八천 六〇六 평방 메터의 넓이와 二八〇메터의 길이와 二八메터의 높이와 근 三키로메터의 복도 길이를 가진 七층 내각 제二호 청사는 인민군 젊은 군무자들의 창조적 로력에 의하여 민족적 형식을 갖춘 아름답고 현대식 고층 건물로 완공되여 가고 있다.

언제 우리 손으로 이렇게 현대식 설비를 갖춘 다층 건물을 지여 본 일이 있었든가! 아마 우리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꿈에도 상상치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기술자들이 얼마나 훌륭한 기계를 가지고 이 건물을 세웠는가!

지금 쓰딸린 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아직 대동강 얼음도 풀리지 않았고 활활 타는 장작불이 그리웁던 작년 二월 九일! 이 황망한 폐허 우에 나타난 사람들은 그 어떤 훌륭한 건축가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닌 조국의 방선에서 돌아온 평범한 전사들이였다는 것을.

그리고 무슨 굴착기 나 보르도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온 곡괭이와 삽과 거칠은 함석 지게가 기구의 전부였다는 것을.

그러나 어느 동무 하나 이런 불비한 조건에 대하여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다.

『지혜를 모으면 궁리가 나는 법이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면 조국은 우리를 여기에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뢰정으로 적 순양함을 까부시고 보총으로 적기를 쏴 떨구며 육박으로 적 땅크를 멈추게 하던 영예로운 김일성 원수의 전사들이 아닌가!』

그들은 이런 비상한 결의를 다지며 폐허를 파 헤치고 첫 기초 공사에 나섰다. 이로써 그들이 말하는 「공격전」「육박전」은 시작되였고 굴착 작업은 착착 진행되여 갔다.

현장 곳곳에는 도구를 보장하기 위한 대장깐이 생기고 열마 후에는 주물 공장도 설치되였다.

그들은 휴식 시간에도 파철을 수집하여 도구를 만들었으며 모든 작업을 기계화하였다. 즉 등짐으로 흙을 운반하던 수공업적 작업 방법을 레루를 깔



고 밀차로 흙을 운반 함으로써 일은 헐해 지고 작업 능률은 훨씬 높아졌다.

그러나 二八메터까지 파야할 굴착 공사는 三메터도 파 들어 가기전에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닥치고 말았다.

전쟁 기간에 미국 놈들이 파괴한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터져 나와 원통 공사장을 늪으로 만들었다.

그렇다고해서 작업을 중지할 수는 없었다. 『우리에게는 극복 못할 난관이 없다. 붉은 심장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전투 승리를 보장한 전우들의 정신으로 용감성과 대담성을 발휘하여 저 수도관을 막자! 모든 재능과 지혜를 다 바쳐 자손 만대 기리 전해질 이 고층 건물을 더 튼튼하게 더 화려하게 세우자!』

폭격에 파묻혔던 원한 많은 부녀자들의 검은 머리카락과 채 신지 못하고 죽은 어린이들의 고무 신짝들이 뒤져나와 물우에 넘실 거렸다. 소대 선동원들은 이 가슴 저린 참상을 가지고 선전 선동 사업을 진행하였다. 매개 전사들의 심장은 원쑤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타 올랐다. 차디찬 물은 젊은 전사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앞을 다투어 빤쯔를 입은채 물 속에 뛰여 들어 그야말로 「육박전」을 전개하였다.

대장깐에서 만든 "용드레" "뽐프"를 비롯하여 김 학주 동무가 창안한 "가구리"등 굴착 공사에 필요한 도구들은 죄다 공사장에 동원되였다.

이리하여 터진 수도관은 막혀지고 굴착 공사는 성과 있게 진척되였다. 첫 난관은 이렇게 극복되였다.

그러나 기초 공사 완료 기간이 촉박하였다. 그들은 민청 회의를 열고 야간 작업을 할 것을 결의하여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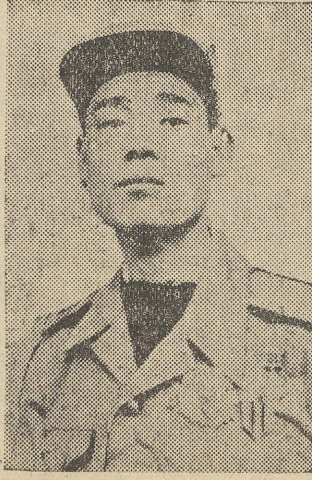
그 이튿날부터 현장에는 전기가 가설되였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치렬한 브리가다와 브리가다 간, 개인과 개인간의 경쟁이 전개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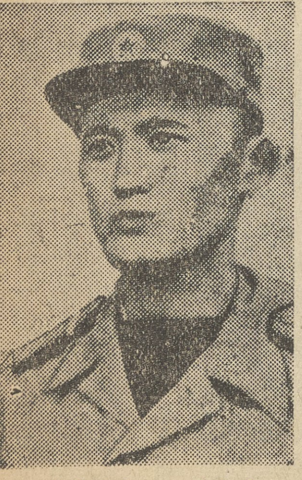
이리하여 백여만 립방메터의 굴토 작업을 끝내고 드디여 一八四개의 아름드리 기둥을 지하의 암반 우에 세우게 되였다.

기초 공사가 끝나자마자 더 아귀찬 난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벽돌은 누가 쌓고 벽은 누가 바르며 문은 누가 짜겠는가! 여기에 소용되는 기구는 또 어데서 가져오고…』 혼자 남은 고지에서 수십배의 원쑤를 단숨에 물리치던 강철의 용사도, 적의 간담을 서늘케 하던 습격 조장도, 저격수도, 포수도, 바다의 용사도 있었지만 능숙한 벽돌공, 미장공, 목공은 없었다. 다만 있다는 것이 단층 집 벽돌을 쌓아 본 약간의 경험을 가진 벽돌공 김 학주 동무 외 미장공 一명, 목공 一명 밖에 없었다.

현장 마다에서는 궐기 대회가 열리였


로력 영웅
김 학주 동무


로력 영웅
리 동필 동무


국기훈장제一급수훈자
김 원렬 동무

다。『…전투를 하면서 전투 기술을 배우고 배우던 것처럼 일하며 기술을 배우고 배우며 일하자!』라는 결의가 채택되였다。

그러나 다만 결의 만으로서는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부대 지휘부는 부대내 기술 일군들을 동원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단기 기술 강습을 조직하였다。허나 방대한 공사에 수요되는 벽돌공、미장공、목공의 수요를 도저히 충족시킬 수는 없었다。

작업 부문별로 되는 기술 전습과 개별 담당 제는 좋은 결과를 가져 왔다。

기술 전습은 벽돌공 김 학주、미장공 백 용선、목공 한 봉국 동무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였다。결과 공사에 착수하여 불과 二개월도 못되는 기간에 一명 밖에 없었던 벽돌공이 수백 명으로 장성하였으며 미장공 목공의 수도 날로 뿔어 갔다。기능공들 속에서는 새로운 발기들이 속출하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로력 혁신자들이 배출되였다。

대공 전투에서 적기 一대를 추락시키고 문산 계선 전투에서 적 四四명을 살상한 벽돌공 김 학주 동무는 개별적 기술 전습을 통하여 二개월 동안에 四八명의 유능한 벽돌공을 양성하였으며 선진 작업 방법 도입의 적극적 제창자로 나섰다。

그는 맨 모래에 물을 혼합하여 벽돌을 놓는 방법、벽돌 쥐는 법、깨는 법、직각모、정각모、이음골、문세리 쌓기 등 쉬운 부문으로부터 점차 어려운 부문에로 자체의 기능 기술 수준을 발전시켰다。그는 쏘련의 선진 경험과 특히는 로력 영웅 최 성수 동무의 선진적 벽돌 축조법을 창조적으로 연구 도입하여 처음에는 三인조로부터 二인조로、二인조로부터 五인조로 벽돌 축조 방법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학주 동무는 국가 기준량을 일 평균 二배—三배로、자체 계획량은 三二〇%로 초과 완수하는 새로운 기준량을 창조하였는바 지난 二월 一일에는 一八、五四六매까지 쌓는 기록적 성과를 올리였다。

불요 불굴의 혁명적 강인성과 무궁한 창조적 로력은 공사장 이르는 곳 마다에서 기적을 낳았다。

『더 빠르고 아름답고 튼튼하고 값싸게 건설하자!』라는 당의 호소에 궐기한 김 정길 동무 소속 기계화 부대 최택룡 동무는 수집한 유휴 자재를 가지고 고심 연구 끝에 한번에 五〇톤의 토량을 운반할 수 있는 六〇마력의 전차형 견인차를 창안 제작하였다。

뒤이어 그는 一、〇〇〇키로의 중량까지를 권양할 수 있으며 이로써 二五〇명의 로력을 절약할 수 있는 소형 기중기를 비롯하여 수십종의 기계를 창안 제작하였다。그가 一〇개월간 고심하여 창안한 각종 기계들은 현장 작업에서 六、八〇〇여명의 로력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창의 창안 운동은 목공 부문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였다。

특히 최근에 현 도현 소속 부대 목공 한 봉국 동무가 창안한 『자동식 홈파기 기계』는 종래의 것에 비하여 八배의 능률을 나타내며 하루 二一명의 로력을 절약하고도 새로운 형으로 홈파기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목공 김 원렬 동무는 내각 二호 청사 휘틀 조립 공사로부터 선진 작업 방법을 광범히 도입 적용한 결과 작업 능률을 매일 三五〇%로 초과 완수하여 연 九四七명의 로력을 절약하였다。

젊은 군인들은 이렇게 짧은 기간내에 국가 기준량을 넘쳐 실행할 수 있는 유능한 목공으로 되였던 것이다。

불가능을 모르는 인민군 전사들은 미장 작업에서도 높은 로력적 성과를 뵈여 주었다。즉 백 용선 동무를 조장으로 하는 四인조에서 국가 기준량을 四〇〇%로 초과 완수한 것이 그의 대표적 실례의 하나로 된다。백 용선 동무는 피로를 무릅쓰고 밤을 새워 가면서



선진 미장 기술 도입에 노력하였다。

그는 미장공인 송 덕훈 로력 영웅을 찾아가서 그의 선진 미장 경험을 배웠으며 배운 기술을 미장공들에게 일반화함으로써 二〇〇여명의 미장공을 육성하였다。

마석공이란 이름조차 모르던 동무들이 마치 대패로 나무를 깎듯이 정으로 돌을 깎는 등 실로 강철의 용사들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었다。

이렇듯 고상한 애국적 헌신성에서 울어나온 거대한 창발성들은 공사의 진척에 결정적 역할을 놀았다。

전물 층계의 벽돌 축조 기한은 축박하여 왔다。바로 이때에 쏘련으로부터 탑승 기중기를 보내 왔다。

이와 함께 여러 인민 민주주의 국가 인민들의 사심없는 국제적 원조는 그들의 로력 의욕을 더욱 고무하여 주었다。

그러나 겨울이 닥쳐 오면서 작업에서 애로와 난관은 더 증대되였다。강철로 단련된 용감한 건설자들이였지만 떵떵 얼어 붙는 겨울에 四—五층 꼭대기에서 벽돌을 쌓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춥다고 전투를 중지한 적이 없듯이 건설 사업도 역시 중지하지 않았다。그들은 보온 장치를 창안하여 겨울에도 작업을 계속하였다。

봄철을 맞으면서 공사는 한결 활기를 띠였다。고층 건물의 안팎 면모는 시간마다 달라져 갔다。

지난 四월 四일에는 七층 꼭대기에 마지막 벽돌장이 놓였다。이로써 총 一천 四백여만 매의 벽돌 축조 작업이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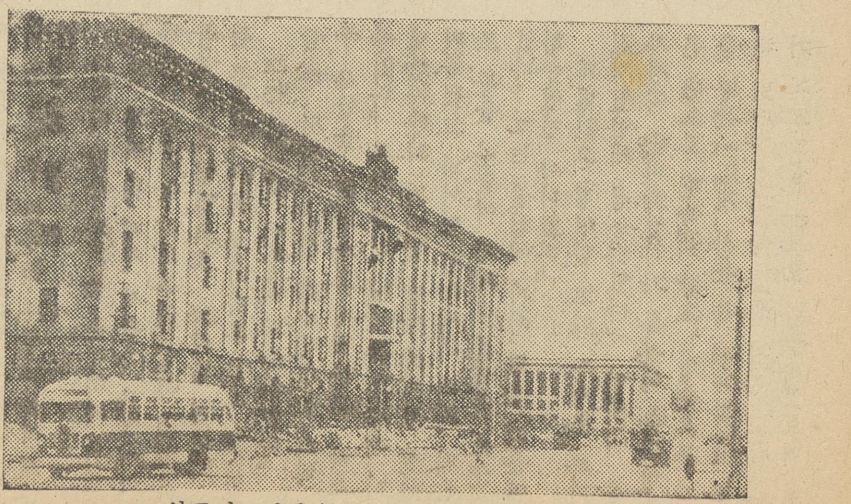
지난 三월 二九일 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 위원회는 그들의 고귀한 애국적 헌신성을 찬양하여 벽돌공 김 학주 리 동필과 기계를 수리 창안한 최 택룡 동무들에게 공화국 로력 영웅 칭호를 수여하였으며 목공 김 원렬 동무에게는 국기 훈장 제一급을 수여하였다。

이 밖에 一만 一천톤의 쎄멘트와 二만 립방메터의 모래、一만 二천 립방메터의 자갈、八백톤의 철근、七천 七八一립방메터에 달하는 목재가 든 이 방대한 공사에서는 수많은 로력 혁신자들과 기능공들이 배출되였다。

一년 동안에 벽돌공은 三명으로부터 천여명으로、미장공은 三명으로부터 二백여명으로、一명도 없던 마석공은 二백여명으로 새로 육성되였다。

오는 八·一五 해방 一〇주년을 앞두고 완공될 내각 제二호 청사 건축 공사는 최후 단계에 들어 서고 있다。

빨대목이 걸어진 창문에는 유리가 끼워지고 거미 줄 같이 느린 통신선은 마지막 결속에 이르렀으며 리 성화 소좌가 책임진 미술 제작 품도 최종적인 정리 계단에 들어 섰다。머지 않아 그들은 七층 옥상에 五각별 푸른 깃발을 날리며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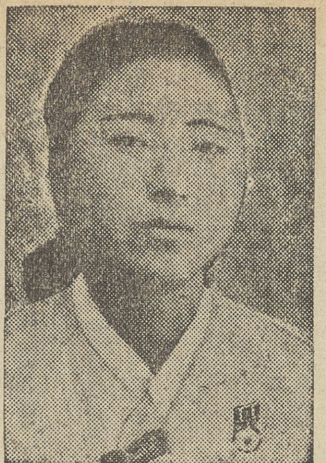


완공에 가까운 내각 제二호 청사

# 로력은 영웅을 창조한다

— 로력 영웅 염 정자 동무 —

본사 기자 리 용 철



로력 영웅 염정자 동무

동작이 번개 같이 빠르고 사업에서 세밀하고 강인한 사람이 염 정자라고 말하면 그를 처음 맞나는 사람은 누구나가 의심할 것이다. 무뚝뚝 하게 보이는 그가 그럴수가 있겠는가고.

그러나 동작이 빠르고 세밀하고 강인한 사람이 바로 정자 동무이다.

정자 동무는 일단 작업을 시작한 후에는 전심 전력을 일에만 집중한다. 자기에게 차려진 기대가 제대로 움직이는가? 하는데만 모든 신경을 집중한다.

그 밖에 일들은 알 필요도 없으며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는 비상히 밝은 시각과 예민한 청각의 소유자다. 그러나 일할 때에는 옆에 사람이 와도 모르고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한다. 그 대신 기계의 어느 적은 나사 못 한개 드티거나 어느 한 오리의 실이 끊어지는 것은 단 일초도 놓치지 않고 제때에 발견하여 이어 놓는다.

이와 같은 특성과 함께 그의 끊임 없는 노력이 그로 하여금 『二개 사용 북 교체법』및 『八대 八자형 작업 방법』을 창안케 하였던 것이다.

그가 이와 같은 새롭고 선진적인 작업 방법의 창안을 시도하기 시작한 것은 一九五一년 초부터였다.

전국 직포 기능 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一등의 성적을 쟁취하고 공장에 돌아온 그는 더 창발적으로 일한다면 기계 효률을 훨씬 더 높이고도 많은 기대를 운전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게 되였다.

그런데 많은 기대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북 교체 및 계사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원리는 이미부터 알고 있었으나 북을 어떤 방법으로 교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못했다.

그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다. 초급 당 단체와 민청 단체에서는 그의 연구 사업을 백방으로 지지하고 방조해 주었다. 그는 비번 날에도 공장에 나가 결근자들의 기대를 맡아 가지고 실험을 거듭했고 밤이면 합숙에서 까지 제손으로 북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해 보군 하였다. 그는 실험에 지쳐 밤을 새운적이 한두번만 아니였다.

세밀하고 강인한 그의 노력은 드디여 三개월만에 성공하였다. 한개의 북을 사전에 준비하였다가 북실이 끝나면 바른 손으로 빈북을 잡고 왼손으로 새북을 넣는 『二개 사용 북 교체법』을 창안해 냈다. 결과 북 교체 시간 二○초(국가 지표)를 一초로 단축하였으며 계사



시간은 四○초(국가 지표)를 一○초로 단축할 수 있게 되였다. 북 교체에서와 계사에서 단축된 시간은 력직기 八대를 운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기대 당 생산 계획은 九○% 밖에 실행하지 못하였다. 원인은 기계 휴전 시간을 많이 냄으로써 기계 효률을 높이지 못한 데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기계 휴전 시간을 단축하고 기계 효률을 높이는 기본 고리는 북 교체 및 계사 시간 단축과 함께 합리적 순회 방법을 창안하는데 있다는 것을 감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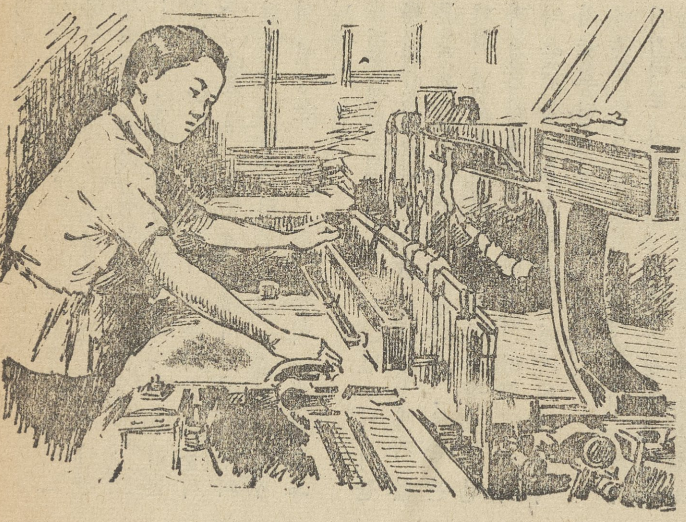
그는 고심해서 연구를 거듭한 결과 로력 영웅 고 영숙 동무의 四초 계단식 순회 방법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八대 八자형 순회 방법』을 창안하는데 성공하였다.

즉 이 순회 방법은 북 교체가 끝나면 곧 四초 이내로 새 북을 준비하고 다음 기대로 간다. 마지막 四호대에서 一호대까지 뒷 경사를 정리하며 순회한다. 다음은 一호대에서 직기 가운데를 통과하며 표면을 검사하고는 八호대에서 五호대까지 뒷 경사를 검토하는 규칙적인 순회 방법인 것이다.

八대 八자형 순회 방법은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정자 동무는 『二개 사용 북 교체법』 및 『八대 八자형 순회 방법』을 창안하여 자기에게 부과된 전후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一九五五년 四월 二一일에 一六八%로 초과 완수하였으며 또한 이 기간에 八六七메터의 천을 짤 수 있는 파사를 절약하였고 一五二명의 기능공을 양성하였다.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그의 로력적 위훈을 찬양하여 一九五四년 一二월 三○일에 로력자의 최고 영예인 공화국 로력 영웅 칭호를 그에게 수여하였다.



그는 로력 투쟁에서 달성한 모든 성과들이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을 하였을 따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조국과 인민은 자기 로력에 대하여 높은 평가와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므로 그는 한없이 감격하였다. 동시에 평범한 사람들의 로력을 이처럼 높이 평가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인민 정권 하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더 없이 행복하게 생각하였다.

고조된 감격이 북바치는 순간에 그는 지난 날의 생활을 회상하는 것이였다.

사람에게 있어 아홉살이라는 나이는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때요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의 따뜻한 보호를 받아야만 되는 유년 시절이다.

그러나 정자에게는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뛰놀던 그러한 기억은 거의 없었다. 동무들과 나란히 책상에 앉아 글을 배워본 그러한 기억은 더욱 갖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안주 탄광에서 일본놈들의 갖은 학대를 받으면서 로동했다. 정자는 거기서 났다.

아버지는 고된 로동에 허리 펼새 없었으나 가난한 살림은 그대로 풀리지 않아 아버지는 더 좋은 일터나 없을가 해서 평양에 나와 장유 공장에서 로동하였고 정자는 아홉살 되던 해에 견직 공장에 들어 갔다.

그러나 원수들이 발 붙이고 있는 곳 그 어데에 행복한 일터가 있었으랴! 살림 살이는 해마다 빈궁하여 갔다。 정자는 몇푼되지 않는 삯전에 얽매여 처음엔 입권기 견습공으로 일을 했고 열살때부터 련결공으로 일하면서 고된 로동 속에서 성장했다。 쉬지 않고 일해도 계속되는 빈궁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八·一五 해방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주었다。

쏘베트 군대의 승리의 함성은 평양의 온거리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도 서슬이 푸르던 공장주와 감독놈들은 찬바람 앞의 모기떼마냥 사라지고 공장은 인민의 손에 들어 왔다。

정자의 가슴은 해방의 감격과 새 생활의 정열로 불탔다。

정자에게는 명랑한 기분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행복을 가져다 준 새 시대가 무한히 기쁘고 고마웠다。 정자는 로력으로 이 고마움에 보답할 것을 엄숙히 맹세하였다。

어서 빨리 숙련공이 되자! 그리하여 더 많은 천을 짜서 국가에 드리자! 그는 자기 발전 속도를 스스로 독촉하며 선진 기술 습득에 힘썼다。

그리하여 그는 一九四六년도에 이르러 벌써 직포공으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을 배우던 사람으로부터 기술을 배워 주는 사람으로 되였다。

그는 해방 후 一〇년간 하루의 결근도 하지 않았다。 一〇년—이는 우리 인간 생애에서는 긴 세월이다。 학생들이 二—三년 결석없이 학교에 나가도 우리는 그를 높이 찬양하지 않는가! 하물며 一〇년간의 로동 생활에서 단 하루의 결근도 없다는 것은 그의 정력과 애국적 열정을 얼마든지 높이 평가하고도 남음이 있다。

정자에게 있어서는 一〇년—이 기간에 개인적 사정과 몸이 불편한 때가 없은 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이 모든 곤난과 애로는 자기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하며、당과 혁명의 리익에 자기의 일체를 복종시키려는 정자에게 있어서는 능히 극복될 수 있었다。

그는 작업 조건이 불리하였던 전쟁 시기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생산 과제를 항상 一五〇% 이상으로 넘쳐 보장하였다。

이로써 정자 동무는 많은 로동자들로부터 두터운 존경과 사랑을 받아 왔다。

그의 발전은 기술 기능만이 아니였다。 그는 기술 기능 수준의 발전과 함께 정치 문화적으로도 성장 발전하였다。

해방되자 공장에서는 문맹 퇴치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그는 공장에 설치된 성인 학교에서 완전히 국문을 해득하였고 또한 정치 학습을 통하여 정치적으로도 발전하여 갔다。

이렇듯 로력 영웅 염 정자 동무는 해방 후 一〇년 간의 로동 생활 속에서 곤난을 두려워 할줄 모르는 강인하고 침착하고 대담하고 문화적인 새로운 인간으로 자라났다。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로력은 행복을 창조하며 동시에 영웅을 창조한다。

보람찬 로력으로 이미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초과 완수한 정자 동무는 자기에게 맡겨진 금년도 년간 계획을 三〇〇%로 넘쳐 실행할 것을 八·一五 해방 一〇주년 증산 경쟁 의무 조항으로 내세웠다。

지금 그는 자기의 맹세 실천을 위하여 증산 경쟁 운동의 앞장에 서고 있다。

**정 정**

『청년 생활』 제六호 二九페지 상단 二七—二九행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一八四五년 맑쓰—엥겔쓰의 공동 저작 『도이체 이데오로기』 一八八四년 엥겔쓰의 저서 『가족 사유 재산 및 국가의 기원』과 一八七六년 엥겔쓰의 저서 『원숭이의 인간화 과정에 있어서 로동의 역할』





# 잊을 수 없는 전투의 날

공화국 영웅 신 중 순

七월 二七일이 가까워 온다。

이날은 조선 인민이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령도 밑에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날이다。

조선 인민의 력사에 빛나는 이 영광스러운 날을 앞두고 전투 회상기를 쓰라는 『청년 생활』편집부의 요청을 받고 묵은 전투 기록장을 번지면서 나의 전우들의 얼굴을 그리며 변변치 못한 글을 쓰려고 한다。

* *

一九五三년 七월、동부 전선 월비산 계선에 있은 三三九고지 전투때 일이다。

三三九고지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정에 부대』가 녹아난 三五一고지 남쪽 계선 약·八〇〇메터 지점에 솟아 있다。

그해 六월、三五一고지를 빼앗긴 원쑤들은 三三九고지에 병력과 화력을 집중시켰다。

적들은 이 고지로 포 감시초를 옮겨 왔으며 직사포를 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영구 화점과 토목 화점을 구축하고 우세한 기계화 부대를 배치하였다。

정전 협정 조인 직전 시기이던 一九五三년 六월—七월、원쑤들은 전 전선에 걸쳐 무력을 증강하면서 발악적 공격을 시도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一九五三년 七월 一五일 우리 부대는 전투 명령을 받았다。 우리 제五중대는 제六중대가 점령한 고지를 방어할 임무를 맡았다。

출격을 앞둔 七월 一五일 오후 六시、우리들은 공화국기와 근위기 그리고 민청 중앙 위원회 『모범 깃발』앞에서 민청 초급 단체 총회를 열고 영예로운 전투 임무를 완수하고야 말 것을 경애하

는 최고 사령관 김 일성 원수께 맹세하였다。

또한 총회에서는 우리 초급 단체가 三회나 계속 쟁취하여 온 민청 중앙 위원회 『모범 깃발』을 승리한 三三九고지 우에 휘날릴 것을 결정하였다。

이튿날인 七월 一六일 밤 一一시 一○분부터 二○분 사이는 아군 포화력의 강력한 연신 사격 시간이였다。 이 틈을 타서 제六중대는 적진으로부터 一○○메터가량 떨어진 고지 중턱 계선까지 전진하여 돌격선을 차지하게 되여 있었으며 우리 五중대는 제六중대로부터 五○○메터 뒤떨어진 『저격수 고지』에 도착하기로 되였다。

붉은 신호탄 세발과 함께 우리의 위력한 포들은 적진을 향하여 보복의 불벼락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적들도 오만한 반포로써 우리들의 전진을 가로 막았다。 적의 포화력은 점점 우리 전투 서렬의 종심으로 죄여들기 시작하였다。

전투는 처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되였다。 그러나 미친듯이 짖어대는 적의 포화력도 멸적의 기세 높은 우리의 불 같은 투지를 꺾지는 못하였다。 우리 제六중대는 잠시후 포연을 헤치고 다시 전진하였다。 一三시 정각、 그들은 고지 점령을 알리는 신호탄을 발사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도착한 계선에서 제六중대가 발사하는 백색 신호탄이 오르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보다 두시간이 지난 一五시가 되여도 신호탄은 오르지 않았다。 원쑤들의 포화는 미친듯이 발악하였다。 통신은 단절되였다。 전투의 정황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바로 이때 『중대 앞으로』라는 신호가 전달되여 왔다。 순식간에 우리 중대는 지척을 헤아릴 수 없는 포연 속을 헤치고 고지에로 내달았다。 三○○메터 가량 진격하였을 때였다。 중대 세포 위원장 김 형락 동무가 다리에 중상을 입고 신음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에게서 간단한 전방의 정황을 들을 수 있었다。 『중대장도 중상을 입고 제一소대장도 二、三소대장도 모두 부상을 당하여 전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였소、 그러나 전우들은 적진으로 육박、 그후는 모르겠소』

그의 신음 소리와 함께 뜨문뜨문 이어내는 말을 듣고난 전우들은 분함을 참다 못해 모두가 아무 말없이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소대장 동무는 한참만에 드디여 자기 결심을 채택하였다。

『동무들! 날은 밝아오오、 우리는 이 중기만을 가지고는 습격 전투를 하기 곤난하오 빨리 자동총、 보총을 준비하시오、 그리고 우리는 기여히 저 고지를 빼앗아야 하오』 소대장 동무의 격정 높은 이 말은 우리들을 새로운 싸움에로 불러 일으켰다。 우리들이 찾이하고 있는 지점은 매우 위험한 곳이 였다。 우리들은 곧 만반의 전투 준비를 완성하였다。 바로 눈앞의 적 진지엔 오만한 적들의 불 아가리가 우리를 향하여 버티고 있었다。 이때 『…동무들! 조국은 청년들의 애국심을 요구한다。 기여히 저 三三九고지를 점령하자! 원쑤를 한놈도 남김없이 소탕하자! 당과 수령을 위하여 앞으로!』 라고 씌여진 전투 소보가 돌려졌다。 一五명의 우리 소대원들은 적진으로 진격해 갔다。 우리가 고지 중턱에 다달았을 때 六중대 전우들은 적진을 불과 四○—五○메터 앞둔 『푸른 언덕』 고지에서 진격을 멈추고 멸적의 심장을 태우며 적들의 고지를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어제밤 공격에서 적진 앞까지 진격했다가 날이 밝아서 하는 수 없이 되돌아 이곳에서 날이 어둡기를 기다리는 것이였다。

한 전호 속에서는 팔과 다리를 잃고 피투성이가 된 김 인덕 동무가 아픔을 참느라고 입술을 악물고 땅바닥만 쥐여뜯고 있었다。 그의 손톱은 닳다 못해 모주리 빠지고 손은 피뎅어리가 되였다。 그는 자기가 신음 소리를 낸다면 전우들은 적들에게 발견되여 전부 희생될 것이며 습격 전투는 실패하고 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숨결을 걷는 순간까지 그 무



서운 아픔을 참아내고 전투 전의 은밀을 보장하였던 것이다。

날은 활짝 밝았다。 나는 제二소대장 조 홍섭 동무와 함께 『푸른 언덕』 고지를 기여다니며 전우들을 만났다。 남아 있는 三三명으로서 새로운 전투 서렬을 편성하기 위함이였다。

당원들의 제의에 의하여 화선 당 회의가 열렸다。 길죽하게 판 음폐호 속에서 七명의 대표들은 이마를 맞대고 앞으로 진행될 전투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대표들의 제의에 의하여 내가 회의를 집행하게 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은 요지로써 간단히 보고를 하였다。

『동무들! 우리들 三三명의 전우들 중에는 二一명의 당원이 있고 八명의 민청원이 있다。 우리는 모두 근위 성원들이다。 八명의 민청원들은 모두 민청 중앙 위원회 『모범 깃발』을 수여 받은 초급 단체 민청원들이다。

三三명의 력량을 가지고도 우리는 능히 三三九고지를 탈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조직이 필요하다!』

간단한 보고에 뒤이어 토의가 진행되였다。

목소리는 낮으막 했으나 그들의 눈망울마다엔 원쑤에 대한 증오로 빛나고 있었으며 그들의 심장마다가 적들을 무찌를 투지로 끓고 있었다。

적들의 여러겹으로 둘러싼 각종 철조망、 발 디딜 곳 없이 총총히 묻어놓은 지뢰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지뢰원은 그냥 밟고 올라가는 수 밖에 없소、 그리고 철조망은 우리가 휴대한 반땅크 수류탄에 수전을 감아 던져서 해제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오』 조 홍섭 동무의 토론이였다。 옳은 의견이였다。 조 홍섭 동무의 의견대로 철조망 해제는 지난 밤 경험에 비추어 수류탄에 수전을 감아서 던지는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적들이 어떻게 빽빽하게 철선을 늘어 놓았던지 수류탄이 도루 튀여나와 아군이 있는 곳에서 터졌기 때문이였다。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결 정 서

一、 우리는 기여코 三三九고지를 탈취할 것이다。

二、 세포 위원장으로 김 용학 동무를 선거하고

민청 위원장 신 중순 동무가 다른 임무를 수행하게 되였으므로 민청 사업을 배응식 동무에게 위임。

三、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에게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

四、 공화국기、 모범 중대기 및 민청 중앙 위원회 『모범 깃발』을 김 경순、 김 종식 두 동무에게 위임한다。

전원 찬동、

(이 결정서는 원문 그대로임)

뒤이어 우리들은 경애하는 수령에게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맹 세 문

경애하는 수령이시여!

여기 三三명의 전우들은 적진으로 부터 四○메터 떨어진 三三九고지 『푸른 언덕』에 뫼여 꼭 三三九고지를 탈취하고야 말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어제밤 공격에 피흘리며 쓰러진 전우들의 복쑤를 위하여 당과 조국과 경애하는 당신을 위하여

첫째、 당과 경애하는 수령 당신의 영예로운 전사들인 우리는 기여히 三三九고지를 탈취함으로써 자기 임무를 다할 것이며

둘째、 三三九고지를 탈취함으로써 근위 부대의 영예를 고수할 것이며

세째、 공화국기와 수령의 초상을 모신 민청 중앙 위원회 『모범 깃발』과 함께 용감하게 저 三三九고지를 향하여 돌진할 것을 굳게 굳게 맹세합니다。

一九五三년 七월 一七일 一三、○○시

三三九고지 『푸른 언덕』에서

근위 三三용사 일동

(이 맹세문 역시 원문 그대로임)

맹세문은 전호에서 전호로 전해졌으며 전우들의 뜨거운 심장에 아로새겨지는 맹세와 함께 서명되였다。

새 전투 서렬 편성을 끝마친 우리들은 적의 낮은 음성마져 들릴 가까운 지점에서 최후의 결전을 위하여 침착하게 준비하였다。 이때 우리들이 차지한 저점 좌측에서 자동총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쪽을 향하여 다가오는 원쑤들에게 전우들이 불벼락을 들씌운 것이다。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위치가 발견되였다。 그러나 이미 새 전투 서렬을 편성하고 당과 수령 앞에 목숨 바쳐 고지를 탈환하고야 말 굳은 결의를 다진 우리들에겐 백만의 대군도 무섭지 않았다。

암석도 녹여버릴 듯한 七월의 태양은 찌는듯이 내려쬐였다。 물 없는 고지에서 갈증을 참고 이겨내기는 참으로 힘든 일이였다。 목이 마르다 못해 혀가 터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운 곤난을 참고 이겨냈다。

나어린 민청원인) 조 동무는 갈증을 참다 못해 전우들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 이때 나는 『저기 물이 있소』라고 중기의 방열통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러나 그는 물이 들어 있는 방열통을 뚫어지도록 바라다 볼뿐 다가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문뜩 무엇을 굳게 결심한 듯 아무 말도 없이 되돌아 갔다。 그는 돌격을 앞두고 원쑤들에게 보복의 총탄을 퍼부어야 할 중기의 방열통 안에 있는 물 한방울이 자기 한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견디기 어려운 갈증을 참았던 것이다。

이날도 원쑤들은 여덟 차례나 미친듯이 반돌격을 해왔으나 그때마다 우리들의 불벼락을 맞고 물러가고 말았다。

지루하게 내려쪼이던 七월의 태양도 서산에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중대장으로부터 돌격 신호와 시간이 전달되여 왔다。 七월 一七일 밤 一○시 한발의 백색 신호탄이 오르자 돌격을 개시하기로 되였다。

돌격 시간을 두시간 앞둔 저녁 八시、 우리는 어둠을 타서 최후의 돌격 준비를 했다。 낮에 음폐하여 두었던 중기들을 가져다 三三九고지 제一선 참호의 적 중기 화점에 불벼락을 들씌울 임무까지도 결정되였다。 만반의 준비는 끝났다。 중대장의 야광 시계는 九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이때였다。 음폐호 밖에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 오더니 기다리던 련락병 구 자옥 동무가 씩씩거리며 돌아왔다。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서 한참동안 그를 끌어안고 어쩔줄을 몰라했다。

『一개 소대의 예비대로 九시 三○분에 포사격 지원、 공병 一개 분대의 배속、 습격은 一○시 정각에 설정된 임무 그대로 진행할 것』구 자옥 동무의 보고를 듣고난 우리들은 기여코 고지를 탈취하고야말 굳은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 약속대로 공병은 도착하였다。

九시三○분 정각、 우리의 위력한 포화력의 엄호 사격은 시작되였다。 공병들은 지뢰 해제를 위해 떠났다。 우리들은 모두 돌격 출발 위치를 차지하고 공병들의 통로 개설 신호만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태는 예견하였던 것보다 다르게 벌어졌다。 공병들이 놈들의 싸찌라이트에 걸려 발각되였다。 원쑤들은 정면으론 七문의 중기、 제二선 참호에선 一二문의 중기 및 四문의 경기 화력들을 통털어 미친듯이 지랄쳤다。 시간은 五분 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의 포 사격도 멎었다。 一○시 정각、 중대장의 신호총 소리와 함께 전호를 뛰쳐나온 우리들은 『만세』를 웨치면서 적진을 향해 육박해 갔다。

적진 五메터 앞 지점에서 우리는 적 철조망에 부닥쳤다。 우리의 진격은 잠시동안 중단되였다。 바로 이때 민청원인 김 병모 동무는 자기의 자동총과 함께 자기 몸을 철조망에 덮고 『동무들! 여기에 통로가 있소!』라고 웨치면서 자기의 등 우로 전우들을 진격해 가게



했다。 난관은 중첩되였다。 적들은 좌측에서 측면 사격으로 우리의 전진을 또 가로 막았다。 우리 습격조원들의 돌격이 멎는 것을 보자 리 종욱 동무는 쏜살 같이 내달아 반땅크 수류탄을 적의 중기 화점을 향해 던졌다。 그러나 중기는 계속 미친듯이 불을 토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적 중기 화점을 향해 달려 들었다。 리 종욱 동무는 끝내 원쑤에 대한 치솟는 증오로 가득찬 피끓는 심장으로 중기 화구를 막아 전우들의 최후 돌격을 보장하였다。

적의 중기가 침묵하자 우리들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최후의 돌격을 감행하였다。

(최후 돌격에서 고지까지 도착한 나는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게 되여 그후 전투엔 참가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고지는 점령되였다。 승리한 조국의 고지—三三九고지 정점에는 五각별 빛나는 공화국기가 휘날렸으며 전우들의 고귀한 피에 젖은 민청 중앙위원회『모범 깃발』도 승리한 고지 우에 휘날리였다。

그러나 우리도 적지 않은 희생을 당하였다。 적들은 고지를 빼앗기자 다시 병력을 증강하여 가지고 반돌격해 왔다。

살아남은 전우들은 그 이튿날 새벽 五시까지 二七차례에 걸친 적들의 반돌격을 물리치고 고지를 끝까지 지켰다。

그들은 반격해 오는 원쑤들에게 적들이 버리고 간 수류탄으로 불벼락을 들씌워 물리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중대 전투 대렬을 지휘하는 중대장들의 시늉을 내여가며 무리로 달려드는 적들을 위협하기도 하였고 점령한 고지로 적들이 기여 들었을 때에는 괴뢰군으로 가장하여 놈들의 대렬 속에 들어가 활동하면서 련이어 달려드는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이런 시각에 정비된 자동총 중대 一소대 동무들이 도착하였다。

그들과 합류한 고지에 남은 용사들은 용기백배하여 원쑤들의 공격을 물리쳤다。

날이 밝자 우리 용사들은 더 증강된 력량으로 적들을 『고함봉』까지 몰아내였다。 이리하여 전투는 우리의 승리로써 끝났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앞에 다진 우리들의 맹세는 실천되였다。

적들은 이 고지에 一、六四二개의 시체와 一二문의 각종 포、 수백여정의 저격 무기등 기타 많은 전투 기재를 남기고 패주하였다。

※ ※

가렬하였던 三三九고지 전투가 있은 그때로부터 만 二년이 된다。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인민들은 장엄한 복구 건설의 길에 들어 서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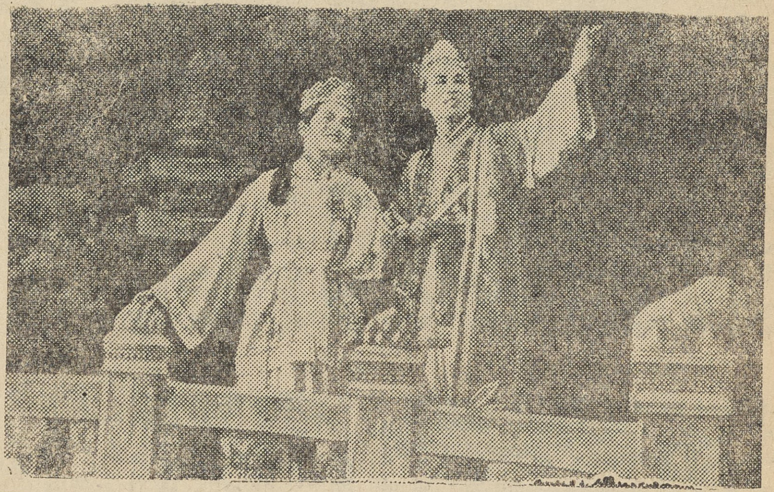
그러나 조국의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와 그 주구 리 승만 역도들은 조선 침략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자기들의 참패에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으며 전쟁 재발을 로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원쑤들의 음모는 언제나 실패로 돌아 가고야 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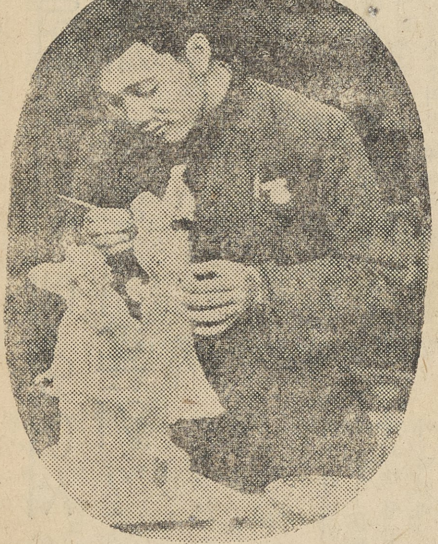
만일 원쑤들이 위험을 돌보지 않고 또 다시 모험을 감행한다면 지난 전쟁에서 그리고 전후의 훈련에서 불패의 력량으로 장성된 조선 인민군은 원쑤들에게 더 무서운 죽음을 주고야 말 것이다。

나는 三년전의 잊을 수 없는 전투의 나날을 회상하면서 조국 보위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군정 훈련에 더욱 열성을 발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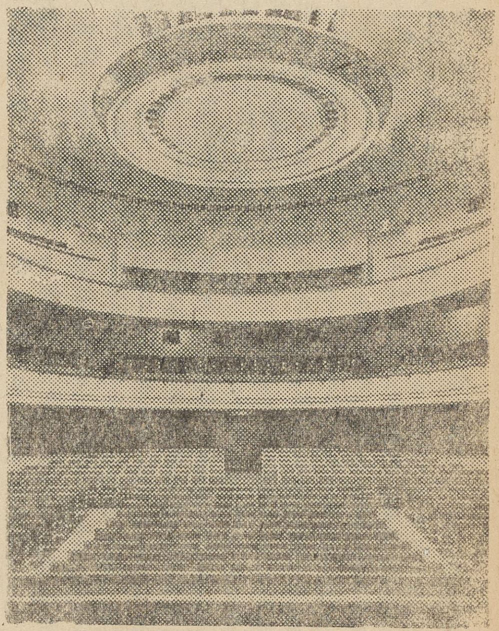
# 와르샤와에서의 상봉의 날을 앞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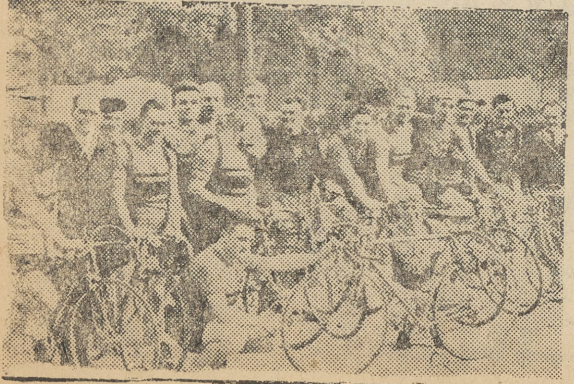
조선 청년들은 축전 예술 프로로 오페라 『콩쥐와 팥쥐』를 상연할 것이다.



축전에 출품할 조각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의 젊은 조각가.



축전 기간에 예술 공연이 진행될 와르샤와의 문화 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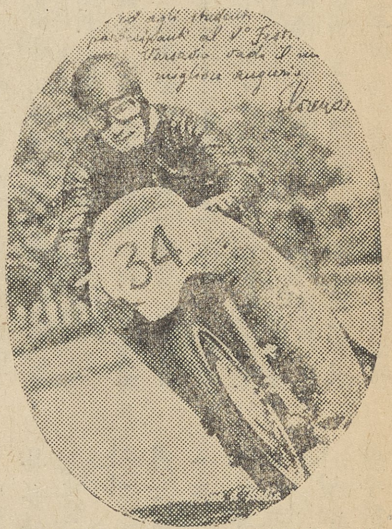


축전에 참가할 불란서 자전거 경기 선수들.





상봉의 날을 앞두고 쏘련 청년들은 예술 축전을 준비하고 있다.




축전에는 이태리의 유명한 모타찌클 선수 엔리꼬·로렌체티가 참가할 것이다.

축전 포스타—






체코슬로바키야 청년들은 대 예술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조쏘 친선 월간에 제하여 선동원들에게 주는 담화 자료

# 국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 시기에 있어서 레닌 공청원들은 어떻게 투쟁하였는가?

김 덕 필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이 승리한 후 쏘련 공산당은 새로 탄생한 쏘베트 제도의 경제적 독립을 보장하며 그의 방위력을 강화하며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승리를 위하여 국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공산당의 위대한 수령이신 레닌과 쓰딸린은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승리의 가능성을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의 방도를 명시하였는바 레닌과 쓰딸린은 쏘련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사회주의적 공업을 건설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一九二五년에 소집된 쏘련 공산당 제一四차 대회는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위대한 쓰딸린은『우리 나라를 농업국으로부터 자력으로 필요한 설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업국으로 전화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총 로선의 본질이며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쏘련 공산당은 국가의 일체 력량을 사회주의 공업화에 돌렸다。 공산당은 공청에게 공청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당의 총 로선 실천에로 조직 동원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위임하였다。 땅의 호소를 받들고 영웅적 레닌 공청원들은 사회주의적 공업 건설의 각부문에서 류례 없는 영웅주의와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 건설사에 그의 찬연한 위훈을 기록하였다。

## 공청원들의 돌격 운동

공청 단체들과 공청원들은 공업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위한 대중적인 돌격 운동을 전개하였다。

공청원들의 돌격 운동은 레닌그라드 뜨레우골리끄 폼비나트 녀 공청원들의 덧신 제조를 위한 새 합리화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이들은 공작 기계를 재 배치하고 능률적인 새 작업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종전에는 하루에 一七—二〇컬레 만들던 것을 三〇—三二컬레로 제고시켰으며 불합격품과 오작품을 급격히 저하시켰다。 청년 돌격대 운동은 모쓰크바와 레닌그라드、우랄과 돈바쓰를 비롯한 다른 선진 기업소들에도 광범히 전파되였다。 공청원들은 어데서나 돌격 운동의 조직자로 되였으며 새 기술에 기초한 선진적인 작업 방법을 보급함에 모범이 되였다。 공청원들의 "돌격 운동"은 어데서나 로동 생산 능률의 향상에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켰으며 "돌격대"란 말은 생산에 대한 혁신의 상징으로 되였다。

쓰딸린은 레닌 공청 제五차 대회에서(一九二七년 三월) 공청의 혁신적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공업 생산품의 련속적인 원가 저하를 위하여 생산의 관리와 경영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합리화 운동을 광범하게 전개할 것을 호소하였다。 쓰딸린은『공청은 우리 나라에서 언제나 우리 투사들의 최선렬에 서 있다。 나는 공청이 우리 나라에서 우리의 혁명 생활의 사건들로부터 뒤떨어졌든 때를 알지 못한다。 나는 공청이 이번에는 사회주의적 합리화를 실시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청다운 자리를 지키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공장 기업소에서 공청 단체들은 수령의 호소에 고무되면서 생산의 합리화를 위한 기술 습득과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절약을 위한 대중적 운동을 전개하였다。 공청원들은 생산에서의 무질서와 해이성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건달군과 태공 분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였다。 공청원들은 창발적으로 젊은 생산 합리화 운동자 크루쇼크를 조직하고 공장 기계와 기대의 모범적인 운전 방법과 합리적인 생산 방법을 보급하였다。 이와 함께 공청 단체들은 청년들 속에서 로동에 대한 새로운 사회주의적 태도를 침투시키며 기술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종 다양한 대중적인 생산 작업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공청 단체들과 공청원들은 국가 경제 생활에서 이와 같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제一차 五개년 계획 실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젊은 기사들과 과학자들은 국가의 경제 자원들을 탐구하였으며 그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연구하였다。 쏘련이 처한 자본주의적 포위의 특수적 환경은 단 시일내에 기술 경제적 관계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 앞설 것을 요구하였다。 작성된 계획에는 짧은 기간내에 새로운 기업소들을 확장하며 새로운 도시와 발전소와 공장을 건설하며 광산을 개발하고 철도를 부설할 원대한 사업을 예견하였다。

一九二七년 一二월에 열린 제一五차 당 대회의 지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공청은 경제 로동 및 생활의 합리화에 대한 도시와 농촌에서의 모든 계획의 발기자가 되여야 하며 또 전도자가 되여야 한다。 공청원은 기술적 경제적 및 문화적 락후성과의 투쟁 전선에서 당의 정책 실시 사업에서 당의 중요한 방조자의 하나로 되여야 한다』 공청 단체들과 공청원들은 당의 두터운 신임에 영예롭게 보답할 것을 일치하게 맹세하였다。

공청원들은 기술을 습득하면서 돌격 운동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모쓰크바 "뜨료호고르나야、마뉴팍뚜라" 꼼비나트에서는 녀성 로동 청년들도 자원적으로 돌격대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생산 과정을 합리화하였으며 다기대 운동을 전개하여 단독적으로 六대의 기대를 담당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우랄의 츄쏘브 공장에서 공청원들은 생산에서의 비문화성을 반대하는 투쟁의 선두에서 있다。 공청원들의 돌격 운동은 어느 공장、어느 기업소를 막론하고 대중적으로 일어나 제一차 五개년 계획의 첫 해에는 벌써 전 인민적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였다。 그리하여 공청원들의 이 돌격적인 생산 경쟁과 생산 합리화 운동은 다음 단계에 일어난 대중적 사회주의 경쟁의 발단으로 되였다。

## 공청원들의 사회주의 경쟁 운동

一九二五년 一월 二〇일 "쁘라우다"에는 레닌이 쓴 "어떻게 경쟁을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론문이 처음으로 발간되였다。 레닌은 여기에서 선진적인 로동자들의 창발적 발기를 전 인민적 운동에로 즉 사회주의 경쟁에로 발전시켜 나갈 구체적 길을 명시하였다。 사회주의 경쟁의 조직에 대한 레닌의 사상은 공청에 의하여 열렬히 호응되였다。 "공청 쁘라우다"는 전체 공청 단체들에게 사회주의 경쟁을 전개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도시들에서는 로동 청년들의 대표자 회의가 진행되였으며 모두다 레닌의 유훈에 충직할 것을 맹세하였다。

경쟁의 첫 봉화는 레닌그라드의 끄로보공장 로동 청년들과 하리꼬브의 기관차 건조공장 로동 청년들이 올렸다。 경쟁에는 돈바쓰와 꾸즈네쯔의 탄전 채탄공들、끄라스니 위보르제쯔의 제지공들도 참가하였다。 어떤 청년들은 다른 기업소의 청년들과 개인 경쟁을 체결하였다。 경쟁은 전국적 범위로 확대되였다。

경쟁의 행정에서 수많은 공청원들은 적극적으로 생산 합리화 운동을 제기하였으며 시간외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생산 기준량을 돌파하였다。

『공산주의는—레닌은 가르쳤다—로동 생산성 제고에 관한 일반 로동자들의 곤난한 로동을 현실적으로 극복하는 배려가 나타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 배려는 공동적 사업에서 로동자들의 사회주의 경쟁의 첫 걸음에서 로동 생산 능률의 급격한 향상으로 표시되였다。 돈바쓰의 공청 채탄부들은 벌써 一九二九년 三월에 자기의 생산 계획을 초과 실행하였으며 기타 기업소에서도 수많은 생산 계획의 기한 단축 완수자들을 내였다。

제一六차 당 대회는 공청의 이 발기를 지지하고 五개년 계획의 실행을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전체 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쓰딸린은 경쟁의 커다란 교양적 역할을 강조하면서『사회주의적 경쟁의 원칙은 공동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앞선 자로부터 뒤떨어진 자에게 주는 **동지적 원조이다。 사회주의 경쟁에 있어서는 갑이 일을 잘못하고 을이 일을 잘하고 병이 일을 그보다 더 잘할 때는 잘못하는 사람 전체를 일 잘하는 병의 수준에까지 이끌어 올릴 것이다**』

당과 쓰딸린의 교시에 충직하면서 공청원들은 전반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원조 협조하였으며 앞선 자는 떨어진 자를 고무하고 뒤떨어진 자는 앞선 자를 따르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일하였다. 돌격대들의 기대 앞에는 다음과 같은 구호들이 붙여졌다. 〃나 압착공 와센꼬는 압착공 쓰크리보넨꼬에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한다〃 〃나 착암공 이와노브는 나의 교대자들에게 새 기준량 창조를 호소한다〃 〃경쟁의 발기자들은 승리를 위하여 분초를 다투어 일하였으며 작업의 속도를 증대시켰으며 기계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경쟁의 행정에서 공청원들은 또한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하여 로동 조직에서의 제 결함—즉 균등한 로임과 시설품에 대한 집단적인 책임 전가, 기계 수선에서의 무책임성들을 창발적으로 제기하여 시정하였다.

一九二九년 경쟁에는 무려 二〇〇만명의 공청원들이 참가하였다.

一二월에 진행된 제一차 돌격대 대회는 전국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경쟁을 빛나는 성과로 총화하면서 돌격대의 운동을 새로운 경쟁 형태의 발생을 위한 맹아로 인정하였다. 생산에서는 새로운 창발성이 더 많이 표시되였다. 돌격대들은 시설품과 공작 기계의 리용을 검열하였다. 청년들의 창발적 제의에 의하여 공장과 기업소에는 〃청년 기병대〃가 조직되였다. 이들은 생산의 사회주의적 합리화를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관료주의와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비판을 고무하였다.

공장과 째호들에서 공청원들은 기계의 운영 정형을 검열하였으며 생산 합리화에 대한 제의를 적극 지지하여 이를 실현시켰으며 랑비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또한 공청원들은 독립 채산 작업반을 창설하여 생산품의 제조 과정과 그 인도에 이르는 전 행정을 검열 감독하였다.

사회주의 경쟁은 생산에서만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덕 품성을 소유케 하였다. 실로 경쟁은 모든 청년들에게 로동을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같이 천시하며 곤난한 부담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영예롭고 용감하고 영웅다운 일로 되게 하였다.

## 가장 어렵고 곤난한 건설장에로!

제一차 五개년 계획 기간에 대규모적인 건설 공사는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되였다. 전국은 문자 그대로 목재 발판 우에 놓이게 되였다.

공청원들은 건설장에서도 사회주의 경쟁의 조직자로 나섰다. 전개되는 건설 공사들은 수많은 새 로동자들과 목수, 석공, 조립공, 공크리트공, 토공들을 요구하였다.

당의 부름에 따라 공청원들은 가장 곤난하고 위험한 건설 지구에 달려 갔다.

一九二九년에만 하여도 건설장에 달려간 청년들의 수는 무려 三五만여명에 달하였다. 七천여명의 공청원들은 쓰딸린그라드의 뜨락또르 공장의 건설에 파견되였으며 六만 六천여명의 공청원들은 우랄과 씨비리의 새 공장 건설에로 출발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청년들은 뜨네쁘르 수력 발전소 건설에, 모쓰크바의 청년들은 뽀드모쓰꼬보 탄광에, 레닌그라드 청년들은 스비르강 수력 발전소 건설에 참가하였다.

뜨네쁘르 수력 발전소 건설에서 공청원들이 발휘한 로력 위훈은 특출하였다. 대 제방과 수력 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도 뜨네쁘르의 강물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공사는 가장 곤난하고 불리한 조건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떤 작업 구역에서는 제방 기초를 세울 수 없는 화석층이 나타났다. 건설자들은 화석층을 파 헤쳐야 하였다. 또한 물은 경사지에 흘러 내려 흙탕을 이루었다.

공청원들은 굴하지 않고 물 속에서 밤낮으로 돌격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五〇만 립방메터의 콩크리트 계획을 五一만 八천 립방메터로 초과 축조하는 성과를 올렸다.

로력에서 공청원들의 영웅성은 하리꼬브의 뜨락또르 공장 건설에서도 표시되였다.

이들의 과업은 겨울이 오기전에 반키로메터의 커다란 기계 조립 째호의 전물을 급속히 콩크리트화하는 데 있었다.

六〇여명의 공청원들은 〃五개년 계획 위병대〃라는 공청 작업반을 조직하고 돌격 작업의 선두에 섰다. 이들은 마지막 콩크리트가 구조될 때까지 발판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다. 그들은 밤에도 발판을 떠나지 않고 련속적으로 일하였고 부족한 밀차를 대신하여 콩크리트를 통과 바께쯔로 날랐다. 그리하여 이들은 一八일간의 간고한 주야 돌격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째호의 콩크리트 작업을 一三일간이나 앞서 완수하였다.

一九三〇년 제一六차 당 대회는 쓰딸린의 제의를 지지하여 동방에 제二 석탄 및 야금 기지를 창설할 데 대한 계획을 제시하였다.



우랄과 꾸즈네쯔의 꼼비나트 건설 계획은 종전의 모든 공사보다 그 규모와 속도에서 대비할 수 없이 컸다. 이 계획에는 야금 공장 탄광, 유색 금속 공장, 화학 공장을 비롯한 수 많은 대 기계 공장들이 들어갔다.

우랄과 씨비리는 단번에 수십만의 로력을 요구하게 되였다. 당의 지시를 따라 공청원들은 동방에로 갔다. 레닌 공청은 당으로부터 이 꾸즈네쯔와 우랄의 건설을 담당하였다. 위대한 건설은 전 공청의 가장 큰 영예로운 사업으로 되였다. 공청은 전체 공청 단체들에게 자기의 정력을 총 동원할 것을 제기하였다.

꼼비나트를 위한 시설품을 만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우랄과 꾸쯔바쓰의 이름을 가진 돌격대가 결성되였다.

미개지이며 황무지인 우랄과 꾸즈네쯔 꼼비나트의 건설장에 一만 二천명의 공청원들과 三〇四개의 공청 돌격대가 집결되였다.

건설장에서 공청원들은 가장 중요하고 어렵고 곤난한 일을 도맡았다. 그들에게 부과된 가장 큰 영예로운 과업은 一키로메터에 달하는 제방 공사였다. 외국의 기술자들은 완공 기간을 一九〇일간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공사의 기간은 동기전으로 완공하기 위하여 七五일간으로 제한되였다. 청년들은 돌격에로 나아갔다. 이들은 배꼽까지 잠기는 물 속에서 밤낮을 이어 불요 불굴하게 일하였다.

그들은 一二만 二천 五백 립방메터의 흙을 파내였으며 二만 三천 립방메터의 콩크리트와 一만 립방메터의 돌포대를 구축하여 공사를 기한전에 완수하였다. 돌격 대원들은 자기들의 로력적 성과를 기념하여 여기에 공청 제九차대회의 이름을 부여하였다.

다른 공청원들은 또한 이곳에서 거대한 용광로의 건축 공사를 담당하였다. 이 용광로는 기록적인 짧은 기간내에 건조되였다. 이것은 공청원들의 영웅적 로력의 결과였다. 때때로 한난계는 령하 四二도를 가리켰고 추위는 낯을 베고 손발은 경련을 일으켰다. 로동 보호 감독부는 이러한 엄한에서 외부 작업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 것을 부탁하면서 작업을 중지하지 않았으며 준공 기일을 단축시켰다.

공청원들은 모쓰크바의 지하 철도 건설 공사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놀았다. 모쓰크바 공청 단체는 영예로운 레닌 훈장을 표창 받았다.

공청원들의 영웅적 로력은 밀림 속의 아므르 강변에서도 표시되였는바 그들은 여기에 공청의 이름을 지닌 꼼쏘몰쓰까야 도시를 세웠다.

엠·이·깔리닌은 공청원들의 이 거대한 창조적 로력을 평가하면서 『후손에 대한 기념으로서 멀고 먼 벽지에서, 길도 없는 산림 속에서, 아므르의 커다란 강에서 공청원들은 자기 이름의 도시 꼼쏘몰쓰까를 건설하였다』고 썼다.

사회주의 경쟁에서 공청원들이 표시한 돌격적인 로동과 고귀한 창발성은 당과 정부에 의하여 높이 평가되였다.

一九三一년 一월 二一일 레닌 서거 七주년 기념일에 제하여 쏘베트 국가는 공청의 헌신적 로력에 대하여 로력 적기 훈장을 표창하였다.

공청 제九차 대회는 사회주의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성적으로 더욱 헌신적으로 일할 것을 당 앞에 맹세하면서 전체 공청원들에게 五개년 계획의 돌격대로! 사회주의의 건설의 제一선에로 나아갈 것을 호소하였다. 전체 공청원들은 당에 대한 자기의 맹세를 실천하면서 一九三三년초에—기한보다 一년 앞서—제一차 五개년 계획을 영광스럽게 완수하였다.

그리하여 공청원들은 쏘련 인민의 위대한 승리와 력사에 새로운 공훈의 페지를 기입하였다.

## 과학의 요새를 향한 공청원들의 행군

국가의 사회주의 공업화는 동시에 공청 앞에 새 임무를 제기하였다.

一九二八년 五월에 진행된 공청 제八차 대회에서 쓰딸린은 五개년 계획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제시하면서 간부 양성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우리에게는 지금 각종 지식 분야에서 사업의 주인으로 될수 있는 볼쉐위크들의 많은 그루빠, 수백 수천명의 새로운 간부들이 요구된다. 과학을 소유하고 모든 지식 분야의 새로운 볼쉐위크 전문가들의 간부들은 단련하고 꾸준하게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과업이다』

쏘베트 청년들은 쓰딸린의 이 교시를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공청은 수많은 젊은 로동자와 농민들을 전문 학교와 기술 학교에 보냈으며 각종 기술 강습소에 동원하였다. 또한 수백만의 남녀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배웠으며 공장과 기업소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였다.

공장 기업소에서 공청은 광범한 기술 강습과 학교망의 창설의 발기자가 되였으며 기술 꼰쑬따찌야와 기술 전람회 〃기술의 날〃 〃기술

술의 밤"등 각종 모임의 조직자로 되였다。

一九三三년 여름 우랄 기계 건조 공장 공청 단체는 첫 일반적—최소 기술의 소유와 일반 기술 시험의 실시—는 전국에 호응 확대되여 一九三四년에는 一〇二만의 남녀 청년들이 최소 기술 지식의 시험에 참가하였다。

공청은 농업을 위한 기계 간부들의 교육에도 큰 주의를 돌렸다。

一九三四년도에만 하여도 二五〇만의 뜨락또르 운전수와 콤바인 운전수、 기타 기계공들이 양성되였는데 그들중의 八〇%도 청년들이였다。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이 없이는 그 기술은 무용한 것이다。 기술을 습득한 사람을 선두로한 기술은 기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반드시 수행할 것이다……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에、 인재에、 일군들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되는 것이다』

공청원들은 이 교시를 쓰따하노브 운동으로 대답하였다。 一九三五년 八월 三〇일 돈바쓰의 탄광 공청 지구에서 젊은 착암공 암렉쎄이 쓰따하노브는 세계 청년절을 기념하여 한 교대작업에서 一〇二톤의 석탄을 파내여 자기의 채탄 기술을 一四배로 초과 실행하는 기록을 세웠다。이 훌륭한 생산 기록은 번개 같이 전국에 전파되여 진취적이며 혁명적인 공청원들의 감정을 격동시켰다。

공청원들은 쓰따하노브를 통하여 기술을 소유한 사람들의 능숙한 작업 조직에서 발휘되는 기적을 다시 한번 감격 깊게 목격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각 부문에서는 수많은 쓰따하노브 운동자들이 속출되였다。

철도에서 기관수— 공청원 베뜨르 끄리보노쓰는 화물 수송에서 새 혁신을 일으켜 화차의 운전 기술 속도를 二배로 증대시켰다。 경공업에서도 에브도지야와 마리야、 위노그라도바、 따이씨야、 오리노조바들은 새로운 생산의 혁신을 일으켰다。 쓰따하노비츠—이들은 보통 로동자들이였다。 그러나 이들은 새 사람 즉 자기 일에 대한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고 그 기술에 기초하여 앞으로 용감히 나아가는 새 사람들이였다。 실로 이들은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숙련된 작업에 있어서 정확성과 정밀성의 모범을 보이는 작업에 있어서 시간이란 동인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였다。

쓰딸린은 이 운동의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쓰따하노브 운동은 우리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페지의 하나로서 기록될 그런 남녀 로동자들의 운동이다』 이는 『낡은 기술적 정량을 불충분한 것으로 보아서 그것을 타파하며 수다한 경우에 있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로동 생산 능률을 훨씬 초월하며 또 그리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앞으로 더 공고화하여질 실질적 가능성、 우리 나라가 가장 유족한 국가로 변하여질 가능성을 주는 그런 운동』 이였다。

쏘련 청년들은 사회주의 공업 건설에서 직업과 기술의 숙련만을 받은 것은 아니였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전 행정은 동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의 있는 생활의 학교였다。

일찌기 레닌은 쏘련 청년들에게 위대한 공산주의의 건설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공산주의를 배울 것을 가르치면서 자기의 학습과 로동의 매 걸음을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전 인민적 투쟁에 결부할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건설 행정에서 전개된 공장 기업소와 건설장들은 바로 공청원들에게 있어서 이 교시 실천을 위한 실천장으로 되였다。

공청원들은 건설장에서 생산 기술을 높이고 정치적으로 훈련 받고 도덕적으로 세련된 새 인간들로 자라났다。

대중적 사회주의 경쟁은 그들에게 로동과 소유에 대한 새로운 진실한 사회주의적 관계를 체득케 하였으며 로동과 건설 속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조국 앞에서의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높이게 하였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건설장들은 그들에게 로동에 대한 헌신적이고도 영웅적인 재 성격을 가지게 하였으며 어떠한 곤난과 난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불요 불굴성으로 단련케 하였다。

빠른 건설의 속도는 밤낮을 이어 일할 것을 요구하였고 빗속에서도 물속에서도 서슴없이 나설 것을 요구하였으며 죄여 드는 엄한 속에서도 건설의 손을 멈출 수 없었다。

또한 그들은 혼이 건조한 바라크에서 천막에서 살았으며 항상 배부르게 먹은 것도 아니였다。 그러나 공청원들은 서로 돕고 도와 주면서 명랑하게 살았으며 조금도 불만을 품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림시적인 것으로 참고 견디였다。

그리하여 공청원들은 실로 사회주의 건설 행정에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직성과 헌신성、자기의 힘에 대한 확신성、 모든 곤난을 뚫고 나아가는 불요 불굴성을 가진 볼쉐위크적인 소질로 **자체를 준비하였다。**





**로동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 학습 방조 자료**

# 민청원들 속에서 선진적 혁명 의식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자

김 봉

## 一、 민청원들은 왜 선진적 혁명 의식을 높여야 하는가?

인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로동당에 의하여 사회주의 사상으로 교양 훈련되고 있는 우리 나라 청년들은 오늘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보위하며 우리 나라 북반부에 강력한 혁명적 민주 기지를 건설하며 우리 나라의 장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며 또 그리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을 촉진시키는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자기의 온갖 열성과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로동 청년들이 공장 제조소와 건설장들에서 창의 창발성을 발휘하며 로동 생산성을 제고하며 제품의 질적 개선과 원가 저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허다한 실례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농촌 청년들도 각종 농산물의 수확고를 높이며 축산업과 기타 농업 부문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학생、인테리 청년들은 사회 과학 및 자연 과학의 모든 면에서 지식과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수다한 청년들이 자기들의 정치 리론 수준을 높이며 자체의 수양을 강화하기 위하여 맑쓰—레닌주의 정치 학습에 열성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청년들이 모두 로력과 학습과 사상 수양에 열성을 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부 청년들은 로력을 기피하며 학습을 태공하며 자기의 사상 수양에 대하여 극히 무관심하다。 그들의 머리 속에는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낡은 도덕、 견해、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생산 직장내 일부 민청원들과 일부 로동 청년들 속에는 로동에 대한 비 자각적 태도와 국가 및 사회 재산에

대한 소홀한 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자기가 공장의 주인이라는 것을 옳게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일제 사대에 품팔이군처럼 관리 일꾼들이 보는 때에는 자기가 가장 열성스럽게 일하는체 하고 그들이 보지 않으면 일하지 않거나 일을 한다고 하여도 대강대강 눈치만 가리우려는 고용자적 관념들이 남아 있다。 일부 청년들은 또한 중요한 기계와 자재들을 애호 절약하지 않으며 지어 제품과 원료를 도적질 하여 사리 사복을 채우려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버릇이 남아 있으며 자기의 계획 과제를 달성하지 못하고도 큰 수치로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 농촌 청년들과 농민 청년들 속에는 아직도 국가와 혁명의 리익보다 자기 개인의 리익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개인 리기주의적 사상이 남아 있다。 례하면 농업 협동조합내의 일부 청년들 가운데는 조합의 일을 마치 남의 살림보듯이 하며 적게 일하고 로력 점수만 많이 받으려고 하며 조합 규률과 작업 질서를 위반하고 태공하는 현상들이 적지 않다。 또한 일부 농촌 청년들 가운데는 국가 량곡 수매 사업과 같은 중요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 사업에 잘 응하지 않으며 기타 국가 사회 사업에 대하여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일부 가두 민청원들과 청년들 중에는 일하기를 싫여하며 지어 기피하며 그러 저러 살아 보겠다는 부화하고 나태한 사상으로부터 로력하지 않고 수입을 얻으려고 하며 투기적 간상 행위를 감행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에게 손해를 주는 현상들과 도덕적으로 부화하며 국가 법을 위반하여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실들이 남아 있었다。

일부 학생 청년들 가운데는 부분적이나마 퇴페적인 부르죠아 문화를 숭배하는 사상들과 로동에 대한 회피와 나약성 또는 자고 자대하여 학습을 태만하는 경향들이 표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부 청년들 특히 학생들 가운데는 학교를 졸업한 후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고상한 의무와 영예로 생각할 대신 이를 경시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상의 제 사실들은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일부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정치 학습을 태공하며 자기 국가와 자기 인민에게 충실할 수 있는 맑쓰—레닌주의의 선진적 사상을 소유하며 혁명 의식을 제고할 데 대하여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지어 태공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또한 정치적 생활에 있어서와 생산 활동에 있어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들은 특히 낡은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의 이러 저러한 표현에 대한 일부 민청 단체들과 그 지도 일꾼들의 무 비판적 태도에 기인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소부르죠아적 사상의 온상이며 적대 사상이 침식할 수 있는 온상인 소상품 경리와 자본주의적 개인 상 기업이 현존하여 있는 사실과 특히 우리 나라가 아직 남북으로 량단되였으며 우리 나라 혁명이 간고성과 장기성을 띠고 있는 현 조건 하에서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매국 역도들이 온갖 부면에서 우리의 건설을 파괴하기 위하여 파괴、암해 분자들과 함께 우리의 내부에 썩어빠진 부르죠아 사상 독소를 계속 침입시키려 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일부 청년들 속에서 발로되고 있는 이러한 부정적 현상들을 도저히 묵과 용인하여서는 안된다。 만일 우리 청년들이 모두가 선진적 혁명 의식을 제고하지 않으며 적대적 계급의 사상과 날카롭게 투쟁하지 않고 그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 꾸준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부강하고 통일된 독립 국가를 건설하며 우리 인민들의 번영과 행복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우리 청년들 앞에 나서고 있는 중요하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즉 맑쓰—레닌





주의 혁명적 선진 리론을 소유함이 없이 낡은 사회에서 물려 받은 자본주의적 사상 의식 잔재들을 머리 속에서 청산함이 없이는 새 사회 건설에서의 우리 청년들 앞에 부과된 성스러운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 과업은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혁명 의식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 二、민청원들은 선진적 혁명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자체의 선진적 혁명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민청원들은 우선 맑쓰—레닌주의 사상과 리론을 소유하며 맑쓰—레닌주의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각 방면에서 정치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맑쓰—레닌주의 세계관은 우리로 하여금 자본주의 하에서 계급 투쟁의 본질과 자본주의—제국주의의 불가피적 멸망 및 사회주의—공산주의의 필연적 승리에 대한 사회 발전의 객관적 제 법칙을 옳게 인식할 수 있게 하며 인간은 과거 어떠한 길을 걸어 왔으며 현재 어떠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데를 향하여 나아가는가 하는 확고한 전망과 승리의 신심을 주며 객관적 법칙들에 적응하게 자기의 활동을 목적 지향성 있게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맑쓰—레닌주의 습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맑쓰—레닌주의를 독경식으로가 아니라 창조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는바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 나라 자체의 것을 많이 배워야 한다。

맑쓰—레닌주의 학설과 제 원칙을 우리 나라 발전의 각 계단에 있어서의 경제 형태들과 계급들의 호상 관계、오늘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수행 방도、혁명의 대상과 동력 또는 우리 청년들 앞에 제기되는 구체적 과업들과 실천 활동과 련관시켜 학습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나라가 어떠한 발전의 길을 걸어 왔으며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조선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자들은 어떠한 계급들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리해함으로써 계급적 원쑤들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들의 복리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을 핵심으로 한 근로자들이 가장 혁명적으로 싸울 수 있으며 또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리해하여야 한다。

우리는 맑쓰—레닌주의 학설과 제 원칙들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연구함으로써만이 확고한 계급적 립장에서 우리 나라의 혁명 문제와 정치 경제적 제 정세를 분석하고 우리 청년들 앞에 제기된 과업들과 실제 생활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해결할 수 있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는 「…맑쓰—레닌주의를 학습함에 있어서 그것을 통채로 삼키지 말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서재에서는 글을 기계적으로 암송시켰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하늘천 자를 따지 자 우에 붙여 놓아야 그 글자를 알지 다른 곳에다 붙여 놓으면 그 글자를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맑쓰주의를 학습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맑쓰주의 학설을 암송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리론적 내용과 본질을 체득하고 우리의 실생활에 적합하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라고 교시하였다。

맑쓰—레닌주의의 조선 현실에의 탁월한 적용의 모범은 김 일성 원수의 제 로작들이다。 우리 청년들은 김 일성 원수의 제 로작들과 우리 나라의 력사와 조선 인민의

지도적 및 고무적 력량인 로동당의 정책들을 꾸준하고 인내성 있게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특히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청년들의 선진적 혁명 의식은 실제 건설과 로동을 통하여 난관과의 투쟁에서 교양되고 세련되며 제고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가장 존경 받는 사람들은 조국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의식적이며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며 건설의 모든 방면에서 높은 생산 능률을 냄으로써 우리 나라 건설의 속도를 촉진시키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로동은 가장 영예로운 사업이며 용감하고 영웅적인 위업이다.

북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三차 대회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는 『청년들로 하여금 로동을 사랑하며 일을 즐겨하는 근로 정신으로 교양하며 일하기 싫어하는 일을 수치스러운 일로 알게 하며 로동을 영예롭고 신성한 일로 생각하며 각개 청년들로 하여금 그가 하는 로동이 적고 또한 어렵고 『어즈러운 일』이라고 하여도 그가 자기를 조국 건설의 위대한 부대의 일원으로 인정하며 자기 손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며 자기 조국을 재건하는 영예스러운 역군이라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교시하였다.

우리 청년들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사회적 소유를 눈동자와 같이 애호 절약하며, 국가와 혁명의 리익을 개인의 리익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생산의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준수하며 국가 법령을 의무적으로 집행하며 말과 일의 통일과 리론과 실천의 통일을 보장하는 동시에 로동을 기피하며 로동을 태만하는 그 어떠한 사소한 경향과도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청년들은 조국을 위한 경제 건설에서 모범적 선진 돌격 부대가 되며 자기의 창발력과 헌신성으로써 인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그들의 존경과 신임을 받도록 교양되고 훈련되여야 한다.

학생 청년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지 로동을 통하여 세련시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오늘 우리 나라 농촌은 선진 과학을 소유하고 새것을 추구하는 기질과 투지를 가진 청년들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많은 학생 청년들과 제대군인들이 자기 로력과 지식으로 농촌 경리 발전과 농촌의 문화 계몽 사업에 헌신할 결의로서 자기 향토인 농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과 헌신성의 산 표현인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들의 뒤를 따라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로력 전선에 적극 진출하는 것은 곧 로동에 대한 사회주의적 태도를 배양하며 선진적 혁명 의식으로 무장하며 새로운 인간으로 청년들을 장성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비판과 자기 비판은 선진적 혁명 의식 제고의 강력한 수단이다. 비판과 자기 비판을 두려워 하지 않으며 자기 사업의 과오와 결점을 덮어두지 않고 제때에 그것을 적발 시정하며 자기의 과오를 교훈으로 하여야 한다.

솔직하고 공개적이고 진실한 원칙적 비판과 자가 비판은 난관 극복의 용기와 새 힘을 길러 주며 자만 자족, 해이성과 안일성을 방지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되며 청년들의 정치적 및 생산적 적극성을 제고하는 강력한 무기로 된다.

때문에 비판과 자기 비판은 침체와 락후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결함을 퇴치하는데로 동원시키며 정치적 경각성을 제고시키며 청년들의 의무와 조국에 대한 책임감을





발양시킴으로써 우리의 전진 운동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한 장엄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이때 비판과 자기 비판의 의의는 실로 크다.

민청원들과 청년들 중에는 전쟁의 승리적 종결과 전후 시기에 달성한 거대한 성과에 도취하여 자만 자족하며 한편 다른 동무들의 결함을 적발하고도 비판으로 그를 불유쾌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 과오에 대한 자기 비판으로 자기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등 무 비판적 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적으로 날카롭지 못하고 암둔하게 경각성이 해이되고 국가 비밀을 루설하는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어 어떤 동무들은 세계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가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사실과 원쑤들이 공화국 북반부에 자기들의 앞잡이를 파송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흉악한 목적에로 일부 견실치 못한 분자들을 리용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우리는 보다 빨리 전진하며 인민 경제 건설의 장엄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항상 준비된 태세를 갖추고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달성한 성과에 도취하지 말고 난관들을 명확히 알아야 하며 사업에서의 결함들을 제때에 발견하고 그를 시정하는 유력한 무기인 비판과 자기 비판을 옳게 하여야 한다. 비판과 자기 비판을 통한 날카로운 사상 투쟁—이는 혁명적 선진 의식 제고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방조로 된다.

민청원들의 선진적 혁명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있어서 민청 단체들 앞에 제기되는 중요 임무는 이들의 정치 학습에 대한 지도 방법을 개선하며 발전시키는데 있다.

지난 기간 일부 민청 단체들의 정치 교양 사업 지도는 다수 경우에 있어서 대상들의 정치 리론 수준과 문화 수준, 생활 감정과 정서 및 구체적인 요구를 세밀하게 타산하지 않고 어려운 술어와 명제들을 라렬하여 대상들이 알아 듣거나 못 듣거나를 불문하고 덮어 놓고 내리 먹이며 불필요한 년대와 문구와 명제들을 교리적으로 암송시키려는 관료주의적이며 형식적인 것이였다. 따라서 이러한 유해한 지도 방법을 시급히 시정하고 사상 교양 사업의 질을 현저히 제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청년들의 맑쓰—레닌주의 사상 수양을 강화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당과 정부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철저하게 해석 침투시킬 수 있다. 일부 민청 단체들과 그 지도 일군들과 같이 사상 사업을 홀시하고 하지 않거나 또는 단꺼번에 진행하려는 시기적 사업으로 대처하는 경향들을 시정하며 이에 대한 일상적이며 계통적인 지도와 검열을 조직 진행하며 우수한 경험들을 제때에 발견하여 일반화하며 결함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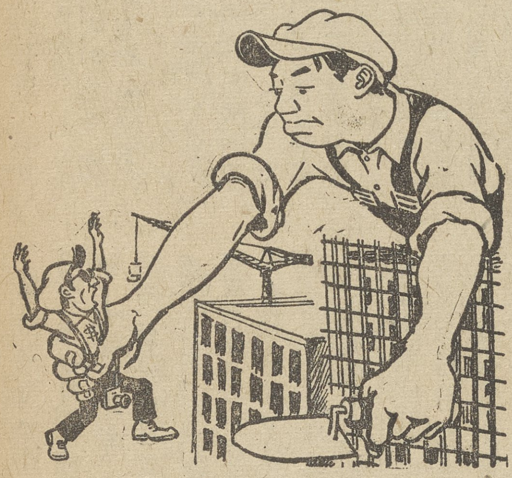
더우기 각급 민청 단체들은 현 계단에 있어서 사상 사업의 총적 임무를 규정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을 광범한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 침투시키기 위한 사업을 당면 가장 긴요하고 책임적인 과업으로 인정하고 그에 가능한 온갖 력량을 집결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청 단체들의 사상 사업에서 일체 형식주의를 철저하게 퇴치하여야 할 것이다.

# 언제어데서나 경각성!



오늘 조선 인민들은 로동당의 령도하에 조국의 통일 독립의 담보인 혁명적 민주 기지를 일층 강화하며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로력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의 성과가 크면 클수록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역도들은 점점 더 초조를 느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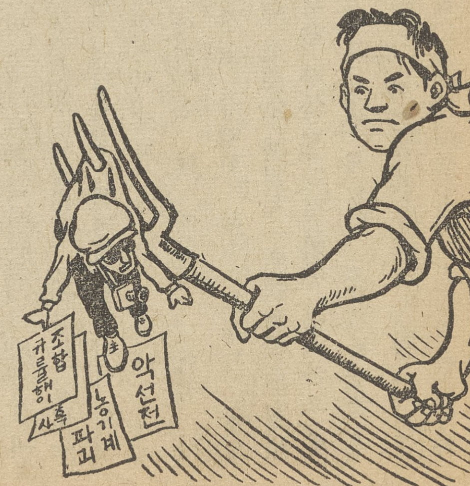


## 공장, 건설장에서

원쑤들이 파견하는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은 기본 건설장에 잠입하여 설계를 고의적으로 틀리게 작성하며, 오작 시공을 하며, 신입 로동자들 속에서 악선동을 하여 로동 규률을 문란히 하거나 물자를 랑비하게 하여 공사의 진척을 방해한다.

생산 직장에서는 기계 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사고를 일으키며 오작품과 파손품을 내려고 시도하며 일부 근로자들의 경각성이 해이되고 규률과 질서가 문란한 틈을 타서 파괴 행동을 하려 한다.

매개 로동 청년들은 직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것을 『있을 수 있는 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끝까지 밝혀 내며 규률과 질서를 잘 지키며 기계의 인계 인수, 자재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농촌에서

농촌에 잠입한 적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은 농민들 속에서 당과 정부의 정책을 외곡 반대하는 악선동을 하며 협동 조합내의 견실치 못한 자를 사촉하여 조합으로부터 탈퇴케 하려 하며 축우와 농기구를 혹사 파손케 하며 일부 락후한 농민들을 리용하여 조합 규률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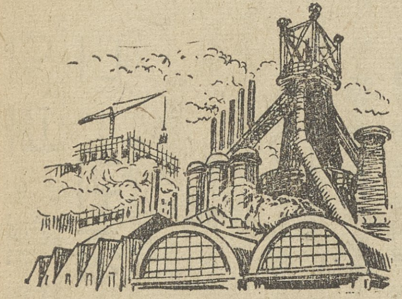
농기계 임경소와 우마 임경소에 잠입한 간첩, 파괴 분자는 뜨락또르, 역마, 역우를 혹사하며 농민들과의 계약을 고의적으로 리행하지 않거나 작업을 무질서하게 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일으켜 당과 정부로부터 인민을 리탈시키려 한다.

농촌 청년들은 항상 조합의 규약을 잘 지키며 당과 정부의 시책들을 잘 학습하고 또 농민들에게 선전하는데 모범이 되여야 한다.



우리의 건설을 파괴하려고 온갖 악랄한 파괴 암해 공작을 꾀하고 있다.

민청원들과 전체 청년들은 언제 어데서나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여 반간첩투쟁의 초소에서서 적들의 파괴 암해 책동을 제때에 폭로 분쇄하여야 한다.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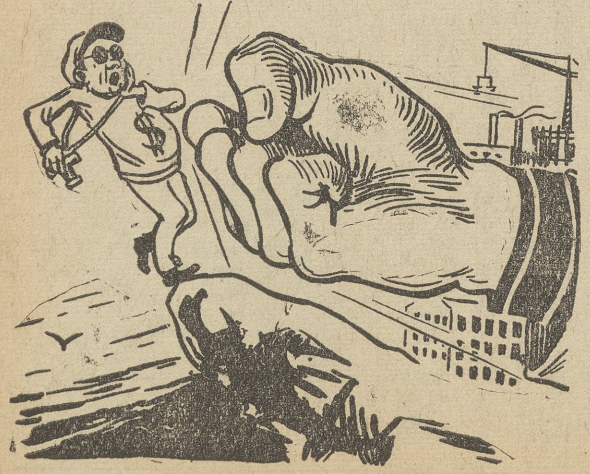
적의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은 국가적 군사적 비밀을 탐지하기 위하여 규률이 문란한 직장, 기관들에 드나들며 군중이 많이 모인 곳, 혼잡한 곳 또한 경각성이 해이되고 입이 가벼운 사람들의 뒤꼬리를 따라 다니면서 문건 절취, 휴지 수집 등을 하려 한다.

청년들은 언제 어데서나 국가 군사 기밀을 엄수하며 『이것은 비밀인데 동무만 알고 있으라구』라고 하면서 가족과 친우에게 기밀을 루설하는 일을 근절하며 직장의 규률을 잘 지키며 기밀 문건의 보관을 철저히 하며 직장 보위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적들이 발 붙일 틈을주지 말라!

원쑤들은 사상적으로 견실치 못한 동요 분자들 파 과거의 생활이 깨끗치 못한 자, 탐오, 랑비 분자, 음주 방탕하는 자, 불평 불만 분자, 개인 리기주의 자, 안일한 자, 아첨 분자들을 자기들의 간첩, 파괴 공작에 리용하려고 시도한다.

청년들은 일체 부화하고 락후한 현싱들과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반대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며 적들이 발 붙일 곳과 적들이 활동할 수 있는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 당과 혁명의 리익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공화국 영웅 최 만 복

一九三八년의 이야기이다.

날로 장성 강화되는 항일 빨찌산 부대들의 투쟁에 당황한 일제는 관동군을 출동시켜 빨찌산 근거지인 장백지구에 대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이 때 김 일성 원수께서는 대 게리라 작전을 진행하면서 몸소 조선 인민 혁명군을 지휘하여 빨찌산 부대를 전략적으로 몽강 지구로 이동시켰다.

그 때 부상 당한 五、六명의 대원들이 혜샤즈거우 밀림 속 한 병원에 남아 있었다. 그 해 一월 어느 날 아침에 중상병들에게 무서운 불행이 닥쳐 왔다. 적들은 대포와 대 병력을 동원하여 병원을 습격한 후 병원을 불살으고 환자들을 강제로 끌어 갔다.

원쑤들에게 포로된 중환자들 중에는 스물 두셋 나는 선전대원으로 공작하다가 행군 중에 벼랑에서 미끌어 떨어져 부상 당한 영리하고도 호담한 김 계순이란 녀 대원이 있었다. 적들은 남 대원들에게서는 아무런 비밀도 알아낼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장백현 성내에서 총살하였으며 김 계순을 리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기만과 위협과 회유의 방법도 김 계순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다.

그 때 이 녀대원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군중들 앞에 나타나 인민들 속에 조선 인민의 혁명 세력은 살아 있으며 그 승리는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결심하였다. 그의 뜻은 이루어졌다.

장백현 소 학교 운동장에 모인 수천명의 군중 앞에 나선 이 애국자는 군중들을 향하여 조선 혁명의 승리에 대하여、일제를 타도할 데 대하여、빨찌산 운동을 원호할 데 대하여 인민의 혁명 의식을 북돋아 주는 감격스러운 선동을 하였다. 조선 인민의 우수한 딸 김 계순은 드디여 군중들 앞에서 원쑤의 흉탄을 안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이 얼마나 고상한 혁명 정신이며 영웅적 기개인가!

애국 렬사 김 계순의 영웅적 형상과 그의 혁명 정신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 젊은 빨찌산 대원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혁명 정신과 영웅적 기개를 발휘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충성、조국의 영예와





자유、인민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고상한 지향이였다.

『혁명을 위하여、조국 광복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우시요!』라고 하신 김 일성 원수의 말씀이 애국자 김 계순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되여 있었으며 그는 수령의 교시대로 행동하였던 것이다.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 대원들은 조국과 혁명의 리익을 자기들의 제일 생명으로 최고의 목적으로 철저히 인식하고 개인의 모든 힘과 생명까지도 그것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쳐 싸웠다. 바로 이와 같은 고상한 목적이 항일 빨찌산 대원들로 하여금 천고의 밀림과 장백산의 바위틈과 암굴 속에서 살며、살과 뼈를 에여내는 혹한과 굶주림을 극복하면서 「정예」를 자랑하던 일제 관동군 및 조선 강점군과의 혈전에서 항상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하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게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 앞에 내세운 목적이 고상하면 할수록 그는 기적과 같은 힘을 나타낼 수 있으며 조국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싸우는 혁명적 애국 투사들에게는 극복 못할 난관과 돌파 못할 요새가 없다. 이와 반대로 숭고한 목적이 없고 보잘 것 없는 사리 사욕에 가슴을 앓는 소인에게는 사업에서의 신념이 있을 수 없으며 때문에 비겁하고 난관 앞에서 굴복하며 도피하는 것이다.

우리 인민과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당과 혁명의 리익이다. 이것 보다 더 높고 귀중한 것은 없다.

조선 인민의 력사에 있어서 조국과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가장 열렬하고 헌신적으로 싸운 모범을 우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혁명적 활동에서 우러러 보고 있다. 때문에 전체 조선 청년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혁명적 활동의 력사를 성실하게 배우고 있으며 그의 모범을 따르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운 생활 목표로 삼고 있다.

× × ×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교양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자랑스러운 애국자의 젊은 세대들이 자라고 있다.

당과 수령은 우리 나라 청년들의 생활과 교육과 발전에 대하여 육친과 같이 따뜻하고 두터운 배려를 돌려 주고 있다. 우리 나라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자기들의 행복한 생활과 광명한 장래를 당과 수령의 이름과 밀접히 결부시키고 있으며 당의 령도 속에서 살며 일하며 배우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로동당은 조선 근로 대중의 선진적 부대로써 그의 정책은 조선 인민의 근본적 리익을 반영하고 있다.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나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있어서나 오늘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에 있어서 조선 인민의 모든 승리는 로동당의 정확한 정책과 그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때문에 전체 조선 청년들은 로동당의 정책을 자기의 최고의 투쟁 목표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웠으며 또 싸우고 있다.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의 교양에 의하여 육성 단련된 우리 나라 청년들 가운데는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젊은 청춘의 모든 힘과 정력과 생명을 바쳐 싸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누구든지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 전람 회관에 들어가면 피에 무젖고 탄환과 파편에 찢겨진 당증과 민청 맹

원쑤 그리고 김 일성 원수의 초상과 『승리를 위하여 앞으로!』란 구호가 금색실로 수놓아져 있는 민청 『모범 깃발』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된다. 여기에서는 누구의 설명도 필요없다. 그것은 이 깃발의 주인공들인 三三九고지 젊은 근위병들의 피의 흔적이 아롱지고 있는 이 깃발 자체가 당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발휘한 숭고한 정신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一九五三년 七월 박 용선 동지가 지휘하던 인민군 구분대에게는 三三九고지에 집결되여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적들을 섬멸하고 이 고지를 점령할 영광스러운 전투 임무가 하달되였다.

구분대 민청 초급 단체 총회에서는 이 고지를 탈취하고 고지 우에 공화국 깃발과 함께 민청 『모범 깃발』을 꽂을 전투 임무를 결정하였다.

얼마 후에 지휘부의 공격 신호는 울렸다. 민청원 습격조원들은 어둠 속을 뚫고 포복 전진을 개시하였다. 원쑤들은 미친듯이 포화를 퍼부었다. 민청 『모범 깃발』의 첫 기수가 적탄에 마저 쓰러졌다. 깃발은 둘째 기수의 손으로 넘어갔다. 희생된 둘째 기수에게서 다시 세째 기수에게…… 마지막으로 송 형주 전사에게 넘어갔다. 위험과 난관은 중첩하였으며 희생자가 계속 나왔다. 그러나 젊은 근위병들은 끝까지 용감하였다. 증원 부대가 도착하자 용기 백배한 젊은 용사들은 고지 우에 공화국기와 함께 민청 『모범 깃발』을 휘날렸으며 승리의 만세 소리가 고지를 진동하였다. 습격 조원들은 당과 수령 앞에 다진 굳은 맹세를 끝까지 충직하게 실행하였다.

조선 청년들은 누구나가 가렬하였던 三五一고지 전투를 기억하고 있다.

이 전투에서 배출된 영웅들 중에는 적탄에 두 다리를 잃고도 출혈과 아픔을 이겨 가면서 적병 二개 중대를 수류탄으로 쓰러 눕인 박 현종 영웅과 두 눈을 부상당하고도 굴함이 없이 『내 눈 앞에는 발악하는 원쑤들이 보인다! 나를 돌격전으로 내보내 달라!』고 하면서 자원 돌격 전투에 참가하여 돌격의 명수로 이름을 높인 리 상춘 영웅, 적의 폭탄에 七차나 부상 당하여 정신을 잃으면서도 이 고지 우에 공화국기를 꽂아 놓음으로써 전투 임무를 훌륭하게 실행한 나어린 리 정수 영웅들이 있다.

이처럼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이야기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우리 세대들 뿐 아니라 기리기리 조선 인민들 속에 전해져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이며 청년들의 애국주의의 모범으로 될 것이다.

오늘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기초를 건설하는 투쟁에 있어서 남녀 청년들은 무한한 애국적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로력 위훈을 세우고 있다. 이것은 곧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바치는 청년들의 공헌이다. 전투에서 큰 공적을 세우거나 탁월한 발명을 한다거나 높은 지위에서 일하는 것만이 당과 혁명의 리익에 기여하는 길은 아니다.

전원에서 식량 증산을 위해 땀을 흘리는 것도, 용광로 앞에서 일하는 것도, 수천척의 지하에서 석탄을 캐 내는 것도, 산울림 울리며 목재를 베 내는 일도 모두 다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한 영예로운 일들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창조적이며 자각적인 로동보다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청년들 마다 자기 일터에서 증산과 절약에 노력하는





것—이것이 곧 당과 혁명의 리익에 기여하는 공헌이다.

누가 땀을 더 많이 흘리며 조국에 더 많은 생산품을 주며 애로와 난관 앞에서 굴하지 않고 싸우는가 하는 그것이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심의 척도로 된다.

금년도에 고중을 졸업한 한 석영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처음에 공업 대학을 희망했고 그 다음엔 농업 대학을 희망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였다. 그것은 우리의 리상은 언제나 구체적 현실과 결부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당과 정부는 지금 농촌에로 젊은 지식인들을 부르고 있지 않는가! 나는 앞으로 농업 협동 조합에서 일하면서 배우며 또 배우면서 일할 것이다. …』 한개 평범한 청년의 이 말 속에서 우리들은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 먼저 혁명과 당의 리익을 생각하며 개인의 리익을 집단의 리익에 복종시키는 아름다운 품성을 알게 된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전변이 일어나고 있다. 대 공장이 일어 서며 생산의 개가를 울리는 기계 소리가 울린다. 폐허 속에서 도시와 마을이 일어 서고 있다. 농촌은 협동 경리의 새 생활에 들어 서고 있으며 전야에서는 뜨락또르의 엔징 소리가 울리고 있다. 자연을 개조하는 거대한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다.

조국은 우리들에게 행복한 앞 날을 약속하면서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하고 있다. 인민들과 함께 청년들의 로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전진은 더 빠를 것이며 우리 인민의 행복도 더 클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일부 청년들 가운데는 당과 혁명의 리익보다 자기 개인의 리익을 앞에 내 세우며 집단보다 개인을 먼저 생각하며 어려운 일 앞에서는 도피하며 자기 일에 충실치 못한 현상들도 있다.

이것은 아직 일부 청년들의 계급적 의식이 미약한 때문이다. 민청은 청년들 속에서 계급적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하여 그들을 열렬한 애국 투사로 모든 것을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바치는 고상한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지금 건설되는 조국은 청년들을 부르고 있다. 공장, 광산, 탄광, 림산 직장들이 젊은 돌격대원들을 부르고 있으며 농촌이 청년들을 부르고 있다.

참으로 우리 나라 청춘들에 대한 당과 수령의 신임은 무한히 두텁고 기대는 자못 크다. 조선 청년들의 생활은 그 얼마나 보람차고 장래는 그 얼마나 광명 찬란한 것이냐!

청춘의 무진장한 전투력과 창발성을 다하여 더 충실히 일하자! 창조하자! 배우자!

나는 우리 청년들이 사랑하는 니꼴라이 오쓰뜨롭쓰끼의 말을 인용하여 이 글의 결론을 삼으려 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은 삶이다. 삶은 인간에게 한번 밖에 더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 삶을 무의미하게 지낸 탓으로 뼈 아픈 후회를 느끼지 않도록 살아야 하며 죽으면서도 자기의 전 생애와 힘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위업 즉 인류 해방에 바쳤다고 말할 수 있게 살아야 한다』。

# 술어해설

## 령도적 계급

령도적 계급이란 사회 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노는 계급을 말한다。자본주의적 착취 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혁명 투쟁에서 령도적 계급은 근로 농민을 비롯한 기타 피압박 계급들을 동맹자로 하여 혁명을 령도하는 가장 선진적 계급인 로동 계급이다。로동 계급은 그의 계급적 처지로 보아 사회에서 가장 혁명적 계급이다。혁명 수행에서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은 그의 전위대인 혁명적 맑쓰—레닌주의 당의 지도 하에 진행된다。

우리 나라의 령도적 계급인 로동 계급은 벌써 八·一五 해방 전에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서 그의 령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오늘 조선 로동당의 지도 하에 미제 침략 세력과 리승만 역도를 타도하고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을 달성하며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농민과의 튼튼한 동맹하에 각계 각층의 민주 력량을 자기 주위에 집결하여 우리 혁명을 촉진시키는 결정적 력량으로 되고 있다。

## 출세주의

출세주의란 자기 사업은 열성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지위 욕에 눈이 어두워 군중이야 어떻게 되든지간에 자기 개인의 리익과 출세를 위하여 모든 사업을 복종시키는 관료주의의 한 표현 형태이다。출세주의자들은 자기의 공명과 출세를 위하여서는 하지 않은 일도 하였다고 상부에 거짓 보고하며 모든 일에서 자기의『재능』과『지혜』를 뽐내려고 하며 상부에는 아첨하고 하부에 대하여서는 억압한다。이 작풍은 당과 군중을 리탈시키는 반 인민적 사업 작풍이다。

## 사회주의적 인도주의

인도주의란 말은 원래 라전어『휴마니스』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인간적이라는 뜻이다。

사회주의적 인도주의는 전 인류의 행복과 자기 조국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인민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로인과 아동들에게 극진한 배려를 돌리며 동지들 간에 호상 방조하며 또한 착취자들과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적들을 증오하며 그들을 반대하여 무자비하게 투쟁하는 공산주의 도덕의 한 특정이다。사회주의적 인도주의는 사람들의 개성과 인격을 돈으로 매수하며 그들을 야수적으로 착취억압하는 부르죠아지의 허위적 인도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 독경주의

독경주의란 글의 내용과 뜻을 리해하지 않고 마치 중이 경을 읽듯이 덮어 놓고 외우는 그릇된 학습 태도를 말한다。이러한 독경주의적 학습은 어떠한 명제들만 많이 알아도 그것을 실제 생활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줄 모르므로 아무 소용도 없다。

## 고용자적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란 착취 제도 하에서 피착취 근로 인민들이 자본가와 지주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받으면서 고용살이 하던 습성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낡은 사상 잔재인바 그것은 첫째로 자기 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비열성적으로 무책임하게 사업하는데서 나타나며 둘째로 우에 앉은 사람의 지시라면 그것이 옳던지 그르던지 덮어놓고 맹종맹동하며 사업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데서 표현된다。

이러한 고용살이 근성은 오늘 인민의 리익을 위한 우리의 혁명 사업에 적지 않은 해독을 끼치고 있다。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과 견결히 투쟁하며 언제 어데서나 자기 자신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사업하여야 한다。

## 계급 분화

계급 분화란 사회의 일정한 한 개 계급이 사회가 발전하여 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계급으로 갈려져 가는 것을 말한다。

계급적 분화가 가장 심한 계급은 소부르죠아지 특히 농민이다。농민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지주와 부농들의 혹심한 착취로 말미암아 대부분이 빈농민으로 또는 고용 농민으로 되여가고 그중의 아주 소수만이 부농으로 되는 것이다。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농민들은 개인농으로 남아있는 한 계급 분화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토지 개혁이 실시되였고 농민들에 대한 당과 정부의 두터운 배려가 돌려지므로 농민들의 계급 분화는 전연 다른 방향에서 진행된다。즉 자본주의 사회와는 반대로 농민의 대다수는 부유한 중농으로 되며 극히 소수만이 빈농으로 남아 있게 된다。이와 반면에 극히 소수는 부농으로 되여서 빈농민을 착취한다。



이와 같은 소부르죠아지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지 않는 한 계급적 분화는 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착취를 완전히 없애며 전체 인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없는 것이다。

## 집단주의

집단주의란 집단 속에서 살며 집단 속에서 일하면서 자기 개인의 리익과 사회의 리익을 밀접히 결부시키며 집단의 행복과 리익에서 개인의 행복과 리익의 담보를 보는 고상한 프로레타리아적 도덕 품성의 하나이다。

개인 리기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이나 사회의 리익은 조금도 돌보지 않고 자기 개인의 리익만 추구한다。

그러나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매개 인민이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자기 혼자서가 아니라 전체 집단적으로 생활을 건설하며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책임지며 전체는 개인을 위하여 책임진다。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근로자들이 항상 자기 자신과 사회를 위하여 일하며 동지 간에 호상 협조하고 방조하며 필요한 때에는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개인의 리익까지도 희생하는 고상한 도덕적 품성이 흘러 나온다。

## 생산력

인간이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물질적 부(식료、의복、신발、주택、연료 등)을 생산하여야 한다。이러한 물질적 부를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생산 도구와 일정한 생산 경험과 기능에 의하여 그 생산 도구를 운영하며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이 모든 요소를 종합한 것이 생산력을 이룬다。여기에서 근로 대중은 사회의 기본적 생산력이다。사회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생산에 현대적 기계를 도입하며 근로자들이 기술을 소유하며 창조적 열성과 적극성을 발휘하여야 한다。이것이 서로 결합되지 않고서는 높은 생산력을 보장할 수 없다

## 탐오

탐오란 욕심이 많고 행동이 더러운 것을 의미하는바 자기의 직무상 위치를 리용하여 자기 개인의 향락과 리기를 위하여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좀먹는 더러운 행위를 말한다。탐오는 낡은 사회에 고유한 본성이다。그러므로 인민 자신이 국가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탐오 행위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 혁명

혁명(사회 혁명을 말함)이란 그 사회의 선진적 계급이 폭력에 의하여 낡은 사회 경제 제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 경제 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혁명의 성격은 그 혁명이 어떠한 모순을 해결하며 어떠한 과업을 수행할 사명을 가지는가、다시 말하면 그 혁명이 어떠한 생산 관계를 청산하고 어떠한 생산 관계를 수립할 사명을 가지는가에 따라 규정된다。례를 들면 봉건적 생산 관계를 청산할 사명을 가진 혁명은 그 성격상 부르죠아 혁명이며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수립할 사명을 가진 혁명은 그 성격상 사회주의 혁명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

일반적 지도란 혁명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중들에게 그 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해설하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원칙들을 제시하며 사업의 중심 방향과 기본 대책들을 명시하여 줌으로써 대중들을 그 사업 실천에로 동원하는 일반적 호소와 지도를 말한다。

만일 혁명 사업을 지도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도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대중들에게 그 혁명의 목적과 의의를 알릴 수 없으며 혁명 사업에서 통일적 지도를 보장할 수 없으며 대중들을 그 사업 실천에 동원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의 성과는 일반적 지도만으로는 기대할 수 없으며 그것은 반드시 개별적 지도와 결합되여야 한다。

개별적 지도란 어떤 사업을 실천함에 있어서 구체적 조건과 대중의 의식 수준、준비 정도를 충분히 연구한 기초 우에서 그의 특수적 조건에 적합한 구체적인 실천 대책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실례로 민청 중앙 위원회에서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자급비료 증산 경쟁 운동을 조직 전개할 데 대한 결정이 내려 왔다면 이 경쟁 운동의 목적과 의의와 내용과 일반적 경쟁 방법을 청년들 속에 잘 해석 침투시키는 동시에 자기 지방의 실정들을 타산한 기초 우에서 구체적 집행 대책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 물의 이야기

—사람의 몸에 있는 물

고 사 기 (중국)

### 사람의 몸에 있는 물은 얼마나 되는가

사람의 몸에 있는 물은
체중의 三분의 二를 차지 한다네
체중이 七〇키로 되는
사람의 몸에 있는 물은
四六릿터나 된다네 (주一)
사람의 몸에 있는 물은
세층으로 나눌 수 있다네
첫층 큰 물 상자는
혈관 물 상자
여기는 三릿터의 물이 있고
둘째층 큰 물 상자는
중간 물 상자 (주二)
여기는 一四릿터의 물이 있고
세째층 큰 물 상자는
세포 물 상자
여기는 二九릿터의 물이 있다네

### 사람의 몸에 있는 물의 작용

물은 사람의 몸을
조직하는 구성 부분
사람의 몸에 흐르는
액체의 주요 성분이라네
그는 장강(腸腔)으로부터
혈관에 흘러 들고
또 혈관으로부터
세포에 스며 들고
흘러 가고 흘러 오고
뛰여 들고 뛰여 간다네
사람의 몸에 있는 물의 임무는
첫째 영양을 나르고
둘째 페물을 배설하고
세째 몸의 열을 산포하고
네째 체온을 보지하고
다섯째 신진 대사를 촉진하고
여섯째 인체 내부의 마찰을 방지한다네

### 사람의 몸에 있는 물의 수입과 지출

사람의 몸에 있는 물은
국가의 재정과 같다네
수입이 있고
지출도 있다네

수입 방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一、八〇〇립방 센치메터로부터 (주三)
二、一〇〇립방 센치메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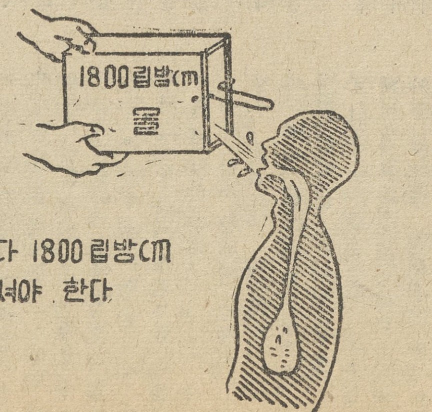
그 밖에
우리가 먹는
청채와 수박 속에도
백분의 九〇의 물이
포함되여 있다네
보통 고체 식물 속에도
물은 적어도
백분의 五〇 이상은 된다네
음식이 소화되고 흡수되여
단백질、사탕과 지방이 산화될 때도
물이 생긴다네
보통 매끼 마다에
三〇〇립방 센치메터의
물을 얻게 된다네

지출 방면에서
사람의 몸에 있는
물의 백분의 二八은
피부로 나가고
백분의 二〇은
호흡할 때 나가고
백분의 五〇은
신장으로 나가고
남은 백분의 二는
대변과 기타 분비물로 나간다네
피부와 호흡 기관으로 나가는 물은
항상 같다네
신장과 땀 구멍으로 나가는 물은
항상 변한다네
매일 스물 네시간 동안에
체중이 七〇키로되는 사람의
오줌은 적어도
六백립방 센치메터는 되고
때로는 두 릿터도 되며
땀은 적어도
五〇립방 센치메터는 되고
때로는 네 릿터나 된다네

땀이 많이 흐르면
물의 지출이 많아지고
대량의 물 보충이 수요된다네
인도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열세 릿터 남짓한
물을 마신다네
화로 옆에 있는 로동자와
열이 높은 병자는
모두 많은 땀을 흘린다네
땀을 지나치게 흘린 사람은
물의 지출이 많고
소금의 손실도 많다네
이런 정황 밑에서는
소금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네

물을 마시면
하루 종일 굶어도
견디여 낼수 있다네
물을 마시지 않고는
목이 마르고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오줌이 적어 진다네
평상시의 온도와 습도에서
一八일만 물을 안 마시면
살지 못한다네
공기가 몹씨 건조 한데서와
강렬한 햇빛 아래서
二—三일 동안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보지하기 어렵다네

주一…一릿터는 五•五四四홉(合)
주二…세포와 혈관 사이의 공간에는 적지 않은 물이 있다。중간 물 상자는 이것을 가리킨다。
주三…一립방 센치메터는 〇•五五四四작(勺)




우리는 날마다 1800립방cm의 물을 마셔야 한다



# 가축 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

## — 가축사료에 대하여 —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양되고 있는 가축인 소와 돼지 사료에 대한 합리적 리용과 그 조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가축 사료라 함은 보통 청사료, 조사료, 다즙 사료, 농후 사료 및 광물질 사료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1、청 사료

청 사료에는 야생 목초, 배추, 무우 잎, 청애 옥수수와 콩, 클로바, 류산 및 가라지, 갈, 청애 기장, 핏짚 등이 있다.

청 사료는 전체 사료면에서 볼 때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며 가축들에 필요한 단백질, 지방, 광물질, 비타민 등의 영양 물질이 풍부히 들어 있다.

신선한 청초는 즙이 많고 연하고 냄새가 향기롭기 때문에 소나 돼지가 잘 먹으며 또 잘 소화된다. 청초에 들어 있는 유기 물질을 소는 七五—八五%, 돼지는 四〇—五〇%까지 소화한다.

청초를 가장 효과 있게 리용하려면 소나 돼지를 방목지에 자유로 방목시키는 것이 좋다. 방목지를 리용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방목지의 풀이 적어도 一〇—一五센치메터 가량 자랐을 때에 방목을 시작하되 한곳에 너무 오랫 동안 방목하지 말고 며칠씩 장소를 바꾸어 가며 방목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한 방목지에 오래 계속하여 방목하게 되면 풀을 뿌리채 뽑아 먹거나 또한 방목지를 지나치게 밟아서 다음 방목시기에 다시 리용하기 곤난할 뿐만 아니라 기생충이 들어가기 쉬우며 전염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소, 돼지 등의 사료로 여름 철에는 거의 야생 청초를 리용하고 있다.

야생 청초를 사료로 리용함에 있어서는 신선한 것을 그대로 먹이는 것이 좋다. 만일에 청초를 삶아서 먹이면 그 속에 들어 있는 영양분 특히 비타민이 없어지고 사료로서의 가치가 아주 낮아진다. 그러나 약간 데쳐서 먹일 수는 있다.

소나 돼지에게 청초를 주는데 주의할 것은 습한 곳에서 자라나는 풀은 대체로 기생충이나 기타 병균들이 전염되기 쉬운 까닭에 될수록 먹이지 말아야 하며 아침 이슬을 맞은 풀, 서리 맞은 풀, 비온 직후의 풀 등도 될수록 먹이지 말고 이슬이나 서리가 진다음에 먹이는 것이 좋다. 또한 오랫 동안 쌓아둔 청초는 변질하기 쉽기 때문에 변질된 것은 먹이지 말아야 한다.

청 사료는 큰 소에게는 하루에 四〇—五〇키로그람, 큰 돼지에게는 一〇키로그람까지 줄 수 있다. 영양분을 고루 보장하며 식욕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화본과 청초와 두과 청초를 섞어서 주는 것이 좋다. 두과 청초는 하루에 주는 청초 사료 총량 중의 四〇%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에 소에게 두과에 속하는 청초만 주든가 그 량을 지나치게 많이 줄 때에는 고창증을 일으켜 심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다. 클로바, 청애콩, 루산 등과 같은 순 두과 청초는 소에게 하루에 二五—三〇키로그람 이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야생 청초 중에서 능쟁이, 길장구, 도토리, 달리깨비, 고만디, 메싹, 박주가리, 월견초, 멥싸리, 문들레 및 멀구 넝쿨, 살구 나무 잎, 싸리 잎, 솔잎 등은 돼지 사료로서 적당하다. 이러한 야생 청초를 채취하여 보통 큰 돼지에게는 하루에 五—一〇키로그람 정도로 주는 동시에 약간의 골분, 식염, 목탄 가루 등을 섞어 주면 좋다.

### 2、조 사료

조사료에는 벼, 조, 옥수수, 기장, 피, 밀, 보리 등의 짚들과 겨 및 건초, 콩, 팥, 녹두 등의 껍질, 북데기, 고구마 넝쿨, 나



무 가지와 잎을 따서 말린 지엽 사료 등이 있다.

조사료는 동기 가축 사료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통 조사료는 량적으로 많고 영양 가치도 적당히 포함되여 있다. 만약 우리들이 조사료를 잘 조리한다면 그의 맛을 돋구어 주게 될뿐 아니라 소화률이나 영양 가치를 더욱 제고시킬 수 있다.

조사료 중 건초는 특히 겨울에 소, 돼지의 사료로서 영양 가치가 비교적 높은 사료이다. 청초는 일반적으로 꽃이 피기 직전과 꽃이 핀 때에 영양분이 가장 많이 축적되여 있다. 이때에 베여서 잘 말리운 건초는 단백질이 九·七%, 회분이 六·二%, 섬유질이 二六·二%에 달하며 그의 소화률은 유기 물질이 六一—七九%, 단백질이 六〇—七三%이며 섬유질은 六三—八〇%에 달하며 비타민도 다소 포함되여 있다.

건초는 보통 특별한 가공이 없이 생것으로 소에게 먹이는 것이 영양 가치가 많다. 만일에 건초를 삶아 먹인다면 그 속에 들어 있는 단백질, 광물질, 비타민, 기타 영양 물질이 없어지게 된다. 다만 돼지 사료로 줄 때에는 짧게 부스러뜨려서 하루에 三—四키로그람 정도씩 다른 사료와 섞어 먹여야 하며 소에게 줄 때에는 줄기가 굳은 것은 五—一〇센치메터 길이로 잘라서 삶은 곡초 사료에 섞어 먹여야 한다.

조사료로서의 곡초는 건초 보다 섬유가 굳고 영양 가치도 적기 때문에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않으면 소화률이 적어지고 영양 가치도 낮아진다.

현재 우리 나라 농촌의 실정으로 비추어 볼 때 겨울 동안에 곡초는 소의 주되는 사료로서 대개 산간 지대에서는 조짚, 옥수수 짚, 보릿짚 및 콩, 팥 껍질 등이며 평야 지대에서는 볏짚, 옥수수 짚, 조짚, 밀짚 및 콩 껍질 등을 섞어 썰어 삶아서 먹이고 있다. 이렇게 잘 조리도 하지 않으며 여러가지 사료를 섞어 먹이지 않고 단일한 곡초만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소의 증식률이 낮고 육류 및 젖소에 있어서 우유의 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몹씨 여위어 부리기 어려운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을 없애고 곡초 사료의 가장 효과적인 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리 방법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곡초의 억센 줄기는 반드시 三—五센치메터의 길이로 짧게 썰어 잘 삶아서 다른 마른 사료와 섞어 소에게 먹여야 한다. 썰은 곡초의 맛을 돋구어 소로 하여금 즐겨 먹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소금 물 또는 쎌로쓰 액즙으로 추기여 주거나 밀기울, 대두박, 물에다 불쿤 콩 같은 것을 부스러뜨린 다음 섞어서 주든가 쎌로쓰나 말리운 배추나 무우 잎, 고구마 넝쿨 및 기타 건초와 잘 섞어서 줄 것이다.

또한 거칠고 억센 조사료를 연하게 하고 잘 소화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는 곡초의 온탕 처리, 석회 처리, 잿물 처리 등이 있다.

우선 곡초의 온탕 처리 방법은 가마니나 거적 같은 것을 깔고 그 우에 센 곡초를 쌓아놓고 사료 중량의 절반쯤 되는 섭씨 七〇—八〇도의 더운 물을 물기로 뿌려주고 그 우에 다시 가마니 같은 것을 덮어 一〇—一二시간 지난 후 사료로 소에게 먹이면 된다. 이 때에 一% 정도의 식염을 더운 물에 타 섞어주면 더욱 좋다.

다음으로 조사료의 석회 처리 방법은 곡초를 길이 三—五센치메터로 썰고 一%의 석회 용액(물 四두에 한키로그람의 생석회를 푼다)에 썬 곡초 四〇키로그람 정도를 五—一〇분간 담군 후 끌어내여 좀 경사지에 놓은 널판자 우에 쌓아 약 三시간 동안 물을 찌운 다음 전호 모양으로 판 구뎅이(주위의 벽과 바닥은 판자로 하면 좋으나 판자가 없으면 가마니를 쳐서 흙이 사료에 묻지 않게만 하면 된다)에 넣고 그 우를 널판자로 눌러 덮은 다음 二四—三五시간 지난 후 씻지 않고 그대로 소에게 먹인다.

잿물(초 목회) 처리 방법은 곡초 一키로그람 당 소금 六그람과 초 목회(채로 친 것) 五그람, 물 한키로그람의 비례로 만든 용액을 통안에 넣고 거기에 썰은 곡초를 넣은 다음 三—五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꺼내여 먹인다. 물은 섭씨 五〇—六〇도 정도의 온수라야 한다.

### 3、다즙 사료

다즙 사료에는 마령서, 뚝감자, 호박, 무우 또는 그 대용으로서 쎌로쓰 등이 있다.

다즙 사료는 청초가 없는 겨울철에 소나 돼지에게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사료이다.

다즙 사료는 섬유가 적고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 있으며 또한 적당한 량의 비타민도 들어 있고 가축들이 가장 맛 있게 먹는다.

이 사료는 소나 돼지를 비육시킬 때와 젖소의 착유량을 제고시키는데 있어서 특히 효가가 있다.

다즙 사료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아직까지 그 생산이 극히 적으며 광범히 리용되지 못하고

있다。

똑감자는 사료로서 가치가 높은 작물이다。 대체로 여기에는 가소화 단백질 ○·四、섬유 ○·七、지방질 ○·二、전분 一六·四一이 들어 있으며 감미가 많기 때문에 가축들이 즐겨 먹는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전망성이 풍부한 사료 원천이므로 광범히 재배할 필요가 있다。

호박은 특히 돼지를 비육시킴에 있어서 가장 좋은 사료인바 이것을 생것으로나 삶아서 다른 사료와 섞어 주면 사료의 영양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호박을 소 사료로 줄 때에는 하루에 七—一二키로그람、돼지에게는 五키로그람까지 줄 수 있다。

찔로쓰 사료는 그 영양 가치로 보거나 용도상으로 보아 가축 사료로서 아주 중요한 사료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광범히 리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찔로쓰 제조의 원료로서는 여름철에 풋 강낭대、풋 콩대、클로바、갈、쑥、새 기타 야생 청초 등 얼마든지 있다。 이 모든 청초들은 대체로 꽃 피기 바로 직전과 꽃이 핀 시기에 양분이 제일 많이 포함되여 있으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많이 베여서 찔로쓰를 광범히 제조하여야 한다。

찔로쓰는 젖소에게 하루에 五—一○키로그람 정도、부리는 보통 소에게는 一二—一五 키로그람、송아지에게는 한키로그람、큰 돼지에게는 三—四키로그람 정도씩 농후 사료나 또한 조사료에 잘 섞어서 주면 가축들이 맛있게 먹으며 사료의 영양 가치도 더욱 높일 수 있다。

보통 찔로쓰에 습관되지 않은 가축들은 처음에는 잘 먹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축들에는 적은 량의 찔로쓰를 다른 사료에 섞어 먹이면서 습관을 부쳐 가지고 점차로 그 량을 증가시킬 것이며 그리하여 일단 찔로쓰에 완전히 습관된 후에 그 전량을 먹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

## 4、농후 사료

농후 사료에는 옥수수、콩、연맥、보리 및 기타 알곡들과 대두박、또는 밥찌꺼기 등이 있다。

농후 사료는 영양분이 가장 많이 포함되여 있다。

농후 사료로서의 알곡은 비교적 원가가 높고 우리 나라 실정으로 보아 그의 많은 수량을 사료로서 사용하기는 곤난하므로 될수록 알곡 사료를 절약하고 최소 한도로 먹이면서 적은 량을 가지고 여러가지로 가공하여 그 영양 가치와 소화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5、광물질 사료

광물질 사료에는 소금、어분、골분 등이 있다。

광물질 사료는 역시 가축 사양에 없어서는 안될 사료이다。 가축의 체내에 광물질이 부족하게 되면 체내 기관들의 생리 작용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 특히 골격을 튼튼히 하며 혈액과 젖을 많게 하는데 광물질이 극히 필요하므로 소금、어분、골분 등을 불에 태워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먹이든가 혹은 붉은 색을 띤 진흙을 태워 먹이면 좋다。 우리들이 흔히 보는 바와 같이 돼지가 땅을 뒤지는 것이라든가 소가 땅바닥을 후벼 파고 핥으며 또한 철사나 못 같은 쇠 부스러기를 주어 먹는 것 등은 체내에 광물질이 부족한 까닭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앞으로 각 농촌 청년들은 소나 돼지들을 더욱 더 많이 기르며 그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옥수수를 비롯한 호박、똑감자 등 사료 작물을 광범히 재배하며 청초를 제때에 많이 베여서 질 좋은 찔로쓰와 건초 등 사료를 다량적으로 장만하는 동시에 산간 지대 또는 토질이 나쁜 곳에는 클로바、루산 등 목초를 널리 재배하여 사료 원천을 더욱 풍부히 하는 한편 사료의 합리적 리용과 가공 방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며 가축의 량적 질적 증가에 더 한층 노력할 것이다。

《중요 사료의 영양 가치》

| 사료명 | 1 사료 단위에 얼마의 사료가 요구되는가 (키로) | 1 사료 단위에 얼마의 가소화 담백질이 있는가 (그람) | 1키로의 사료에 몇 사료 단위를 보유하고있는가 (키로) | 1 키로의 사료에 얼마의 가소화 담백질이보유되였는가 (그람) |
|---|---|---|---|---|
| 청초클로바 | 6.8 | 95 | 0.15 | 14 |
| 개화전청초루산 | 6.0 | 132 | 0.15 | 22 |
| 개화시청초루산 | 7.1 | 107 | 0.15 | 15 |
| 대두청애 | 4.7 | 126 | 0.2 | 27 |
| 흑맥청애 | 4.9 | 54 | 0.2 | 11 |
| 옥수수청애 | 5.2 | 36 | 0.19 | 7 |
| 수수청애 | 3.9 | 21 | 0.25 | 6 |
| 재배목초 | 1.92 | 77 | 0.52 | 40 |
| 산림의상등건초 | 2.2 | 66 | 0.45 | 30 |
| 육골분 | 1.5 | 250 | 0.6 | 161 |

조선 농림 수산 기술 총련맹 중앙 위원회 제공



# 상 연 프 로

### 극 예술 영화

대 가 정
로메오와 쥴리엘
두 동 무
바다의 사냥군
위험한 오솔길
호랑이를 다루는 처녀
후 보 선 수




### 기록영화

알바니야 친선 방문
구라파 선수권자

### 시보영화

금일의 쏘련
농촌 경리 시보
체육 시보
소년 시보

### 만화영화

작난 꾸레기
밀림 속에서
욕심 많은 두 새끼곰

### 과학영화

밀림속의 고라니
원쑤와 친우
국립 에르미따쥬

# 생의 노래

조 기 천

편집부는 전투적 애국 시인 조 기천 서거 四주년에 제하여 그의 장편 서사시『생의 노래』중에서 八장, 九장, 一○장을 게재하면서 이 웅장한 로동의 서사시를 감상하는데 독자들을 방조하려 한다.

## 제 八 장 에 서

제八장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로동자들은 다만 기계를 다루며 생산을 하는 그런 기계적인 생활의 반복자가 아니라 목적 지향성이 뚜렷한 의식적인 생활의 주인공들임을 본다.

그 전날 같았으면 하늘의 별빛도 야속하게만 뵈였고 공장 지구도 침침하게만 뵈였을 여기에서, 그 전날 같았으면 어느 외로운 미루나무에 걸린 초생달만 뵈여 왔을 여기에서 그들은 오늘 휘황한 성좌를 보며 새 시대의 숨결이 흐르는 고압선에 걸린 초생달을 보며 궁전처럼 화려한 구락부에서 환희와 랑만에 넘친 생활을 즐긴다.

제八장에서 묘사된 생활의 보람은 바로 그들 자신이 생활의 주인임으로 해서이다. 우리는 八장에서 또한 영수와 금순이의 건전하고 참된 사랑이 그 뿌리를『참된 인생의 봄에』둔데 있다는 것을 그. 자신들의 창조적 로력 생활에서 흘러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 제 九 장 에 서

이 작품의 매장 매절에서 우리는 전진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본다. 그러나 이 현실의 전진은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새 것과 낡은 것 간의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간의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현실에 민감한 시인 조 기천은 이 낡은 유물들에 대하여 날카로운 붓끝을 디리대였다. 그것을 우리는 제二절, 제三절에서 력력히 볼 수 있다.

『…불그락 푸르락 섰던 성삼은 그만 침을 밷고 들었던 삽을 동댕이 친다. 삽은 놀란 듯이 뎅가당 뛰더니 그만 목이 부러져 딩군다…』

『…목에 걸린 마스크를 풀어서 낯도 씻고, 점심 차림인가? 식당 쪽도 바라보고「다모토리」생각인가?…』

우리는 이 대목에서 또다시 그러한 낡은 것과의 투쟁에서 원칙적인 영수와 만나게 된다. 이 대목의 발전은 제一○장 제七절과 제八절에서 진실성 있게 아주 감격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 제 一○ 장 에 서

우선 우리는 이 장에서 시인 조 기천의 선명한 세계관과 그의 정력적인 창작 태도에 공명하게 되며 이 시인의 인민에 대한 충직성과 복무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一○장에서 우리 로력 투쟁 속에서의 참다운 경쟁의 원칙을 배우게 된다.

오늘날의 우리의 경쟁은 공명심을 허락치 않으며 락후한 동무에 대한 방임을 용허치 않으며 그에 대한 방조를 꺼리는 현상을 극도로 저주한다.『제 일이나 합시다』『제 코나 씻습니다』이와 같은 말을 던지는 성삼이『자넨 아직도 경쟁이란 뜻을 모르는가?』『우리만 일을 잘하면 증산이 되는 줄 아는가?』하는 영수。우리는 반드시 머지 않은 앞날 성삼이도 바로 영수처럼 될 것을 또 영수와 같은 무수한 새로운 전형들의 대렬이 확대될 것을 확신하게 된다。



## 제 八 장

### 1

능산 솔밭에
황혼이 찾아들 무렵
뻐꾹새의 울음도
저물어진 봄을 찾아 떠남인가
산골짜기로 사라지고
능령천에서도 안개 흐르더니
산 넘어 벌을 지나 옴인가
첫 여름 밤은 로동자 주택구에
부드러운 깃을 드리우고
하늘에도 성좌,
공장 지구에도 성좌—
은하수는 운전벌로 흐르는가
어느새 고압선엔
초생달이 걸렸는가!
이 때면 뉘보다 먼저
직맹 위원장이 밖에 나선다
학습회의 성적이며
강연회의 경과는 어떤가?
음악 써클의 련습은?
오락실의 오락은?
이때면 뉘보다 먼저
직맹이 두팔을 걷운다

### 2

구락부 유리창들이
사람들을 높이 부를 무렵
오락실에 들어 서면
추상 같은 호령 소리—
『장이야! 군이야!』
영수와 투입공 장 령감이
승부를 겨룬다
영수는 턱을 매만지며
갈팡 질팡 망서리는
적수의 거동을 살핀다
령감은 붉어진 낯 입술까지 떨면서
금방 무찔러 들어 오는
적수의「차」를 노린다
장기에 소문난
장 령감이 아닌가?
비록 곤경에 빠졌기로니
설마 젊은이한테 두번이나 질가!

### 3

빙—둘러선 구경군들마저
그를 포위하는듯—
『물러들 서! 무슨 걱정이야!』
령감이 짜중 낸다
헌데 구경군 한 사람은—
『장 령감은 녹았소 그려!』
높이들 웃는 소리는
령감의 비틀린 비위를 건드린다,
뒤이여 구경군 다른 사람은—
『장 령감은 장 개석의 신세로군!』
터지는 웃음 소리는
그만 령감의 비위를 뒤엎는다
『뭐이? 장 개석이?』
노기 덩덩한 낯을 들며—
『늙은 사람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여…』
령감은 그만 줌을 놓는다
『령감님, 거야 롱언이지요!』
영수 웃으며 말하였건만,
『령감님 잘못했습니다!』
넌지 정색하고 말하였건만,
『롱언은 롱언이고
장 개석이나 리 승만은
검정개들일세!』
령감은 돌아서 나가다가—
『자네 장기는 퍽 늘었네…
래일 저녁에도 떠보세!』

### 4

영수도 다른 사람들도
웃는 낯으로 그를 바라본다
존경심에 젖은 웃음,
힘 있는 사람들의 낯에만
꽃 필 수 있는 웃음—
그 속에서『장이야! 군이야!』
호령 소리 높아 가고
승리의 전략을 꾸미면서
「흰 씨」「검은 씨」들이
바둑판에 심어지고
「붉은 말」「푸른 말」들이
결사전에 내 닫고
핑퐁이 날고 뛰고
동구알이 딱—타—다—닥



**이렇게 이곳 사람들은**
**오락 시간을 보낸다**

5

그런데 원무장에선
시보 해설도 끝나고
『양덕 맹산 흐르난 물은
부벽루로만 감돌아 드네』
장내에 맑게 흐를 제면
『엘화 놓아라!…』 합창하며
무용 써클 처녀들이
금순이를 뒤따라
갈매기 흰 나래를 펼친 모양
원무장에 날아들면
『그래도 못 놓겠네…』 화답하며
전로공들이 뛰여 들어。
그러면 힘이 솟구치는 동작에
부드럽고 가는 선들이
이모저모 수를 놓는 춤。
앞서거니 뒤 서거니
따르라는가 잡는다는가—
『열네번 죽어도
나는 못놓겠네…』

6

원무장은 파도 쳐도
영수는 그 속에서도
금순이를 보았다
웃음까지도 붉어진
처녀의 낯。

**사람들 새에 섰노라니**
영수를 바라 보는듯
인사까지 하는듯…
『능숙진 못하나
나도 딴스 하리라!』
영수는 대단히 결심한다
허나 춤은 끝나고
춤은 다시 시작하였건만
영수는 처녀 앞으로 못갔다
어찌하랴!
가슴만 두군거리고
걸음은 안되는 것을、
어찌하랴!
전기로 앞에 나선듯
낯은 화끈해져도
춤은 탑평봉이 아니고
사랑은 전기로 아닌 것을!
음악 소리 높을수록
원무장이 끓을수록
초조해 가는 마음—
영수는 그만
밖으로 나가버린다

7

공장 지구의 밤은 깊었는데
달빛이 흐름인고
별빛이 흐름인고
복사나무 잎새에서
주렁진 열매들이 반짝이는데
창 앞에 청년이 앉았다

이름 모를 밤새 한마리
놀란듯이 날아 지난다
우수수 씨원한 밤 바람이
해초 냄새를 방안에 뿌린다
손에 쥐일 듯 걸어진 공기는
가슴에 겹겹 들어 붙는고
청년의 안타까운 마음—
심장이 작아지는가?…
영수는 그만 와락 일어선다…
해빙기의 대하를 보았는가—
한번 눌리였던 가슴을
쳐들고 일어나
억제와 침묵을 깨뜨리고
햇발을 받아 안고
웃으며 뛰며 춤추는、
딩굴며 어리광치는 거찬 흐름을!

8

다시 구락부로 구락부로
걸음 재촉하는 영수、
어떤 녀인이 걸어온다—
그 모습、그 걸음거리
어찌 꿈엔들 잊으랴!
영수는 우뚝 서고
금순이도 우뚝 서고
심장도 멎고
리지력도 멎는 그 순간
청년은 모른다—
어떻게 처녀 앞에 다가섰는지、
무슨 말을 할지—





『금순 동무!
나는 사랑합니다!
금순이를 사랑합니다!』
뉘가 막는듯이 빨리 말했거니
그 담엔 대답을 기다렸는가
아니면 그만 돌쳐 섰는가
신작로에 나섰고
가슴에서 뛰여 나오는듯
심장이 어데론지 달리거니
어찌 금순의 말을 들었으리。
뉘던지 못들었네—
『영수! 영수!』
처녀의 낮은 부르짖음을。
뉘던지 보지 못했네—
처녀의 뺨에서
별 같이 눈물이 빤짝임을。
더욱 뉘겐들 말하리—
구락부에서 나옴도
영수를 찾음이요
이제 다시 보기만 했으면
와락 부여 잡고
『나도 사랑해요!』
그만 울고 싶은 마음을!

9

**사람들이여!**
우리는 사랑을 노래한다
뉘와 함께 맞으려던 봄을
호올로 보내서도 아니다
**처녀들이 시인을 사랑한다고**

「련애시」 몇편을 홍지버려
「달콤한 사랑」을 구함도 아니다
오늘의 직장에서 마을에서
생활에 뒤얼키고
마디마디 맺히여 꽃피는 사랑、
민주 건설의 마당으로
나란히 손 잡고 나서는 사랑、
조국 창건에 꽃 뿌리는 사랑、
새 조선의 높은 사랑을
우리는 노래한다

10

「시들은 청춘」도
「서러운 인생」도
죽어 가는 무리들의 장송곡。
지금 종로 네거리에서
겨레의 피를 마시는 놈들이
「눈물의 사랑」을 울부짖는다
매춘부의 간사한 웃음에 맞추어。
「유각」「기생」「련애병」…
이 모든 썩은 쓰레기를
망각의 개울탕에 처박으라!
사랑은 가는 손목에 아니라
생활을 틀어 잡음에 있다
사랑은 높은 젖 가슴도
별 같은 눈매도 아니다
사랑은 그 뿌리를
참된 인생의 봄에 두었다
봄이 없을진대
어찌 높은 사랑이 있으랴!

## 제 九 장

봄을 위해
조선의 봄
인민의 봄을 위해 싸우라!

1

벽에 걸린 생산 도표—
붉은 선 푸른 선들이
떨어졌다가도
다시 솟아 오르는。
그 앞에 말없이 서 있는 기사장。
어제는 붉은 선이
가슴을 찌르는 첨각으로
엄청나게 미끄러졌다
이렇게 어찌 八·一五를 맞으랴!
二개년 계획을 실행하라!
굵은 불안이
기사장의 이마에 그리여졌다
노크하는 소리도
미남 기사 들어오는 것도
그는 모른다…
『기사장도 도표를…』
빙그레 웃는 미남 기사의 말。
『어서 들어오시우、
기다렸습니다!』
그 담 약속이나 한듯이
붉은 선을 쳐다 보는 기사들
조잡한 곡선들이
심장에 아픈 금을 치거던



**어찌** 말하여서만 알리
**친**애론 마음들이거던—
『**원**료의 품질 제고!』
『**전**국의 고장을
**최**소한도로 축소!』
**친**애론 마음들이
운포로부터 석회로를 철쳐
류출구까지 이르거던、
선진 기술이
작업 개편을 부르거던
이제 며칠만 지나면
붉은 선들은 창끝인양
성과에로 높이 솟으리
전로공들의 마음을 추켜들고。
허나 오늘만은
二호 전기로에 두번이나 고장。

2

영수는 또 전극을 든다
철분에 막힌 출구를 뚫으려고。
또 고장이냐고
불그락 푸르락 섰던 성삼은
그만 침을 뱉고
들었던 삽을 동댕이친다
삽은 놀란듯이 뎅가당 뛰더니
그만 목이 부러져 딩군다
『성삼이! 무슨 개짓이야!』
영수의 호통소리다
성삼은 머리 번쩍 들며
『뭐야? 개즛이!』

**결**쟁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무엇을 볼 새 없이 쳐든다、
순간 반장의 머리에
쇠몽둥이 떨어지리라
그러나 영수는 본체만체
태연히 돌아 서며
낮게 하는 말이—
『그 삽에도…
나라 돈이 들었어!』
쇠몽둥이를 맥없이 내려놓고
털석 주저앉은 성삼은
머리 숙였던 성삼은
뉘던지 들으라는듯—
『모범 로동자들은…
일이나 하우…』—말하고
밖으로 나간다

3

목에 걸린 마스크를 풀어서
낮도 씻고—
점심차림인가?
식당쪽도 바라보고—
「다모토리」생각인가?
해도 쳐다보고—
퇴근 시간을 알렴인가?
웬 일인지 서성대던 성삼은
다시 현장으로 들어간다
현장에 들어와선
뒤집지고 섰더니
영수 앞으로 오며—

『마치는 이리 주소…』
낮게 말한다
영수는 웃으면서—
『모범 로동자 될려우?』
『또 틀렸소!…』
부러진 삽을 보며
픽 웃는 성삼이。
다른 전로공들도 따라 웃는다
웨 가슴들은 쩡—울리는가!
마음들이 높거니
마치 소리도 높아라!
성삼의 팔뚝에서
근육들이 쇠소리 나듯 뛰더니
류출구는 열리고
카바이트 불물은 흐른다
불꽃을 휘날리며
불물은! 불물은!

4

오늘도
로동 회관 속보판 앞에
전로공들이 섰다
웨 날마다 공장은
여기를 걸쳐서야 있느냐?
말 없이 다가서는 사람、
말 없이 읽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
싸움터로 나가는
전사의 낯을 보았느냐
손등에 피 솟아 오르듯





주먹이 쥐여지는 속보판
걸음마다 눈에서
불을 뗄쿠는 속보판
이 땅의 남반부에 벌어진
참담한 사변!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현장에 들어서거니
누가 전기로에서부터
송악산이 멀다더냐—
애국자들의 시체 달리운
남천 로송들이 우는 소리
력력히 들리는데
누가 전기로에서부터
종로 네거리 멀다더냐—
남반부 인민의 신음소리
이곳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데…

5

오늘도 거기선
애국자들이 끌려 나갔다
고문실로 교수대로—
누구 누구 죽었느냐?
오늘도 거기선
거칠은 산록、이름 없는 강반이
카빙총 몰사격에 울었다
누구 누구 죽었느냐?
오늘도 거기선
마을들이 잿데미 되였다—
뉘 집 할아버지、어린이、
뉘 집 어머니、안해 죽었느냐?

오늘도 거기선
한강 철교 밑으로
처녀의 시체 떠나려 간다
진고개 좁은 골목 울타리 밑에
굶어 죽은 어린애의 시체 놓였다
대구 큰 거리에서
학생들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부산 부두 돌바닥에서
로동자들이 머리 터져 죽었다
오늘도 거기선
달리는 찦차 뒤에
양키들의 너털 웃음이 떨어지고
매국노들이 굽절며 엎디거니
얼마나 이 땅을 팔았느냐?

6

오、이 모든 것을
피로、
겨레의 가슴에
피로 새기라!
그 날은 오리라!
역적들을 날날이 쓸어내고
봄 맞은 대지에 꽃 피는 날、
사람들의 가슴에마다
태양이 들어앉고
옛말에서인양 三천리 아름다울
생의 날、행복의 날!
오、그날을 위하여
이 나라 인민이 일어섰다
며수의 밤이 탔다

한라산 지리산이 떨친다
그날、그날을 위하여
전로공들이 들어간다
전기로 현장으로、
조국 창건의 싸움터로!

# 제一〇장

1

옛날엔
시가를 풍월이라 불렀다
그래서 시인이라 자처한 무리들은
화조 월석을 찾았고
초로 인생을 설어했는가?
그래서 그들에겐
외적의 나팔 소리보다
피리 소리 더 높이 들리였고
달이 둥구는 전 잘 알았는가?
시인이라 자처한 무리들은
병 든 마음을 따고 들며
인생의 비애를 찬미하며—
무엇 때문이였느냐?
지는 꽃이 서러웠더냐?
조선의 가슴에
일제의 칼이 박혔는데—

2

오늘 이 땅의 남반부에서
『이 술 한잔』을
노래하는 놈들이



『정치를 떠났노라』 떠벌이면서
나라를 팔아 먹는다
『인생의 눈물』을
울부짖는 놈들이
어린애의 머리를
구둣발로 짓밟는다
녀인의 젖가슴을
칼로 베인다

오、이 참혹한 모든 것을
二〇세기의 야수들이
『오늘의 예술』이라 하거던
어찌 우리의 노래
총창이 안되랴!
총창!
그 야수들을 일일이 소탕시킬
서릿발의 총창!

시인들이여、
대렬을 정돈하라!
시가의 총창도 높이
돌격에 나서라!

3

허나 높은 노래로서
이 나라의 아름다운 산천을 불러
인민을 조국애에 일으킨 시인、
피타는 노래를 들고 일어나
원쑤에게 대항한 시인—
노래 불러 싸우고
노래 불러 교수대에 오른 시인、
인민은 그들을 믿어

그들을 기리 사랑하리!
그들이 부른 노래
민족의 신성한 무기로
세기와 세기를
하루 같이 지내리!

4

예전 시인들은
로동과 땀내를
시가의 죽음이라 하였다
허나 우리는
「작업량」을 말하련다
「생산 능률」을 웨치련다

으스름한 봄밤、
달콤한 사랑의 한숨에서가 아니라
땀 흐르는 직장에서
참된 노래를 듣는다
창조에 불타는 가슴、
꽃 백힌 주먹에서
아름다움을 본다

생활에 웃음이 꽃 피기에
웃는 꽃을 반긴다
창조의 투쟁이 끓으며
태양이 빛나기에
달 밝은 밤을 사랑한다

이 땅의 예술가들이여!
높은 정열을 노래하려면
힘이 솟구치는 선을 보이려면
억찬 리듬을 찾으려면
여기로 오라—

자유 로력의 현장으로。

5

한초 한초를 따지는
두 팔의 동작、
그것과 조화되여
춤추듯이 움직이는 몸짓—
힘과 민활성
속도와 정확성、
그것들이 심장의 고동과 더불어
조자 맞게 어울려지거니
카바이트는 흐르고
불꽃은 날리고、
八・一五 증산 경쟁이 뒤끓는
최후의 승부를 겨루는
마지막 주간!
앞서기는 三호 전기로、
뒤따르기는 二호 전기로。

6

영수는 땀을 씻으며
마스크 벗은 성삼을 꾸짖는데
성삼은 마스크를 쓰면
가깝증이 난다고 버티는데
三호 전기로 쪽에서
높이 솟은 불 빛、
마치 쟁쟁한 젊은 피 흐르듯이
카바이트 수기를 넘쳐
콩크리트 바닥에 쏟아지는
카바이트 불물—





류출구 터진 것이다
영수는 나무 토막을 쥐고
나는듯이 달려간다
어느새 류출구는 막아지고
불꽃은 멎는다—
이름 높은 류출공 영수 아닌가!

7

영수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성삼의 찌푸린 말이—
『제일이나 합시다!』
영수는 그 뜻을 잘 안다—
웨、남의 걱정을 하느냐고
그리고야 승리하느냐고。
그러면 경쟁인가고。
성삼의 부르튼 말이—
『제코나 씻습니다…』
『자넨 아직도
「경쟁」이란 뜻을 모르는가?』
영수의 질문을
성삼은 못듣는듯、
『우리만 일을 잘 하면
증산이 되는 줄 아는가?』
영수의 질문을
성삼은 못듣는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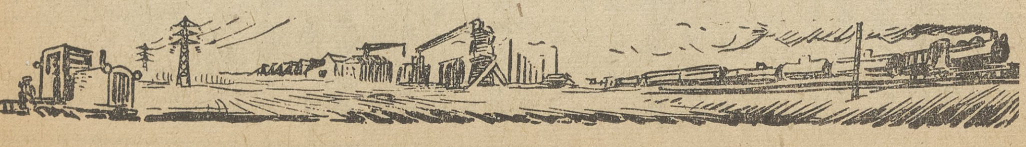
8

『나는 오늘 제一 교대에 남겠네
四호 전기로를 돕겠네!』
영수의 말이다
『제三 교대라도 남으세
五호 전기로라도 도와 주세!』—
성삼의 대답이다
그러나 밤 교대에서 영수는
성삼이를 보았다—
二호 전기로에서 일하는、
마스크도 없이 일하는…
아、그만 뛰여가서
그를 얼싸 껴안고 싶은 마음、
기어코 무슨 이야기든지
애들처럼 웃어가며
서로서로 쳐다 보며
길게 길게 말하고도 싶은 마음이여!
밤 교대에서 으뜸 가는
덕보의 작업반—
정량 一五〇%를 넘기면서
영수를 바지런히 따르면서
三호 전기로를 앞섰다
一호 전기로의 전극 고장도
두시간에 수선토록 도와주고。
아침에 공장 뜨락에 나서니
흐뭇하니 들먹이는 가슴—

아、피곤도 그만 씃듯 없어지는
증산 경쟁의 높은 뜻이여!
아름다운 노래마냥
그것은 울리여 울리여
사람의 흉금을 치거든。
칠 때마다 뻗치는 힘、
우뚝 솟은 마음의 물결—
애국의 거센 흐름이여!

9

물결은 친다
증산의 드높은 물결은。
북반부 전역에
창조의 로력은 끓는다—
이것은 해방의 날을 맞는
이 나라 인민의 숭고한 습성!
노예의 멍에도 아니다!
착취의 피땀도 아니다!
자유론 백성이
새 삶에 일어선、
찬연한 행복에의 길로 나가는
애국의 거센 흐름—
영용의 로력!
영광의 로력!
이것은 해방된 이 나라 인민이 가진
새롭고도 숭고한 도덕!



# 이 책들을 읽자!

## ☆ 사회 과학

### 인류 사회는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발전하여 왔는가

조선 로동당 출판사 발행

이 책은 인류 사회의 발생과 발전의 력사를 간명하고 쉽게 해설하고 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들은 인류 사회가 어떻게 또한 어떠한 법칙에 의하여 발전하여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 쏘베트 청년들의 도덕적 면모에 대하여

엔·이 볼되레브 저 민주 청년사 발행

이 책에는 공산주의 도덕의 중요 원칙들에 립각하여 쏘베트 청년들의 고상한 도덕적 면모들이 서술되여 있다。

### 공산당과 공청

브·바야노브 저 민주 청년사 발행

이 책에는 공산당의 방조자이며 후비대로써의 공청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공청의 기본 임무들이 씌여져 있다。

### 공청 사업에 관한 쏘련 공산당 결정서 집

민주 청년사 발행

이 책에는 공청 사업에 관한 쏘련 공산당의 중요한 결정들이 묶어져 있다。

## ☆ 자연 과학

### 농촌 생활과 과학

조선 로동당 출판사 발행

이 책은 농촌 생활의 이모 저모를 과학적 견지에서 고찰하여 통속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 물、공기、비료

최 윤식 저 민주 청년사 발행

이 책은 청년들에게 과학 지식을 배양하기 위한 대중 과학 서적으로써 물、공기、비료가 우리 생활에 어떠한 작용을 하며 어떻게 이를 리용할 것인가를 서술하고 있다。

### 과학 지식 일문 일답

양 태룡 저 국립 출판사 발행

이 서적은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간단히 해명하고 있다。

## ☆ 문 학

### 력 사

한 설야 저 작가 동맹 출판사 발행

이 책은 一九三五—一九三六년 경의 김 일성 원수의 항일 빨찌산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주로 취급된 사건은 김 일성 원수께서 직접 조직 지도하신 아동 혁명단 사업과 그 당시 왜군과 위만군을 무찌른 전투 중에서 시난찬 전투와 황리허즈 전투를 그렸다。

### 조기천 선집

작가 동맹 출판사 발행

이 책에는 장편 서사시 『백두산』을 비롯한 전투적 애국 시인 조 기천의 대부분의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다。

### 땅

리 기영 저 작가 동맹 출판사 발행

이 소설은 해방후 토지 개혁의 실시가 어떻게 공화국 북반부 농촌 경리를 발전시켰으며 농민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발전시켰는가 하는 것을 테마로 하였다。 이 소설은 『개간편』 『수확편』의 두 부분으로 되여 있다。



### 고 향

리 기영 저 작가 동맹 출판사 발행

이 작품은 一九三五—一九三六년대에 일제와 야합한 지주들의 야만적 착취로 인해 피폐할대로 피폐한 조선 농촌에서 농민들이 일제와 지주의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점차 계급적으로 장성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 림 꺽 정

홍 명희 저 국립 출판사 발행

『림꺽정』은 一六세기 후반기에 있은 실제 인물이다。 이 소설은 림 꺽정 일당의 투쟁 모습을 통하여 당시의 부패한 량반 통치 계급을 폭로하며 그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뵈여 주고 있다。

### 청년 근위대 (一、二부)

파제예브 저 민주 청년사 발행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독일 파시스트들에게 일시적으로 강점 당한 크라스노돈의 청년들이 적에게 굴복하지 않고 영웅적으로 투쟁한 위훈을 훌륭하게 묘사한 쏘베트 문학의 걸작 중의 하나이다。

### 모쓰크바를 멀리 떨어져서 (一、二、三부)

브·아쟈예브 저 민주 청년사 발행

이 작품은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원동의 송유관 공사에서 쏘련 건설 일군들이 온갖 곤난을 극복하며 낡은 건설 일군들과의 맹렬한 사상 투쟁 속에서 당과 정부가 맡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쏘베트의 새 인간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一九四八년 쓰딸린 상 제一급을 받았다。

### 모든 것을 당에 바치여

우 원뛰 저 민주 청년사 발행

이 책은 작가 우 원뛰 자신이 한개의 평범한 로동자로부터 어떻게 강인한 혁명 투사로 장성 발전되였는가 하는 것을 자서전의 형식으로 서술한 작품이다。

### 청년에 관하여

므·고리끼 저 민주 청년사 발행

이 책에는 청년들에 관한 위대한 문호 므·고리끼의 론설、오체르크、연설、편지들이 편집되여 있다。

### 아들의 이야기

엘레나·니꼴라예브나 꼬쉐와야 저 민주 청년사 발행

이 책은 청년 근위대원인 올레그 꼬쉐보이의 젊은 일생을 회상하여 그의 어머니가 쓴 회상기이다。

### 주르빈 일가

보쎄웰로드·조체또브 저 조쏘 출판사 발행

이 작품은 주르빈 일가의 생활을 통하여 쏘베트 사람들의 새로운 도덕적 품성 및 공산주의적 생활 태도를 높은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뵈여 주고 였다。

### 개간된 처녀지

미하일·숄로호브 저 조쏘 출판사 발행

이 작품은 쏘련 농촌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 건설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첨예화한 계급 투쟁 그리고 사회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뵈여 준다。

### 새 언덕으로

윌리쓰 라찌쓰 저 조쏘출판사 발행

이 책은 二차대전 당시 라뜨위야 공화국이 히틀러 군대에 의하여 강점되였다가 해방될 때까지 라뜨위야의 애국자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붉은 군대와 같이 전선에서 그리고 후방에서 어떻게 싸웠으며 원쑤를 격퇴한 후 조국의 농촌의 경리를 어떻게 복구 발전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평의한 구상과 간명한 필치로써 우리에게 유감없이 뵈여 주고 있다。

# 二만五천리 장정 이야기 (중국)

양 팅 허

다음에 게재하는 글은 一九五四년 六월 『중국 청년보』에 련재된 『홍군 장정 이야기』 중의 『설산 초지 행군기』 이다.

중국 로농 홍군 제一방면군은 중국 공산당 중앙과 모 주석의 령도밑에 一九三四년 一〇월부터 一九三五년 一〇월까지 혁명의 새 승리를 위하여 남쪽 혁명 근거지로부터 북쪽 혁명 근거지—섬북성—에로 이동하는 二만 五천리의 장정을 하였다. 이 장정은 매일 몇 一〇대의 적기의 정찰, 폭격과 몇 一〇만 적군의 추격과 차단을 무릅쓰고 무수한 천험을 정복하는 등 천신 만고를 극복하는 간고한 행군이였다.

중국 혁명의 승리는 이와 같은 장기간의 간고 분투와 류혈적 희생을 거쳐서 비로소 쟁취된 것이다.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간고하였던 일시적 후퇴를 체험한 우리들은 이 글에서 중국 공산당원들의 혁명적 영웅주의와 난관 극복의 고상한 혁명 정신을 잘 알수 있으며 또 배울 수 있다—편집부—



## 설산 행군

### 협금산을 승리적으로 넘다

여기에서 말하는 설산 초지는 사천, 서강, 청해성에서 감숙성에 이르는 그 사이의 삼각지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일대는 홍군이 원정하던 도중에 거쳐 지나간 특수한 지방이다. 홍군이 창건된 이래 설산 초지를 지나던 때와 같은 그런 곤난은 있어 본적이 없으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사실 전 중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말하더라도 이와 같이 『괴장한』 지방을 지나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설산 초지의 전 구역은 아주 넓다. 설산 지구의 행정은 약 三一일이고 거리는 도합 二천 七백리 좌우나 되며 초지의 행정은 七일간이고 거리는 약 六백리나 되였다. 허다한 설산 초지에는 인적이 희소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도상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지방도 있었다. 홍군의 一방면군은 一九三五년 六월 초에 사천성 보흥현의 화소지에서 떠나 협금산을 넘었다.

협금산은 보흥현 서북, 무공현 남쪽 리현 서남에 있으며 하늘 높이 구름 우에 우뚝 솟아 있으므로 산 봉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다. 홍군이 운남성으로부터 사천성으로 전입할 때는 바로 무더운 여름철이였고 지휘원과 전투원들은 모두 중국 남부의 사람들이였으므로 누구나 홑 군복 한벌씩 밖에 입지 않았다. 이런 정황 밑에서 문득 설산 초지에 들어서게 되니 협금산을 넘기전에 의복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였다. 홍군 당국은 처음에 각 련대에 명령하여 병에다 술을 조금씩 사 넣게 하였으며 매 사람에게 고추 한두개씩 나누어 줌으로써 산에 오를 때 추위를 이겨내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곳 인민의 총 호수는 백호도 못되니 어데서 이렇게 많은 술을 얻을 수 있었으랴? 결국은 매 사람에게 끓인 고추물 한 공기씩을 마시고 산에 오르게 하였다.

협금산은 아주 괴상하여 아미산의 설산에 비교하면 퍽 다르다. 아미산의 눈은 돈 있는 신사 계급들이 불원 천리하고 와서 『구경』을 할 수 있었지만 협금산의 눈은 『구경』은 커녕 도리여 사람을 얼궈 죽일 지경이다.

협금산 우에는 매일 같이 오후이면 눈보라가 휘날리고 찬 기운이 온 하늘을 가리워 그야말로 눈을 뜰수 없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일반적 도리에 비추어 생각하면 산으로 좀 빨리 올라 가면 몸에 열이 나서 추위를 막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협금산의 공기는 아주 희박하여 호흡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 우에서 천천히 걸어갈 수 밖에 없었다.

고추 물을 먹는 방법은 몸이 건장한 사람에게는 좀 작용을 일으켰으나 몸이 약한 사람들은 도리여 추워서 이가 쪼끼고 심지어는 얼굴이 새까맣게 되였다. 그러나 그들의 혁명 열정은 협금산의 혹독한 추위도 불태웠으며 게다가 동지들 간의 혁명적 우애 정신으로 설산을 넘을 때 서로 돌보고 방조하였으므로 홍군은 천하에 드문 곤난에 부딪쳤으나 몇몇 동지가 희생된 외에는 모두 승리적으로 협금산을 넘어 섰다.

### 공중에 붉은 기를 휘날리며 대유에로 진입

이런 곤난한 정황 하에서 홍군은 수심에 잠겼으리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홍군은 절대로 수심을 끼지 않았다. 그들은 산을 올라 갈 때의 피로와 엄한의 협박을 받았지만 산을 내려 갈때 『보라! 동무들! 전쟁이 시작되였으니 날창을 꽂아 들고 용감하게 무찔러라』 하는 노래 소리가 산악을 진동하였으며 사람마다 설산을 전승하였기 때문에 기쁨을 느꼈다. 선견 부대의 제二사가 홍군의 제四방면군과 회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원은 더욱 더 백배의 용기를 내여 산에서 뛰여 내려 갔다. 부대가 대유에 거의 들어갈 때 전원은 홍군 제四방면군 제九군 二五사의 음악대와 전투 부대를 보자 모두 붉은 기를 높이 추켜 들어 붉은 기는 온 하늘을 가리웠으며 폭죽 소리도 끊임없이 났으며 전반 대오는 모두 기뻐 날뛰였다.

그날 저녁에 대유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一방면군과 四방면군 부대를 소집하여 련석 회의를 열었다. 홍군의 최고 령수 모 택동과 주덕은 이 련석 회의에 참가하여 연설하였다. 그들이 회장에 나타났을 때 『모 주석 만세!』 『주 총사령 만세!』 라는 환호 소리와 박수 소리는 온 회장을 진동시켰다. 그들의 연설이 끝난 후에는 각종 유희가 벌어졌는데 각 지방 말씨로 되는 합창이 끝났는가 하면 뒤를 이어 중서 음악의 합주가 벌어졌다. 홍군 중의 리백조란 사람이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을 출때 무대 아래의 사람들은 『쏘련 해군무를 재청한다!』 『재청!』 하면서 끊임없이 소리를 질러 그야말로 그를 무대에서 내려 올수 없게 하였다. (홍군은 대유에서 하루 동안 휴식한 다음 무공에 가서 추격하는 사천군을 항격하고 거기서 四일 동안 휴식 정돈하였다)

### 무공을 떠나 설산을 넘다

무공에서 떠난 후에는 곤난이 더욱 심했다. 도로 연선의 장족 인민들은 당시 국민당 남경 정부 방면의 반동 선전의 기만, 공갈과 사천군 및 당지 반동 분자의 위협으로 인하여 대부분 숨어 버렸거나 도망쳐 버렸다.

그리하여 홍군들은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었으므로 식염이 떨어지고 량곡과 사료의 공황도 생겼다. 하루에 풋 밀, 옥수수, 모밀, 호감자(고구마)를 두어끼씩 먹었는데 이것조차 아침 저녁을 이어대기 어려웠으므로 이들 식량을 사흘에 나누어 먹을 수 밖에 없었으며 많은 부대들에서는 하루에 겨우 한끼 밖에 먹지 못했다. 어떤 부대들에서는 끼마다 겨우 요기나 될 정도밖에 먹지 못하였다.

량하구로부터 탁극기에 이르는 一백 二〇리 그 어간에는 협금산만큼 높은 설산이 있다. 이번에 설산을 넘는데는 물론 경험이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마다 그전 처럼 고추물을 마신 외에 또 덮고 자는 담요로써 온 몸을 쌌다. 이렇게 설산을 넘었다.

## 밀을 베여 량곡을 장만하고 고락을 같이 하였다

그후에 홍군은 마하파로부터 측격、흑수、로화 등지에로 이동하자면 강 기슭 좌우를 따라 걸어야 하였다。 급류는 폭포와도 같았으며 부딪치는 파도 소리는 천지를 진동했다。 어떤 곳은 마치 노한 바다의 파도와 같이 몇자씩 높이 솟구쳐 올랐다。 그러므로 어데나 할 것없이 걸어서는 도저히 건너 갈 수 없었다。 도로는 구불구불한 양의 창자 처럼 좁아서 한사람씩 겨우 지날 수 있는 정도이며 길 좌우쪽은 모두 험한 비탈과 절벽이였다。 사람들은 그때도 두손으로 기여 넘을 수 있었으나 노새와 말은 빗디디여 떨어져 많이 죽었다。

선두 부대가 마하파에서 四〇리 떨어져 있는 측격에 들어갔을 때 모든 후속 부대는 여전히 탁극기에 집중하여 량곡과 사료를 보충하면서 거기에서 四일동안 휴식하고 훈련하였다。 四일 후에 근무 기관 위생부만 탁극기에 남겨두어 장족 인민에게 선전 해설을 하여 민족 호상간의 친선을 도모하도록 하게 한 외에 그 나머지 부대는 또 계속 측격으로 집중하였다。

사마로부터 전진하여 각 지방을 지날 때 길가의 장족 인민들은 그전 처럼 그렇게 홍군을 조애하지 않았다。 이 四〇리의 행정 중에 있어서는 눈비가 내려 길이 몹씨 진데다 또 길이 좁아 행군하기 어려웠으며 량식도 떨어졌다。 이때 그곳의 풋밀들을 별써 누르스럼하게 되였으므로 그런대로 베여 먹을 수 있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 홍군은 밀을 베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람을 四방에 파견하여 장족 인민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것은 그들에게 일정한 댓가를 주기 위한 것이였다。

앞으로 량곡은 더욱 더 곤난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게 되였으므로 홍군의 지휘부에서는 각 부대에 一〇일 동안의 량곡과 사료를 장만하는 동시에 추격하는 적에 대한 반격을 책임진 일부분의 부대를 도와 량곡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때는 참으로 『밀을 베지 않으면 먹지 못할』 형편에 이르렀다。

근무를 담당한 소수의 부대와 부상병들을 제외하고는 주 총 사령으로부터 화식원과 사양원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동원되여 밀 베는 운동에 참가했다。 매일 아침 여덟시가 되면 각 련대는 집합하여 지정한 밀 밭으로 출발하였다。 한떼한떼의 홍군 전사들은 한데 뫼여서 자각적이고 자동적으로 로동하면서 홍이 나면 노래도 불렀다。 어떤 동무들은 소년 선봉대의 노래를 불렀고 어떤 동무들은 홍군 돌격 승리의 노래와 一、四방면군 회합의 노래를 불렀다。 노래 소리가 일시에 온 들판으로 퍼져 나가는 바람에 괴로운 줄도 모르고 모두 열정적인 쾌락 속에 잠겼을 뿐이였다。

여기에서 특히 지적할만한 것은 홍군의 총사령인 주 덕이다。 그는 전투원들과 같이 밀을 베고 밀 마당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벤 다음에는 一〇리 二〇리씩 되는 먼 곳으로부터 五〇—六〇근씩 되는 밀자루를 메고 돌아오군 했다。 그는 또 전사와 공작원들에게 항상 『동무들과 같은 청년들이 四〇—五〇근도 메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청년이라 할 수 있겠소!』라고 말하군 했다。 여러 동무들은 모두 무안한 기색으로 그에게 웃음을 보냈다。 홍군의 령수인 모 택동과 주 은래 동지는 부대를 지휘하느라고 이런 로동에 참가할 짬이 없었다。 그러나 그외의 중국 공산당 중앙 서기처 서기인 장 문천과 머리칼이 반 백발이 된 서특립、림 백거도 모두 참가하여 밀을 베군 했다。 홍군 가운데서 상하가 일치하게 고락을 같이 맛보는 이런 정신은 참으로 사람들이 탄복할만한 것이다。 그렇기에 전원은 기한에서 시달리고 극히 곤난한 가운데서도 일치 단결하여 시종 여일하게 고도의 정치적 열성과 전투 정신을 보지한 것이다。

저녁마다 또 작업이 끝난 후이면 정치과 식자과를 강의하였으며 당 지부회、소조회 등 각종 회의를 열었다。

## 六백리의 초원지를 돌파

### 물 깊고 풀은 자랐으며 독류(毒流)는 온 벌판에 가득찼다

八월 一八일、좌우 량로군은 일시에 북상하였다。 예정 계획에 의하여 좌로군은 탁극기에서 떠나 상하 아파를 거쳐 초지를 지나 다시 동쪽으로 반우에 이르며 우로군은 송번을 돌아서 초지로부터 반우에 이르러 좌로군과 회합한 다음 다시 감숙、섬서를 꿰여지나 북상항일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초지라는 곳은 도대체 어떠한 곳인가? 간단하게 비교하여 본다면 고비사막과 꼭 상반



되는 곳이다。 고비사막은 물 한방울、풀 한포기도 없는 끝없는 모래밭이지만 초지는 온 들판에 청초가 빼곡히 자라 있고 물은 구뎅이마다 산골짝마다에만 가득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물이 차 있었다。 어떤 곳은 무릎까지 올라오는 물이 三—四리씩이나 뻗쳐 있으며 물은 꺼룩하고 검은 색이 나며 대부분이 지방의 물에는 아주 많은 독이 내포되여 있기 때문에 전혀 마실 수 없다。 어떤 동무들은 갈증을 참지 못하여 그만 독질이 있는 물을 마시고 대번에 배가 뿔어나며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였다。 또 일부 동무들의 발은 풀 뿌리에 찔리운 다음 독소가 들어가 인차 벌겋게 부어 올랐으며 그 상처는 즉시로 썩어 났다。 위생부의 일군들이 갖은 방법을 다하여 치료하였으나 나은 사람은 퍽 적으며 결국 어떤 사람은 불구자로 되고 말았다。

이곳의 지질은 아주 특수하다。 우는 딴딴하고 밑은 물렁물렁하다。 지면에 청초가 빼곡히 자라 있고 풀뿌리가 서로 엉키여 있기 때문에 마치 『구름다리』에 올라선 것과 같고 헝겊에 싼 순두부 처럼 물렁물렁하다。 걸어 갈 때에는 특히 조심하여 청초가 빼곡히 난 곳을 골라 디디여야만 하였다。

만약 부주의해서 풀뿌리가 있는 땅 거죽이 꺼진다면 진흙 구렁 속에 빠지게 된다。 땅 밑의 진탕은 풀지고 아주 깊어서 노새나 말이 빠지면 저절로 기여 나오지 못하였으며 사람도 빠지기만 하면 다른 사람의 방조를 받아야만 나올 수 있었다。 소위 『사천으로 가는 길이 험하다』 하여도 이곳에 비하면 만분의 一도 못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초지의 수분이 이처럼 많은 것은 실로 기후에 의하여 조성된 것이다。 一년 三백 六五일 동안 춘、하、추、동 四시절을 물론하고 어느 날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안개는 온 하늘을 뒤덮는다。 음침한 바람이 불어오며 눈보라가 휘날리여 그야말로 눈을 뜰 수 없고 숨이 막히며 아주 처량하다。 초지에서는 하늘을 보기도 퍽 힘들거니와 해를 보기는 더욱 힘들다。

八월 一八일 우리들이 모아개로부터 출발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모아개에서 떠나 북으로 四〇리를 가면 초원 지대가 나진다。 이날 선발 가설 부대는 대략 六〇리쯤 갔고 후속 가설 부대는 四〇리쯤 가서 초원 주변에서 행진을 멈췄다。 그때 야영지 부근에는 수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나무들을 끚어다 불을 피워 놓고 젖은 의복을 말리울 수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수목을 보기 퍽 힘들었으며 인가를 보기는 더욱 힘들었다。 우리 통역의 말에 의하면 이 길에는 전혀 다녀 본 사람이 없었다 하며 단지 유목 시대의 부락 장민들만이 해마다 특종의 말을 타고 한번씩 래왕할 뿐이였다고 한다。 특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초지의 특산으로서 보통 말과 달라 발굽이 특히 크다。

모아개를 떠난 이틀만에 홍군은 완전히 초원 지대로 깊이 들어갔다。 안만 바라보아도 초원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전사들은 검은 구름 속에서 비쳐 나오는 희미한 햇빛을 보고서야 겨우 동、서、남、북의 방향을 분별할 수 있었다。 홍군은 장민 몇 사람을 길 안내자로 삼았으나 길 안내자도 역시 장민들이 이왕에 다니던 말 발자욱에 의해서만 갈 수 있었다。 그러므로 초지 속에 깊이 들어간 다음에는 물이 많은 곳이나 청초가 무성한 곳에 부딪쳤을 때는 과거에 말들이 다니던 발자욱을 찾기 힘들며 전진할 방법이 없었다。

이따금 어떤 곳에서는 작은 산 언덕을 넘어 지름 길을 따라 전진할 수 있었으나 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산 비탈을 따라 빙빙 돌면서 불필요한 일부 산과 언덕을 기기도 했었다。 홍군이 초지에서 행군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오직 북쪽으로만 향해서 걸어 갔을 따름이며 완전히 자체에 의지하여 자기의 전진할 길을 개척한 것이다。 그러므로 홍군의 북상 항일 선견 지대(支隊)는 역시 초지의 길을 개척한 선봉대였던 것이다。

방향과 길을 잃은 관계로 이날의 행군은 도합 七〇—八〇리 밖에 걷지 못하였으며 야영지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날이 저물었다。 저녁에는 큰 비가 내려 전사들은 잠을 잘 수 없었으며 심지어 물조차 끓여 마실 수 없게 되였다。 홍군이 당한 곤난은 이와 같이 많았으나 전사들의 투지와 사기는 여전히 매우 앙양되여 있었다。 때문에 그곳의 반동 분자들이 기병을 거느리고 깊은 밤중에 홍군의 기계 수리 공장을 습격했을 때 홍군의 본 부대에서는 아직 손도 쓰지 않았는데 기계 수리 공장의 엄호 부대가 습격해 오는 기병을 재빠르게 물리쳤었다。 제三일만에 주둔지에서 계속 후하 방면으로 전진하였다。

## 고상한 기개

초지에서는 길만이 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고 먹는데도 큰 곤난을 받았다。 우리들이 강서에서 출발할 때 매 사람에게 의복 두벌씩

내주었고 귀주성 준의에 가서 또 한벌씩 더 내주었고 오늘까지 근 一〇개월 밖에 되지 않으나 성한 의복을 입은 사람은 퍽 적었다. 날씨가 또 몹씨 추워지자 어떤 동무들은 양, 범, 락타, 개 등 각종 수피들을 몸에다 걸쳤는데 그야말로 온갖 잡동산이였다. 또 어떤 동무들은 양털을 천으로 만든 담요 속에 몸을 가리우는체 했으며 또 적지 않은 동무들에게는 군모도 없거니와 삿갓, 우산조차 없어서 바람, 비, 태양에 시달려 완전히 『대머리 군』으로 되였다. 이런 보잘 것 없는 형편인데다 매일 바람, 비, 눈의 습격을 받았었다. 낮의 행군에 벌써 입술과 낯이 새파랗게 얼었다. 七〇—八〇리씩 걸어서 야영지에 도달했을 때는 사람마다 풀 잎사귀를 조금씩 주어 깔고 흠빽 젖은 초지 우에 앉을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낮의 행군의 피로 때문에 자연히 졸음이 오게 된다. 그러면 두 세사람씩 등과 등을 맞대이고 자다가 그 주위의 누구 하나가 움직거리기만 하면 모두가 일시에 잠을 깨군 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하여 맨땅에 누어서 자는 바람에 의복이 흠빽 젖었다. 밤중이 되여 살을 어이는 듯한 눈보라에 놀라 깨여 났으나 나무는 고사하고 건초조차 얻을래야 얻을 수 없었으며 설혹 있다 하더라도 불이 당기지 않았으니 어찌 벌벌 떨지 않을 수 있으랴!

혈맥만 정지되면 희생될 위험이 있었다. 같은 부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아주 비통해 하였으나 비관 실망하지 않고 도리여 이구 동성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동무여! 동무는 벌써 독립, 자위, 행복한 중국을 위하여 마지막 숨결까지 다 바쳤습니다』 곁에 섰던 동무가 또 이렇게 첨가해 말하였다: 『문제 없습니다. 동무에게 부과되였던 과업을 우리가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독립, 해방을 위하여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흘리겠습니다』

곤난이 이처럼 막심한 정황 밑에서도 홍군 전사들은 그래도 여전히 이런 영용하고 견인한 투쟁 기개를 품고 있었다. 이것은 정말로 더 없는 고귀한 기개인 것이였다.

## 기아를 전승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은 것은 또 기아였다. 매일 오후이면 야영지에 이르기 전에 사람마다 나무 가지와 마른 풀 뿌리를 줏어 오라고 명령했었다. 그러나 요만한 것으로는 겨우 물을 조금 끓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쌀이 있다 하더라도 밥을 지을 방법이 없었다. 각자가 몇 근씩 질머진 보꾼 풋 밀쌀과 미수가루는 매일 오후이면 빗 물에 젖어서 색갈이 변했다. 그리하여 미수가루는 한데 엉키여 덩어리로 보꾼 풋 밀쌀은 물에 젖어서 고무 풀 처럼 진득진득 해지는 것이였다.

가루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매사람에게 차려진 한잔의 더운 물에 풀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았다. 그러나 가루가 없어 풋 밀쌀을 씹어 먹는 사람은 이가 아파서 넉량 중도 먹지 못하였다. 밤에 잠도 자지 못하였지만 이튼날이면 또 七〇—八〇리씩 걸어야 했다. 나무가 부족했으므로 매일 새벽녁에 출발하기 전에 더운 물도 마시지 못했다. 매개인은 숨이 넘어갈 지경으로 찬 얼음 물에다 풋 밀쌀 혹은 미수가루를 조금씩 먹고는 또 이를 악물고 성큼성큼 힘 있게 앞으로 전진하였다.

## 장정중의 녀영웅

물질 조건은 이와 같이 곤난했지만 장정 영웅들은 물론 부녀와 년로한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아주 유쾌하였다.

홍군 중의 부녀는 확실히 『건국 영웅』의 기개가 있었다. 『물론 그럴 것이지, 그들은 로동에 습관되였으니까요』 라고 사람들이 꼭 생각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그들 가운데의 다수는 로동에 습관된 근로 녀성들이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비교적 부유한 가정의 출신으로 아가씨 생활을 해 오던 사람도 있고 고등 교육을 받은 대학생과 외국 류학을 갔다 온 류학생들도 있으며 또 一〇년 전에는 사회에서 성망이 자자하던 등 연초 같은 정치 활동가도 있었다.

초지로 나간 제三일날 후하를 건널 때 등 연초는 병에 걸렸다. 강 너비가 약 백자이고 깊이가 석자 가량 되였기 때문에 부대는 강가에서 멈추게 되였다. 적지 않은 군관들은 모두 등 연초를 가보았다. 그는 숨이 차하면서 자기를 에워싼 군관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강물이 어느 정도로 깊습니까?』 군관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했었다: 『문제없습니다. 걱정마십시요』 그는 또 아주 관심하여 전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동무들 모두 손에 손을 잡고 건너가야 됩니다. 의복을 적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초지를 넘어 가는 최



후의 곤난입니다』 전사들은 그의 말을 듣고 모두 커다란 고무를 받았고 도강할 용기를 더욱 높였다.

채창 동무는 홍군 가운데서 『큰 누님』이라고 불리웠다. 그는 광동성 량호 등지에서 부녀해방 운동에 노력해 왔고 또 불란서에 가서 다년간 류학도 했다. 그가 군용 초신을 신고 허리에 권총을 차고 대오 속에 서게 되면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녀성 동무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불란서 말을 잘 알며 또한 노래도 잘 부르기 때문에 모든 대오들이 강가에 집결하여 강 건느기를 기다릴 때 전사들은 모두 『누님에게 불란서 경마곡을 청합시다!』라고 다 같이 소리치군 했다. 그러면 그는 웃으면서 전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좋습니다. 제가 부를테니 조용합시다』 이때 떠들어 치던 복잡한 소리는 조용해졌다. 그는 불란서 말로써 『경마곡』을 불렀다. 나는 불란서 말을 알지 못하지만 그 음률의 억양과 노래 소리의 감개는 사기를 고무시키는데 아주 훌륭하였다. 전사들은 비록 기한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노래 소리를 듣자 모두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피로와 적막감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더 정신을 가다듬어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할 용기를 떨치게 하였다.

주더 총 사령의 애인 강 극청 동무는 강서성 태화의 어느 농가에서 태여난 녀자라고 할다. 그는 주더 총 사령과 결혼한지 七년인데 결혼할 때는 글 한자도 몰랐다. 그러나 一九三三년에 그는 홍군 학교와 홍군 대학을 졸업하였다. 강서성에서 백군이 홍군에 대한 一、二、三、四차의 『포위 토벌』을 반대할 때 그는 어느 전역에나 거의 다 참가했다. 그는 홍군 총 사령부 직속 부대의 정치 위원을 감당하고 각개 전선에서 탄알이 비오듯 하는 진지 속을 출입하였다. 장정 가운데서 그는 권총, 가죽 가방, 군용 지도, 량곡 등을 질머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의 보따리와 담요도 지고 다녔었다.

후하강변 언덕에서 나는 그가 메고 다니는 자기 가죽 가방을 무릎 우에 놓고 친히 직속대 도강 순서의 명령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 보통 농가의 녀자로서 몇년 동안에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은 주로 공산당의 교육과 교양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의 녀성 동포들이 모두다 홍군 가운데의 녀 영웅들을 따라 학습한다면 구국 전선상에서 반드시 경시할 수 없는 력량으로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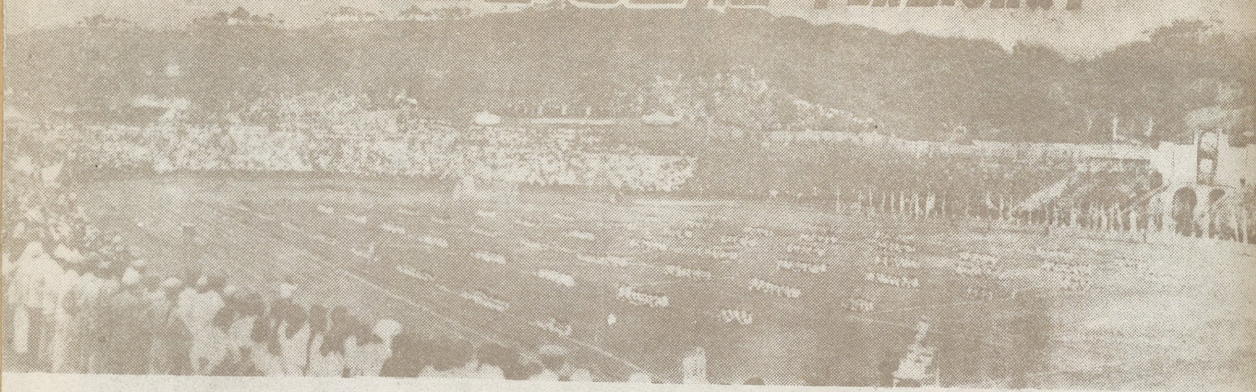
복건성 장정 현 위원회 서기를 담임하고 한 개 현의 당 정 군중 공작을 령도하던 리 견진 동무는 광동성 동강의 어느 농촌 녀성으로서 공산당에 참가하여 사업한지 대략 一〇년이 된다. 강서성의 홍군 확대 운동 중에서 영예로운 표창을 받았다. 그는 장정 가운데서 총 위생부 간부 휴양 중대의 지도원을 담임했다. 이밖에도 적지 않은 녀 의사와 무전 녀 보무 (報務) 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일반 전사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였으며 행군에서 다른 사람의 뒤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대오를 따라 후하를 건넜다. 이런 『건국 영웅』의 기개는 참으로 사람들을 탄복시켰다.

## 장정 가운데의 늙은 영웅

그 다음으로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홍군 중의 몇몇 로인이다. 그들의 억센 투지는 참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존경하게 하였다. 례를 들면 서 특립 동지는 六〇세가 가까워 머리칼이 희게 되였고 치아도 빠졌다. 그는 중국 중앙 로농 민주 정부의 위원 겸 교육부 부부장이다. 그는 홍군 중에서 홍군 대학의 정치 교수를 담임하고 설산 초지를 지나는 아주 간고한 조건 밑에서도 여전히 계속 강의를 하였다. 그의 생활은 병사들과 마찬가지였다. 장정 가운데서 그는 반나절도 말을 탄적이라군 없이 날마다 걸었다. 초지를 지날 때 그는 나귀를 몰면서 나귀에게 적지 않은 보따리와 담요를 실었다. 후하강가에서 모 택동 동지가 그에게 『늙은 동무 어째서 나귀를 타지 않습니까?』하고 물으니 서 특립 동지는 『나의 나귀에는 병 있는 세 학생의 보따리와 담요를 실었습니다. 우리는 걸어가도 별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물질 조건이 곤난한 때문에 서 특립 동지는 헌 붉은 천 한쪼박을 줏어다 자기의 바지를 기웠으며 몸에는 다 궤여진 털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손에는 지팽이 하나를 쥐고 어깨에는 또 닭은 밀과 떡 여덟근을 지고 다녔다. 그가 군관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을 늘 들을 수 있었다: 『오늘 싸움이 있습니까? 봉쇄선은 없습니까?』 그는 병 때문에 뒤에 떨어진 사람을 보면 꼭 걸음을 멈추고 호남 말씨로 『동무 부지런히 따라 오시오! 오래지 않아 야영지에 도착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전사들은 이

# 조선 인민군 종합 체육 대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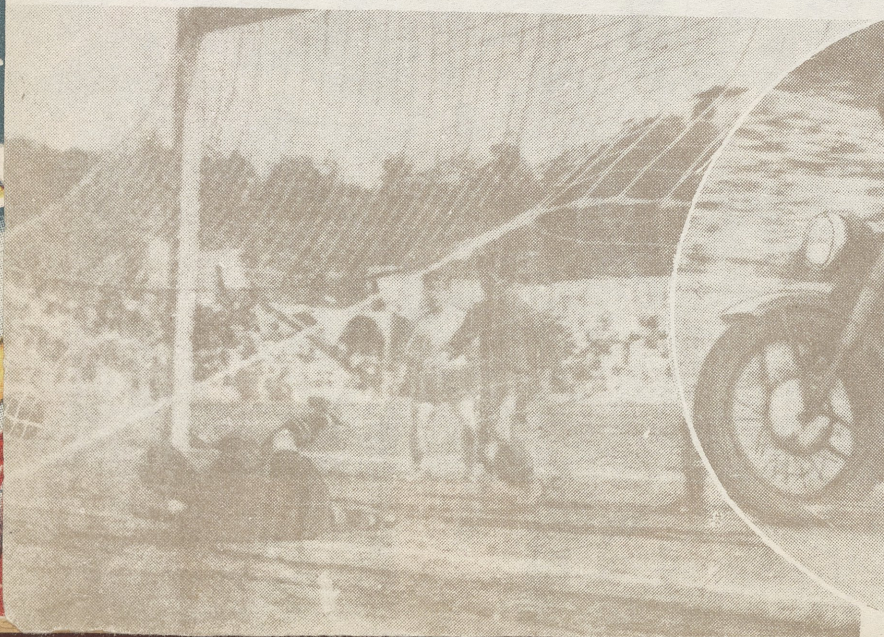
수류탄 던지기에서 제一위를 쟁취한 공화국 영웅 김철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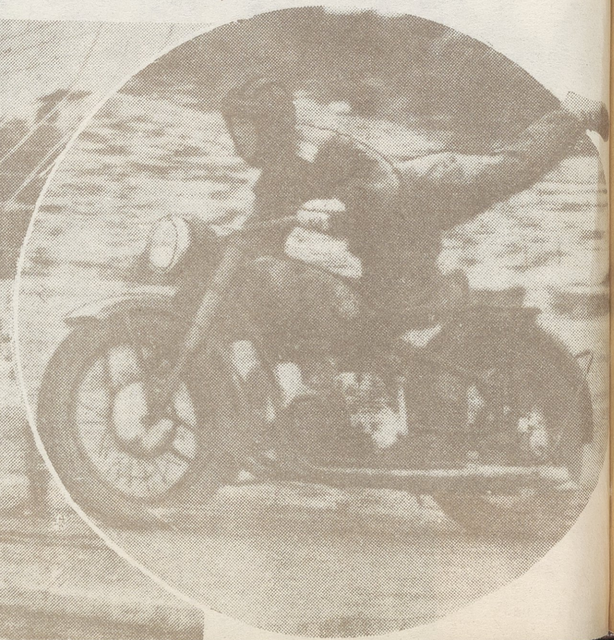


결승선에 도착한 허섭 소속 군부대 10 키로 강행군조원들

관중의 인기를 집중한 축구 경기



송영실 소속 군부대 모터찌클 마쓰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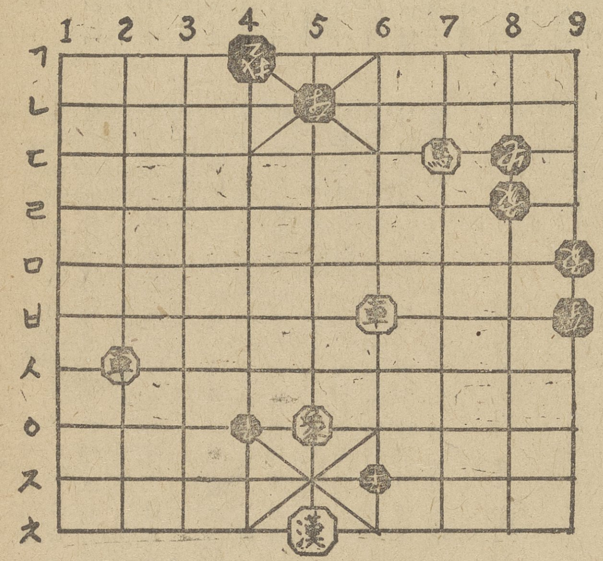
로인의 자애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나와 함께 걸으면서 쉴새 없이 나에게 옛말을 해준 림 조합 동지도 수염과 머리칼이 희슥희슥한 五○에 가까운 로인이였다。 그는 손중산 선생과 여러해 동안 같이 있었으며 일본에 류학 갔을 때 동맹회에 가입했었다。 一九二五년부터 一九二七년의 혁명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는 이미 국민 혁명군 제六군단 대표를 담임했었고 국민당 중앙 상무 위원이였다。 一九二八년에 그는 쏘련에 가서 류학하다가 一九三二년에 귀국하여 중국 홍군에 와서 복무했다。 홍군이 강서성에 있을 때 그는 중앙 로농 민주 정부 재정 부장을 담임했다。 장정 가운데서 그는 원정군의 중요 책임을 지고 일체의 군량과 복장을 해결하였다。 행군 도중에 있어서 그는 도수가 높은 근시 안경을 끼고 밀 한 포대를 메고 다녔으며 밤낮을 불문하고 그의 왼손에는 마등(馬燈) 하나를 들고 오른손에는 지팽이 하나를 쥔 것을 볼수 있었다。 후하강 언덕에서 그가 우리에게 『신해 혁명』의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기한에 시달리며 도강을 기다리던 몇 천명의 전사들은 이·로인을 에워싸고 도강할 때까지 정신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또 五○세 전후가 되는 사 각재와 동 필무 두 로인이 있다。 사 각재 동무는 호남성 교육계의 명인이다。 동 필무 동무는 일찍 동맹회에 가입했고 신해 혁명에 참가하였었다。 장정 가운데서 이 두 로인은 모두 홍군의 정치 공작을 담임했었고 먼 길을 걸으며 산으로 오르며 고개를 넘으며 하류를 건너면서도 시종 여일하게 전강하였다。 공산당 내의 남녀 로소가 모두 시종 여일하고 장하 일치하게 공산주의와 인민을 위한 사업의 철저한 승리를 위하여 간고 분투한 정신은 확실히 사람들이 학습하고 존경할만한 것이다。

## 장기 박보 수 풀기

한이 먼저 써서 이김
(단 교전 회수는 13회를 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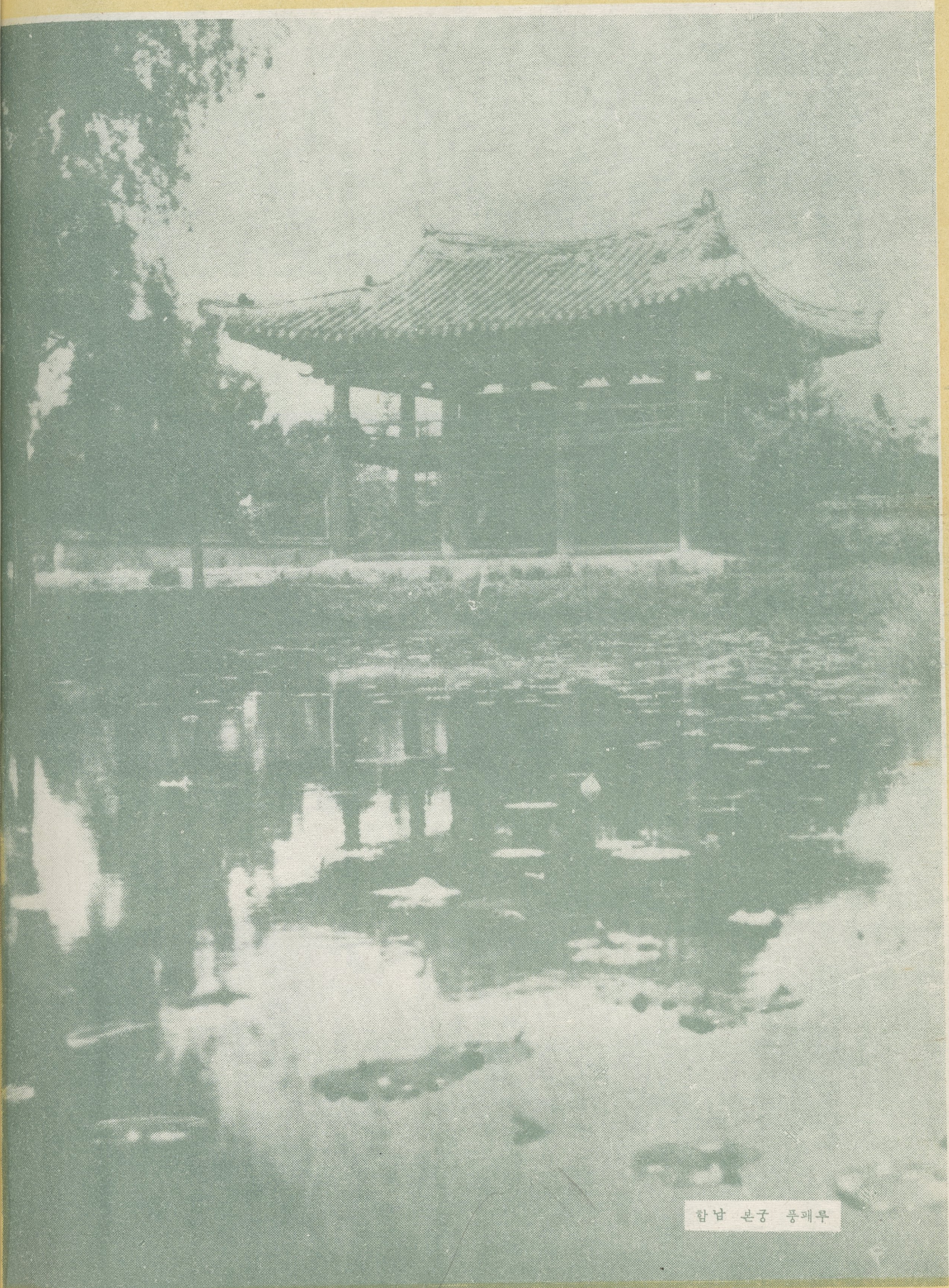



**편집 위원** 리 홍종 (주필)
김 득준 박 철복 허 석선
신 호근 장 성준 최 만석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잡지 『청년생활』 1955년 제 7호
1955년 7월 15일 인 쇄
1955년 7월 20일 발 행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ㄱ—3.130 21,000부 발행 값 60 원



함남 본궁 풍패루